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86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4월 29일) 2024년 6월 5일 수요일

비구니스님 인명정보 '아카이브'로 만난다

韓비구니승가연구소, 4년간 구축
비구니스님 343명 중심으로 구성
콘텐츠 개발·다양한 언어로 제공
'시맨틱 데이터'로 정보 확장 용이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비구니스님의 생애와 수행 과정, 사찰 정보와 포교 활동 사항까지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비구니스님 인물사전 디지털 아카이브'가 구축됐다. 키워드 사이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시맨틱 데이터'를 적용, 비구니스님들의 세계를 넓은 시각에서 볼 수 있게 구축됐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 산하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소장 수경 스님, 이하 승가연구소)는 5월 27일 서울 법룡사 전국비구니회관 메따공연장에서 '비구니 인물사전 디지털 아카이브 편찬 보고회'를 진행했다.

비구니인물사전 디지털 아카이브 편찬 사업은 전국비구니회가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한 불사다. 역대 비구니스님들의 활동과 정보를 축적, 이를 확장해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4년여간 편찬 과정이 마무리된 1차 비구니 인물사전은 '한국비구니 수행담록' 상·중·하 3권에 실린 비구니스님 329명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이 외에도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출가한 스님들을 포함해 343명이 수록됐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비구니스님들의 생애와 수행과정, 포교활동, 주석한 사찰의 위치와 역사문화를 스토리 위주로 소개해 다양한 정보를 시간과 공간, 사건을 중심으로 촘촘한 관계망을 구축, 데이터화한 것이 특징이다. 추후 법문 자료, 사찰 관광 안내, 불교와 비구니스님에 대한 문화콘텐츠 개발, 연구, 신문기사 작성 등 다방면에서 활용될 것으로 주목된다.

특히 텍스트를 분석해 키워드 사이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시맨틱 데이터'를 적용, 의미있는 키워드끼리 연결되면서 다양한 정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가 곧 참여가자 돼 정보를 더해가며 확장해나갈수 있어 향후 가치도 크다는 게 승가연구소 측의 설명이다.

승가연구소는 비구니 인물사전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들을 세계 각국 언어로도 제공하고 인공지능을 활용,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비구니스님에 관한 신문기사 디지털화 작업도 진행, 추후 인물사전 아카이브와 연동시켜 확장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날 발표회에서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디지털 불사에 혼신을 다한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광용 스님은 "많은 이들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비구니 디지털 인물사전은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것"이라며 "윗대 어른스님들의 수행과 포교에 대한 수승함과 업적을 확인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비구니 승가에 획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후배들을 키워내는 데 큰 자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에 새로운 장을 비구니스님들이 열었다"며 치하했다. 그러면서 "한국 역대 훌륭한 비구니스님들의 삶과 수행, 포교와 불사 등을 촘촘하게 데이터화한 이번 아카이브는 장차 디지털 불사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대 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비구니스님 자료집 제작을 시작한 20여 년 전을 회고했다. 본각 스님은 "개인의 힘으로 무모하게 시작한 불사가 비구니스님들의 관심과 봉사자들 덕분에 이렇게 모양을 갖추게 됐다"면서 "이 시대 한국비구니계의 자취를 후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저장소가 될 아카이브를 앞으로 더 멋지게 펼쳐나가는 것은 후배스님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20여 년 전 기초 자금을 지원해준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5월 29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동국대 불교동아리 연합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간담회 직후 14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대표들과 이사장 돈관 스님, 윤재웅 총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全 단과대 불교동아리 창립 동국대 '전법 역량' 결집

5월 29일 불교동아리 연합간담회
14대 단과대학 동아리 대표 참석
동아리별 특성화 활동 계획 발표
학교, 장학 · 행정 지원 등 약속해
돈관 스님 "118년 역사서 쾌거"

"처음 단과대학별로 불교동아리를 모두 창립하겠다고 했을 때 '두 달 만에 가능할까'라는 우려와 걱정들도 있었지만 기우였습니다. 단과대학별 불교동아리 창립은 1906년 개교 이래 118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쾌거입니다."

지난 5월 11일 14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을 완료한 동국대가 대학생 전법 역량 결집에 나섰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5월 29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동국대 불교동아리 연합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3월 20일 처음 창립했던 사회과학대학 '템플애플'부터 미래융합대학 '퓨처핸접'까지 14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대표와 지도교수, 지도법사가 참석했다. 또한 중앙동아리 '동불'과 5월 30일 오후 2시 정각원에서 창립법회를 한 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 학생 대표도 참여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건학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돈관 스님은 "지난해 입적하신 동국대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대종사께서는 대학생 청년불자 양성이 한국불교 중흥의 해답이라는 가르침을 남기셨다"면서 "앞으로 저와 대학은 모든 원력을 우리 불교동아리 활성화에 쏟을 것이다. 지도교수와 지도법사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앞으로 기존 장학제도를 개편하고 저 또한 기부를 열심히 뛰며 많은 불교동아리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면서 "나아가 9월 24일 예정된 불교문화축전은 불교동아리 학생들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며 스스로 눈높이로 큰 축제를 만들어 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회장과 동불 회장에게는 '제3기 동국건학장학생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이들에게는 연 5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된다. 또한 이들은 9월 24일 열리는 '불교문화축전'의 학생 기획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실무적으로 구체화된 불교동아리 지원 방안도 나왔다.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가 밝힌 계획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장학제도다.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회장에게는 '동국건학장학'을 통해 장학금이 수여되며, 미래불자육성장학에 동아리 회원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게 된다.

새로 신설되는 '동국가람장학'을 통해서는 동아리 회원 모두에게 연 4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된다.

이밖에도 총무원 장학, 동국인재장학, 불교 청년 지도자 육성 장학, 이서장학, 해외 학술 탐방 장학 등 다양한 장학제도에 불교동아리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단과대학 및 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에 대한 물적 지원도 이뤄진다. 동아리별 운영비로 연간 500만원을 지원하며, 지도교수에게는 봉사 및 업적 심사 점수가 추가로 부여된다. 지도법사에게는 매달 30만원의 활동비와 함께 연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또한 오는 6월 29일 동아리 연합체인 '불교 학생 연합'이 발족함에 따라 동아리 회원들이 회의하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 같은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에 학생들도 대학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활동 계획으로 화답했다.

불교대학 '가람수호대'는 불교유적 답사를 통해 한국불교사를 되새겨보는 활동을, 문과대학 '나를 찾아가는 여행'은 전국 사찰을 여행하며 불교문화를 체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법과대학 '불법(佛法)단체'는 중구민과 동국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봉사와 사찰 관련 법률 쟁송 등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경영대학 '다붓다붓'은 불교사상에 기반한 경영론을 연구하는 스터디 모임을 운영할 계획이다. 약학대학 '약사여래'는 지역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봉사와 사찰 플로깅을, AI융합대학 'BUDDHAI'는 정각원 메타버스 구축을 계획으로 내놨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오늘 간담회는 정말 환희심이 넘치는 자리"라면서 "한국불교 근대사 안에서 이처럼 단기간에 2000명의 학생들이 연합동아리를 참여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속가능한 정진의 형태로 이끌 것인가'이다"며 "학교에서는 대학생 청년불자들의 학업과 신행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각원장 제정 스님을 비롯해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 사무처장, 이창한 서울건학위원회 사무국장, 김규한 총무부장 등이 함께 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세계초대법왕 일붕존자 제28주기 추모다례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을 창종하시고 세계불교 초대법왕을 역임하시면서 세계 곳곳을 종횡무진하시며 오직 불교포교와 세계평화, 민족 평화통일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바치신 서경보 일붕존자의 제28주기 추모다례재를 아래와 같이 총본산 일붕선원에서 봉행하고자 하오니 종도님들께서는 참석하시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불기2568(2024)년 6월 14일 금요일(음5월9일)오전 10시 30분
▌장 소 : 일붕선원대법당
▌행사식순 : 1부 추모다례재 / 2부 추모대법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 일붕선원
▌전 화 : (02)991-8175,8904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자비 실천, 선명상 존재 이유입니다”

5월 30일 기자단 선명상 체험
금강 스님, 선명상 목적 강의
“숨 쉬는 매순간 깨어있어야”
준한 스님 지도로 실참 체험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의 지도에 따라 선명상을 체험하는 기자들. 사진=조계종 홍보국

“선명상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국민이 고통에서 해방되길 원하고, 본인 스스로도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행위. 그것이 자비의 실천이고, 선명상의 목적입니다. 분별심을 내려놓고 어디에도 걸림 없이 매순간 생생하게 살아있는 내 마음을 알아차려 보세요. 비로소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이 5월 30일 서울 홍대선원에서 열린 ‘교계 기자단 대상 선명상 체험 프로그램’에서 선명상의 정의와 중요성을 이같이 밝혔다. ‘이고득락(離苦得樂)’을 위해선 스스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하는데,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선명상’ 수행법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강 스님은 우선 경쟁과 비교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다. 스님은 “우리는 늘 분별하고, 차별하고 욕심을 부린다. 맛없는 것과 맛있는 것을 비교해 맛있는 것만 추구하고, 경험·지식·정보에 의해 상을 만들어내고, 갖가지 일어나는 감정으로 갈등한다”면서 “하지만 본래 마음은 잘못된 게 없다. 늘 깨끗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것이 우리 본래 성품이다. 본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다시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선명상 수행 방법도 소개했다. 스님에 따르면 수행 방법은 몸을 사용하는 ‘색법’과 마음을 다루는 ‘심법’으로 나뉜다. 색법에는 호흡, 향, 소리, 요가 등이 포함된다.

스님은 색법 가운데 현대인들에게 ‘장(長)호흡법’을 추천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신 후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이다. 현대인들의 음식문화를 보면 탁한 음식을 먹어 몸에 독소가 쌓인 경우가 많은데, 몸에 쌓인 긴장과 감정을 다 뱉어내는 ‘장호흡법’이 이를 해소하는 데 탁월하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숨을 쉴 땐 매순간 깨어있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마음은 물질보다 16배나 빨리 ‘찰나 생, 찰나 멸’한다고 합니다. 찰나가 75분의 1초라면, 마음의 찰나는 1200분의 1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 1억 번 넘게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순간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감정에 휩쓸리고 자기 알음알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뿐인 귀중한 삶. 낭비하지 말고 내 마음의 주인이 돼 평화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금강 스님의 법문이 끝난 후에는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참 지도에 나섰다. 준한 스님은 “선명상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길로, 틀이 없다. 보고, 듣고, 말하고, 춤추는 모든 게 선명상이 될 수 있다”며 “바이러스, 기후위기, AI 발전 등에 직면한 지금 시대에 명상은 가장 필요한 솔루션으로, 한국불교의 장점과 능력을 본격적으로 세상에 보여줄 때”라고 역설했다.

준한 스님의 지도에 따라 기자들은 와선 명상을 시작했다. 누워서 복식호흡을 하며 배의 움직임에 집중했다. 숨을 몸 깊은 곳까지 들이쉬며 몸과 마음에 안정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한 기자는 “늘 긴장하면서 숨 가쁘게 살아왔는데 오랜만에 숨을 깊이 들이마셔 본 것 같다. 잠깐의 체험으로도 마음이 참 편안해질 수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종지협, 발트 3국 순례…“세계평화 기원”

5월 20~28일, 이웃종교 성지순례
세계 종교 지도자들 만나 교류도


리투아니아 교황대사 정다운 몬시뇰과 만난 종지협 회장단, 운영위원들. 사진=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대표의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가 5월 20~28일 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에서 이웃종교체험 성지순례를 진행, 세계 종교 지도자들과 교류의 장을 열었다.

종지협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이번 성지순례에는 종지협 대표의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공동대표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정서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 등 5개 종단 대표와 정용욱 문체부 종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순례단은 5월 21일 첫 일정으로 리투아니아 교황대사관을 방문했다. 대사관에서는 대사대리로 있는 정다운 몬시뇰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지난해 몬시뇰 서임을 받은 정다운 사제는 교황청 외교부 소속 외교관이다. 진우 스님은 “종지협에는 현재 7대 종교 대표가 모여 국민 화합, 자비, 사랑 정신을 도모하는 활동을 지속해 왔다. 매년 이웃종교 성지순례를 함께하며 공감과 유대를 쌓고 있다”며 종교 지도자들의 꾸준한 연대활동이 종교화합과 사회통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월 24일에는 라트비아 수도인 리가에서 이동규 주라트비아 대한민국 대사를 만나 현 상황을 공유하며 세계평화 기원에 마음을 모았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접국인 발트 3국은 러시아 침공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동규 대사는 종지협의 방문을 환영하며 “러시아로 인해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종교 지도자들의 방문으로 발트 3국에 평화의 기운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K-팝, 한국어, 태권도 등 라트비아와 한국의 활발한 문화 교류도 희망했다. 이에 종지협은 “전쟁으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지구촌 곳곳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국제상황을 안타까워하며 발트 3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평화를 기원했다.

로마가톨릭, 루터교, 개신교, 정교회 등 10여 개 교단이 1989년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 에스토니아교회협회(이하 ECC) 관계자들도 만났다. 순례단은 5월 27일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 위치한 ECC를 찾아 종교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우라므사 비일마 탈린 루터교 대주교는 “한국 종교 지도자들이 먼 에스토니아까지 방문해줘 고맙다”고 인사하며 에스토니아 인구 및 종교현황을 소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에스토니아 사회에서도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에스토니아 거주 러시아인과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임을 전해들을 한국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통합으로 에스토니아에도 평화가 깃들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염원했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 6월말 신임회장 선출

5월 27일 선관위 구성해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가 5월 27일 중앙신도회 3층 회의실에서 ‘제28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해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고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제27대 회장 임기가 오는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회칙 제22조 및 선거 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근거해 ‘2024년 2/4분기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선관위는 총 9명이다. 교구신도회 대표 3인(△최상원 직할교구신도회장 △박숙자 7교구신도회장 △김남명 23교구신도회장), 신도단체 대표 3인(△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 △주현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선임직 부회장 3인(△정재호 부회장 △김상규 부회장 △신경희 부회장)이 추천을 통해 구성됐다.

회의에 따라 5월 28일 선거 공고가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됐으며, 후보 등록 마감은 6월 7일 오후 6시까지다. 6월 10일 2차 선관위 회의에서 후보 자격심사를 거친 후, 6월 27일 ‘제27회 5차 대의원총회’를 통해 제28대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김내영 기자

19차 유엔 베삭데이 조계종 대표단 참가

태국 방콕서 기념행사 열려

조계종 대표단이 5월 19~20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19차 유엔 국제 베삭데이 기념행사’에 참가했다. ‘신뢰와 연대를 구축하는 불교의 방식’이라는 주제로 열린 베삭데이 행사에는 73개국 2000여 명의 불교지도자와 학자 등이 참가했다. 조계종에선 포교원장 선업 스님과 해외특별교구장 직무대행 정범 스님, 포교연구실장 문종 스님,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혜안 스님, 총무원 사회국장 진효 스님, 국제교류위원 경완 스님, 황순일 동국대 교수가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첫날 아유타야 지역 국립불교대학인 마하출라롱콘라자비디알라야대학(MCU)에서 진행된 오전 프로그램에서 솜뎃 마하 티리찬 태국 최고승가위원의 인사말이 진행됐다. 이어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축사를 통해 세계의 불제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한 태국정부와 유엔 국제 베삭위원회 등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후에 진행된 주제별 패널 토론에선 동국대 교법사 자헌 스님이 ‘건강과 웰빙을 위한 마음챙김’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호섭 기자



‘상월결사 정신’으로 풀어낸 ‘부처님 생애’

동국대 〈붓다〉 발간… 윤재웅 총장 · 박기련 사무총장 집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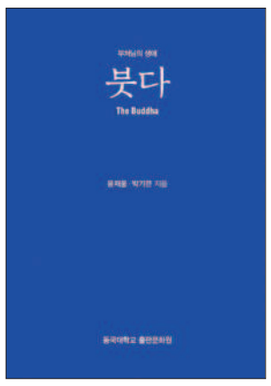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해 11월 29일 원적에 든 해봉당 자승 대종사는 한국불교에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화두를 던졌다. 전법 화두의 근간에는 ‘움직이는 불교’와 ‘사부대중 불교’가 있다. 움직이는 불교는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전법 현장으로 나아가라’는 제언이고, 사부대중 불교는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가 한국불교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당부다. 이 같은 제언과 당부는 상월결사와 동국대 건학위원회 등에 그대로 투영돼 대학생 전법 불사가 이뤄지고 있다.

자승 스님은 ‘움직이는 불교’와 ‘사부대중 불교’라는 기치를 재현하기 위해 재미있고 친숙한 ‘부처님 일대기’ 출간도 고민했다.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하려면 부처님의 삶에 대한 이해가 동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2020년 2월 7일 상월선원 천막결사를 회향한 직후 자승 스님이 ‘인도순례’를 발원하며 ‘부처님 일대기’ 발간불사도 시작됐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24년 5월 29일 자승 스님이 발원했던 현대적 언어로 쓰여진 ‘부처님 일대기’ 〈붓다(The Buddha)〉가 세상에 나왔다. 집필은 윤재웅 동국대 총장과 박기련 동국대 건학위원회 사무총장이 함께 참여했다.

〈붓다〉는 1978년 산하기관인 동국역경원에서 간행한 〈부처님의 생애〉를 저본으로 주요 사건들을 참고하되, 구성과 내용은 완전히 새롭게 서술했다. 이 과정에서 〈니까야〉 〈아함경〉 〈본생경〉 〈대열반경〉 등 여러 경전과 조계종 교육원의 〈부처님의 생애〉(2010) 〈샤카무니 붓다〉(2010) 〈인간 붓다〉(2010)를 비롯한 기존 발간된 단행본도 두루 참고해 오류를 최소화했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 강조했던
‘사부대중 불교’ 근간해 저술돼
비구니 · 재가제자 이야기 확대
‘입멸’ 앞에 배치해 몰입도 높여
5월30일 정각원, 봉은사서 봉정


새로 발간한 〈붓다〉를 손에 든 윤재웅 총장(사진 왼쪽)과 박기련 건학위 사무총장.

윤 총장과 박 사무총장은 2021년부터 집필에 들어갔고, 가제본이 나오기까지 꼬박 2년여가 걸렸다. 가제본을 받아본 자승 스님은 2023년 상월결사 인도순례 43일 기간 동안 일과 이후 매일 읽고 감수하며 〈붓다〉 발간에 많은 정성을 쏟았다. 이처럼 〈붓다〉는 자승 스님의 원력과 상월결사 정신이 투영된 결과물이다.

〈붓다〉는 철저히 경전에 입각했지만, 보다 과감한 상상과 스토리텔링, 문학적 표현 기법을 더해 순간순간의 모습을 마치 눈앞에 그려지듯 묘사했다. 책을 읽는 작금의 독자들이 붓다의 일생을 보다 생생하게 들여다보고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 주안점을 뒀다.


5월 30일 서울 봉은사에서 봉행된 ‘자승 대종사 생신 다례재’에서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붓다’를 자승 스님 영전에 봉정하고 있다.

붓다의 80년 삶을 관통하는 탄생과 성도, 전법, 입멸이라는 주요한 사건들을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재배치한 점도 새로운 시도다. 붓다의 생애를 다룬 모든 경전들은 입멸을 마지막 사건으로 다루지만 〈붓다〉는 마지막 사건인 입멸, 즉 열반의 순간을 가장 앞쪽에 배치했다.

윤 총장은 “부처님께서는 성도 이후 45년 동안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전법을 행하셨고, 전법의 최종점은 완전한 열반에 드시는 것이었다”면서 “자승 스님이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외치신 것도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인 전법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천막결사 이후 자승 스님의 첫 일성은 인도순례였다. 스님은 그 제안을 하시며 우리나라 부처님 생애 책을 전부 읽으셨고, 좀 더 쉽게 대중이 읽을 수 있는 부처님 일대기 발간을 역설했다”며 “스님의 열반 이후 잠시 중단됐지만, 이사장 돈관 스님의 격려와 관심으로 자승 스님 70세 생신에 맞춰 책을 발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책은 크게 제1부 ‘열반의 길’, 제2부 ‘깨달음의 길’, 제3부 ‘전법의 길’로 구성됐다. 각 챕터는 여러 개의 장으로 다시 분류해 정리했다. 특히 제3부 ‘전법의 길’에서는, 전법을 위해 걷고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을 위해 가르침을 전했던 붓다의 발자취가 생생하게 그려진다.

붓다와 제자들, 붓다와 주변인들과의 대화도 생생한 현대적 언어로 표현됐다. 특히, 비구니 제자와 재가 제자들의 이야기 대폭 확대된 것도 자승 스님이 강조한 ‘사부대중 불교’가 반영된 것이다.

이야기의 흐름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시들도 읽는 재미와 감동을 더한다. 윤 총장은 책에 게재된 시들 중 108개의 시를 추려내어 시집 〈열반은 큰 즐거움이어라〉로 엮었다. 이는 〈붓다〉의 요약판이자, 붓다의 80년 생애를 보다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방안으로 기획됐다.

한편, 〈붓다〉는 5월 30일 서울 봉은사에서 봉행된 ‘자승 대종사 생신 다례재’에서 자승 스님의 영전에 봉정했다. 앞서 동국대는 교내 정각원에서 〈붓다〉를 부처님 전에 봉정하고, 자승 스님 영전에 헌향·헌화했다.

무형유산위원에 원명·혜일·정운 스님

국가유산청, 5월 22일 위촉
제5대 무형유산위원회 구성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도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 제5대 무형유산위원회 위원에 원명 스님(서울 봉은사 주지)과 혜일 스님(합천 해인사 주지), 정운 스님(보령 세원사 주지)이 위촉됐다.

국가유산청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할 제5대 무형유산위원회를 구성해 5월 22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무형유산위원회에는 3명의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원명 스님은 전통예능분과에, 혜일 스님은 전통지식분과에, 정운 스님은 전통기술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도 전통지식분과 위원으로 위촉됐다.



5월 22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무형무산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한 위원들. 사진=국가유산청


원명 스님 혜일 스님 정운 스님

이번 무형유산위원회는 무형유산위원 27명과 전문위원 41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6년 5월 16일까지다. 위원장에는 천진기 전 국립민속박물관장이 선출됐다.

국가유산청은 “분야 간 연계와 협력 필요성이 높은 무형유산 정책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가와 전승자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등 무형유산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형유산위원회는 무형유산 정책,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및 해제,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해제 등 무형유산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검토하고 조사·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국가유산청 자문기구다. 임은호 기자

스님이 만든 ‘교리 영상’ 함께 봐요

조계종 포교원, ‘부처님 법 전합시다’ 캠페인 일환

‘반야와 배우는 교리’ 제작 보급
크리에이터 혜장 스님 직접 참여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선업 스님)이 ‘부처님 법 전합시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불교교리를 알기 쉽게 대중에 전달하기 위해 영상 ‘반야와 함께 배우는 불교교리’를 제작해 보급에 나섰다.

포교원이 제작한 반야의 야단법석 이모티콘을 활용한 이번 콘텐츠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 △인과법 △연기법 △중도 △명상하기 등 총 5개의 영상으로 구성돼 있다. 본영상은 포교원 불교 크리에이터 3기 혜장 스님이 직접 참여해 만든 콘텐츠로, 포교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buddha10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야와 함께 배우는 불교교리’ 장면. 조계종 포교원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불자 및 일반인들이 보다 친근하게 불교를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다양한 백중 용품 할인행사중!! 상시대기
최고급 제품&착한가격&친절상담&빠른배송
전품목 10%~30%/승복, 가방 50%/가구, 병풍 30% 할인
최고급 합장주 할인
합장주 ····· 100개 55,000원
어린이합장주 ····· 100개 50,000원
백중 제품 할인
인등 신제품 출시, 주문제작 가능
충전 전기초 출시 (1회 충전시 30일 지속, 5종류)
반야심경/산신/용왕/연꽃 일부품목은 제외됩니다 85,000원
● 보시 용품 염줄
● 각종 연등 탄생불 관욕단
● 각종 미니 만월등 100개 ····· 140,000원
● 만월등 사업등
할인가
● 연잎 리본 100개 23,000원
● 방수전선 전구엘리드국산
● 등 승강기 설치
백중 용품 미리 준비하세요
할인 식물물초
7일초 ····· 60,000원
5일초 ····· 65,000원
3일초 ····· 65,000원
1일초 90개 ····· 75,000원
15일초 12개 ····· 95,000원
할인 국산 식물성 팜초 (최상급)
7일초 20개 ····· 95,000원
5일초 24개 ····· 100,000원
3일초 40개 ····· 100,000원
삼베,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할인 수입양초
돈타래 40개 65,000원
원백 20개 65,000원
밀대 50개 55,000원
할인 국산양초
밀대 50개 60,000원
돈타래 40개 70,000원
원백 20개 70,000원
대통부 6,000원
삼베옷 6,000원
속옷 남자 여자 각각 100장 이상 가격 15만원
베네저고리 1,500원 50장 이상 가격 75,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천왕배 오색길배-최상급 개당 4,500원 / 30개 135,000원
파라핀 오일 1BOX(12개) 65,000원
부정풀이 1BOX(100개) 100,000원
불상 7치 500개 12.000원 / 1000개 11.000원
매장에 오신 손님 대폭 할인됩니다.
재고 소진시까지
※칠보 개금 할인 (기존 불상 가능, 3자 기준 좌포함 220만원)
※불상 조각 조성 (소불 500불 이상 1불 당 12,000원, 1000불 이상 11,000원)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054-762-8200 /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근현대 비구니 선지식 삶·수행 조명한다

대행선연구원 6월 22일 제8회 학술대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수인·수옥·장일 스님 조명
대행 선사 사회참여 발표
6회 묘공학술상 시상식도


수인 스님


수옥 스님


장일 스님


대행 선사 (발표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근현대 비구니 선지식들의 삶과 수행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마음선원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오는 6월 22일 오전 9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8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근현대 비구니의 삶과 수행-자료 발굴과 기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비구니 선지식인 수인·수옥·장일 스님과 '한마음 주인공 관법'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대행 선사의 삶과 수행을 조명한다.

먼저, 보현정사 주지 경조 스님은 '수인 스님의 수행, 사상 그리고 실천'을 주제로 발표한다. 성월당 수인 스님(1899~1997)은 운문사 초대 주지를 맡아 현재의 운문사를 만드는데 초석을 다진 선지식으로, 세납 99세로 원적에 들기까지 상경불 보살행과 사찰 정화로 화합과 자비 상생이라는 불교 가치를 실천해왔다.

삼선불학승가대학원 교수 원과 스님은 비구니계 3대 강백 중 한 명으로 추앙받는 화산당 수옥 스님(1902~1966)을 조명한다. 원과 스님은 '비구니 수옥과 경봉 선사의 한시 교유'를 통해 수옥 스님의 친필 노트인 〈도가한화〉를 근거로 1957년 4월부터 1965년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이뤄진 경봉 선사와의 한시 교유를 처음으로 소개한다.

동국대 선학과 박사인 여현 스님은 '도림당 장일의 수행과 호법활동'을 통해 불교정화운동에 앞장섰던 선지식 도림당 장일 스님(1916~1997)의 면면을 살핀다. 여현 스님은 논문에서 장일 스님이 불설(佛說)을 중심으로 간화선을 참구했으며, 불교정화운동을 통해 한국불교 수행 전통을 바로 세우는데 일조했음을 밝힐 예정이다.

대행 선사 관련 논문들도 잇달아 발표된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대행 스님의 진실과 방편의 중도'를 통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가 '대행선'이라는 선풍을 대중들에게 어떻게 펼쳐냈는지를 진실과 방편의 시각으로 살핀다. 박진영 아메리칸대 교수는 '한국불교의 사회 참여 새로운 모습-대행 스님의 경우'를 통해 대행 선사가 '불교의 사회 참여'라는 분야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조명할 예정이다.

이날 학술대회 논평자로는 서광 스님(동국대)과 정완 스님(동국대)을 비롯해 하춘생(동국대)·김종진(동국대)·윤종갑(동아대) 교수가 참여한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2022년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세계 비구니 승가의 현황을 살폈고, 지난해에는 한국 근현대 비구니 선지식들을 조명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한국 비구니 승단이 여러 부침을 겪으면서 발전할 수 있던 것은 모두 걸출한 비구니 선지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근현대 비구니 선지식들의 면면을 만날 수 있는 이번 학술대회에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제6회 묘공학술상 시상식과 제5회 묘공학술장학증서 수여식도 진행된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HanmaumTemple)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템플스테이 매거진 '전면 개편'

'산사의 밥상' '암자가는 길' 등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 인터뷰도
읽을거리 풍성…화보형 편집 시도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이 발행하는 〈템플스테이〉 매거진이 올해 창간 15주년을 맞아 새롭게 거듭난다.

2009년 창간한 〈템플스테이〉 매거진은 국내외 문화 관련 기관 및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을 중심으로 배포되는 공익형 문화잡지다. 문화사업단은 올해부터 〈템플스테이〉 매거진의 위상을 재정립, 대체불가한 '전통문화 전문잡지'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2024 〈템플스테이〉 매거진은 '전통문화를 다룹니다' '불교유산의 가치를 알립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나를 찾아가는 시간 △활력을 채우는 시간 △전통을 만나는 시간 △미래를 그리는 시간 4가지 키워드로 내용을 구성한다.

특히 통권 65호로 발행한 2024년 봄호에는 처음으로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 인터뷰가 실려 눈길을 끈다.

사찰 일선에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실무자의 글이 게재된 점도 이례적이다. '일상다반사'는 신춘문예 등단작가인 템플스테이 실무자들이 사찰의 일상을 에세이로 전하는 기획으로, 김상규 작가의 일러스트가 더해져 따뜻한 감성을 담았다.

이 밖에도 '템플로드_암자 가는길(성재헌 작가)' '스님이 사랑한 차(편집부)' '생명의 숲, 사찰림(홍석환 교수)' '산사의 밥상(정태겸 작가)' '일상다반사(임택수 작가)' '어서와, 템플은 처음이지(박현숙 작가)' 등 총 11개의 기획이 대중에 공개된다.

모든 기획은 불교문화 콘텐츠 전문작가들이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과 함께 게재된다. 표지와 내지에 접지 형태의 사진을 배치해 접지를 펼치면 고품질의 사진을 풀프레임 화보로 만나볼 수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만당 스님은 "지난 15년간 〈템플스테이〉 매거진은 한국의 전통문화의 다양한 매력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며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전통문화컨텐츠의 국내외 인지도를 높여 왔다"며 "창간 15주년을 맞아 보다 더 깊이 있는 기획으로 존재감을 더하고 대중성을 높여 명실상부 '전통문화 전문잡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로터스월드, 라오스 초등학교에 도서관 건립

법안 스님 등 3만 달러 기부로
5월 26일, 비엥싸이 학교서 착공


5월 26일 비엥싸이 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착공식에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NGO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가 라오스 초등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며 도서관 건립에 나섰다.

로터스월드는 5월 26일 라오스 비엔티안주 방비엥에 위치한 비엥싸이(Viengxai primary school) 초등학교에서 도서관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다. 도서관은 약 72㎡ 규모로, 8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도서관 건립은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 스님), 금선사, 창원한마음병원, (재)한가람문화재단이 로터스월드에 약 3만 달러(한화 4200만원)를 기부하면서 이뤄졌다. 지원금은 창원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과 하충식 창원 한마음병원 이사장, 금선사 화엄행자, 직원 등이 매일 1000원씩 적립한 기금과 부처님오신날 작은 소원등을 통해 모연한 기금으로 마련됐다.

이번 도서관 건립으로 비엥싸이 초등학교 재학생 150여 명은 체계적인 도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곳은 도서 시설이 없어 재학생들의 감수성 개발을 위한 도서 교육 과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추후 도서관은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재학생들의 시청각 교육과 비엥싸이 마을 주민들의 자치회의 공간 등으로도 복합 활용될 예정이다.

착공식에서 법안 스님은 "완공된 도서관 시설에서 비엥싸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폰빌라이 푼타봉 비엥싸이 초등학교 교장은 "도서관 건립을 지원해주신 법안 스님과 한국의 후원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폰빌라이 푼타봉 교장은 감사의 뜻을 담아 법안 스님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한편, 성주사는 한가람문화재단과 함께 2012년부터 동남아 국가 지원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스리랑카 자립센터 건립을 지원한바 있다.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은 로터스월드를 통해서도 라오스 각 지역 아동도서관 건립과 씨엥쿠앙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불발탄 사고 예방교육 지원 등 불교국가를 위한 자비행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김내영 기자

대학생 불자 130명, 참다운 불자 서원

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대불련
5월 25일, 제9회 합동 수계법회



서울지역 대학생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계법회를 갖고 참다운 불자로 거듭나기를 서원했다.

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단장 일감 스님)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주현우)는 5월 25일 서울 남산 충정사에서 '제9회 청년대학생 불자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합동 수계법회는 대학교 소규모 법회에서 수계식을 열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수계법회는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이 전계사를 맡아 청성, 청사, 개도, 참회, 연비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건국대·경희대·고려대·국민대·덕성여대·동국대·동덕여대·동아대(부산)·서강대 등 26개 대학에서 130여 명과 지도법사 스님 10여 명이 함께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수계법문을 통해 "5가지 행동을 금하는 '금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권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생명을 살리는 불살생계와 나누고 베푸는 불투도계를 잘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현우 대불련 회장은 수계법회를 계기로 진정한 불자의 자세를 갖추겠다고 다짐하며 "계를 지킨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나의 몸과 마음에 오계를 새겼던 그날을 떠올리며 스스로 돌아보고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내영 기자

식약처에서 인정한 의료기기법 제2조
특허등록
의료기기 근적외선 침대
피부 피하층까지 침투하여 온열효과가 뛰어나며 산화질소를 생성해
현재 세계 각국 의료계의 질병치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의 좋은 기운을 함께 느껴보세요!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숯가마의 열기가 고스란이 녹아든
숯(탄소) 침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원활, 각종중금속배출
- 통증완화(신경통,관절통,견통예방)
- 숙면(불면증,피로회복,좌골신경통)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저혈압),
- 암예방(온열에의한 악성종양의 사멸)
- 새집증후군(포름알데히드)

★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

온열요법 건강매트·방석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매트 99만원
(SS사이즈 : 1100×2000)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 20만원

그린에너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하이킹 #백패킹 #캠핑…

전에 없던 블루오션 사찰에서 피어났네

서산 보원사 캠플스테이를 즐기다

서산=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초면인 사람들과 유쾌한 만남

사전 안내문을 읽다 눈에 들어온 짧은 문구, 〈1일차 개심사-백암사지-보원사 11.2㎞(난이도 상 4시간)〉.

지난 5월 25~26일 서산 보원사에서 진행된 '캠플스테이(캠핑+템플스테이)' 참가 신청을 마친 뒤 일정표를 확인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저질 체력으로 가능할까. 다른 날 갈 걸 그랬나?' 젊은 날에 어깨를 다쳐 운동과 담을 쌓고 지낸 지 10여 년. 산행이라곤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 전 아무 준비 없이 북한산에 올랐다가 다음날 온몸을 두들겨 맞은 듯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새삼 떠올랐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알람시간보다 일찍 눈을 뜬 캠플스테이 첫날, 새벽부터 차를 달려 출발점인 개심사 주차장에 도착했다. 삼삼오오 정해진 장소에 모여드는 사람들. 전문가 포스를 내뿜는 하이커(hiker)와 백패킹이 처음인 사람까지 성별, 나이를 떠나 캠플스테이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참가한 이들이다. 올해부터는 백패킹 배낭과 텐트 등이 없는 사람을 위한 장비 대여도 가능해져 15명 정원에 세 배가 넘는 인원이 신청했다고 한다.

'ISTJ(MBTI 성격유형 검사 결과)'임에도 거듭된 사회화로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의 준비는 필요한 법. 처음 보는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할지 고민하던 차에 안내자 '희맨님(본명이 '희남'이라 男을 man으로 표현)'이 조금은 신선한 '아이스 브레이킹(ice breaking)'을 제안했다. 앞사람과 이름이나 나이가 아닌 취미와 좋아하는 음식, 버킷리스트를 공유하는 것. 몇 차례 돌아가며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인상 깊었던 사람의 취미 등을 얘기하면 당사자가 손을 들어 자신을 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의 취미를 말하는 식이다. "조기 은퇴하고 캠핑카를 사서 여행 다니는 게 꿈"이라던 김지혜님의 소개가 인상적이다. "젊어 보이는데 벌써 그런 꿈을 꾸느냐"고 꼰대 같은 핀잔을 주려 했지만 알고 보니 9살이나 많은 누나였다. 에너지 '뿜뿜'하는 취미 부자들 사이에서 '집돌이'에 고양이와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한다고 소개하니 스스로 소극적인 사람이 된 기분도 든다.

자기소개하고 간단히 몸을 풀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하이킹. 적게는 8㎏, 많게는 15㎏에 달하는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는데, 개심사를 지나자마자 시작되는 가파른 경사가 예사롭지 않다. 취재와 촬영을 핑계로 배낭 대신 카메라 가방을 멘 게 다행일 정도. 사전에 "(하이킹) 난이도가 상(上)이라고 해도 평탄하게 걷는 구간이 대부분"이라던 보원사 김선임 종무실장이 조금은 원망스러웠다. 어쩐지 종무실장은 산행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간편한 신발을 신고 있었다. (보원사로 넘어올 여러분을 맞이하겠다며 밝은 미소로 차를 타고 떠나시더라니….)

다양한 체험으로 채우는 하루

하이킹은 가야산 주변 4개 시·군이 함께 조성한 내포문화숲길을 무대로 펼쳐진다. 그중에서도 불교를 주제로 한 '원효깨달음길'을 걷게 되는데, 초심자 기준 원효 스님께 이런 험난한 산을 오르내려서 깨달음을 얻으신 건지 묻고 싶어지는 난이도다.

하이킹 시작 30분 만에 행렬의 선두와 후미가 제법 큰 간격으로 나눠졌다. 안 쓰던 근육을 쓰는 초심자들이 전문가들처럼 걸을 리 만무하다. 그런데 나름대로 후미그룹만의 유대감과 인간미가 매력적이다. 자주 쉴 수밖에 없으니 "덕분에 쉬어간다"는 말이 단

가파른 경사에 무거운 배낭
4시간 산행으로 힘은 들어도
짙은 녹음이 활력소가 된다

寺址 잔디밭 캠핑 유일무이
"스트레스 내려놓고 가세요"

골멘트. 후미를 챙기던 또 다른 안내자 '산님(산에서 달리는 트레일 러너였다)' 덕에 수다로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

점심은 오후 2시가 다 돼서야 먹을 수 있었다. 자기소개가 길어져 평소보다 늦게 출발한 탓이다. 바위에 걸터앉아 편의점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는데, 옆에서 정성스럽게 김밥을 싸온 중학생 영우와 아빠 정호님의 도시락에 눈길이 갔다. 누군가 영우에게 "엄마가 직접 싸주신 거니?"라고 묻자 옆에 있던 아빠 정호님의 한마디에 웃음바다가 펼쳐졌다. "엄마가 직접 '사주신' 거예요!"

경사는 가파르지만 초여름의 짙은 녹음을 만끽하며 오후 4시쯤 보원사에 도착했다. 산에서만 보낸 시간이 네댓 시간인지라 몸은 삐걱거리는데 왠지 모를 성취감이 솟는다. '이 맛에 산을 오르는구나.'

시원한 연꽃차 한 잔으로 목을 축이고 곧바로 텐트 피칭에 나섰다. 캠프사이트는 바로 법당 뒤편, 보원사지 오층석탑이 한눈에 들어오는 잔디밭이다. 보원사에서 빌린 텐트를 '뚝딱' 하고 설치하자 몸 하나 누일 내 집 마련도 끝. 잠시 누워 한숨 돌리니 사찰음식 만들기 체험이 이어졌다.

하이킹을 하며 생긴 후미그룹만의 끈끈한 유대였을까. 4개 팀으로 나눈 사찰음식 만들기도 후미그룹과 함께 했다. 올리브오일에 두부를 부쳐 끓는 물에 데친 취나물로 감싸는 '취나물두부쌈'이 주 메뉴. 아스파라거스와 영양부추, 노란 국화꽃은 가니쉬(garnish)다. 칼질, 데치기, 부치기, 장식을 분담해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팀원 한 명이 심오한 감상평을 내놨다. "아즈텍 무덤 같지 않아요?" 왜 하필 무덤이었을까…. 이렇게 만든 두부쌈에 연잎밥, 각종 나물 반찬으로 저녁공양을 하니 영화 '파묘'가 떠오르는 건 왜일까.

해가 진 저녁시간엔 보원사 연등공방에서 서원탑 만들기가 진행됐다. 찰흙이 아닌 도자기흙으로 나만의 탑을 빚고 서원을 새기는 프로그램이다.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걸맞게 보원사지 오층석탑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면 된다. 흙을 잘라내고 모양을 잡고 물을 묻혀 다듬는데, 어릴 적 못다 이룬 미술시간의 꿈을 펼쳐내기라도 하듯 왠지 모르게 '진심모드'가 됐다. 반듯하게 빚어낸 나의 탑을 본 강사님이 "전에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 입꼬리와 어깨가 장대양봉처럼 솟아올랐다.

취침 전 짧은 다과 시간을 이용해 참가자들의 소감을 들어봤다. 지난해 혼자 참가했다가 올해 여자친구와 함께 돌아온 서광선님은 "지난해에는 런칭한지 얼마 안 된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라며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종교 거부감 없이 절에 스며들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아빠의 제안으로 참가한 영우는 "또 오고 싶다"는 말을 줄기차게 내뱉었다. "프로그램이 성공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아빠 정호님은 "아들과 오토캠핑을 자주 다니다 백패킹에 관심이 생겨 터닝 포인트로 삼아 참가했다"며 "아들이 이렇게 좋아할지는 몰랐다. 너무 만족스럽다"고 했다.

학창시절 집안에서 "역마살 낀 게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밖에 나가 놀기를 좋아했던 나. 캠플스테이는 매일 사람 만나 취재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서 이제는 집에 있는 시간이 행복한 지금의 나를 돌아보게 한다. '맞아, 나 이런 거 좋아했지.' 외향적이고 쾌활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도 모르게 생기를 얻는다. 이날 밤, 가득 낀 구름 때문에 은하수를 이불로 덮고 잘 순 없었지만 다음날 이른 아침 눈앞에 펼쳐진 오층석탑과 보원사지 풍경이 아쉬움을 달래준다.

아침공양 이후엔 보원사 운영위원장 정경 스님과의 차담으로 하루가 시작된다. 정경 스님의 키를 묻는 질문에 40대에 2㎝가 더 자라 185㎝가 됐다고 답한 스님. "어려서 절집에 들어와 콩나물과 미역줄거리 먹고 키가 커져 큰스님이 됐다"는 우스갯소리에 스님과 일반인 사이의 벽이 허물어진다. 스님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가르침이 담긴 〈화살경〉 내용을 소개한 뒤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든 쌓일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를 보원사에 다 내려두고 가시라"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보원사에서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오층석탑 앞 필라테스. 앞서 참가한 사람들이 호평을 쏟아낸 코너다. 그도 그럴 것이 문화유산과 드넓은 잔디밭을 전세라도 낸 듯 활용하니 한강변 필라테스와는 격이 다르다. 레크리에이션 전문이 아닌지 의심될 만큼 위트 넘치는 강사님의 신호에 따라 팔다리를 움직이고 몸통을 비틀다보니 군대 유격체조 8번 자세(온몸 비틀기)가 불현듯 떠오른다. 마지막엔 맨발로 잔디밭을 느끼면서 양말과 신발에 길들여진 발바닥에 새로운 느낌을 선물한다.

남은 건 보원사에서 다시 개심사로 넘어가는 일. 둘째 날은 난이도가 낮은 코스로 돌아간다. 하이킹 도중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은 덤. 원점회귀를 앞두고 마지막 하이킹을 하지 않는 나는 다른 참가자들과 작별인사를 나눴다. 기분 좋은 에너지를 가득 안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해야 하는 백패킹.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으로 배낭에 물건을 넣다보면 정작 산을 오르다 힘들어 포기하게 된다. 그렇게 하나둘 쓸모없는 물건을 버린다. 삼독(三毒)의 첫째인 탐심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길. 도량에서 보낸 하루가 모두의 활력소가 되길.


첫날 하이킹 출발에 앞서 개심사 일주문 아래에 모인 캠플스테이 참가자들. 이때만 해도 코스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원효깨달음의길'을 오르는 참가자들. 오르락내리락 하다보면 '이래서 원효 스님이 깨달았나' 싶어진다.


하이킹 쉬는 시간을 이용해 추억을 남긴다. 분명 초면인데 이상하리만큼 어색함이 없었다.


'취나물두부쌈'에 도전한 우리 팀. 맨손으로 끓는 물에 취나물 데치는 건 나의 몫이었다.


둘째 날 이른 아침, 텐트 문을 열면 눈앞에 안개 낀 보원사지가 펼쳐진다.


맨발로 걸어보는 보원사지 잔디밭. 맨몸 필라테스 인기가 제법이다.

선지식 백중법문, 여름을 가득 채운다

부산 범어사 2024 백중기도
8월까지 석 달간 초청법회
5월 25일 입재식으로 시작
입재법문 자광 대종사 맡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법좌에 올라 입재법문을 하는 자광 대종사. 사부대중이 대종사의 법문을 경청하고 있다.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백중을 맞아 선지식의 법문을 청해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범어사는 매년 백중 지장기도를 봉행하며 신도들에게 선사의 가르침을 전해 백중의 가치와 지장기도, 천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5월 25일 경내 설법전에서 '2024 백중 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 입재식에는 1000여 명의 신도들이 동참했으며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가 법사로 입재를 증명했다. 입재식은 법문 및 인사말에 이어 영가 천도 기도와 함께 시식이 이어졌다. 신도들은 법회 이후 조상과 유주무주 고혼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정진발원했다.

특히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인사말에서 앞서 최근 입적한 일원 선사를 추모했으며 아울러 백중 기도 기간 정진하고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정오 스님은 "이틀 전 일원 스님의 영결식이 봉행됐다. 일원 스님은 범어사에서 70여 년간 주석하고 수행정진하며 모범적인 선사셨다. 정말 오고감이 없는 고요함으로 신도들을 만나고 주석하셔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하지만 누구보다 범어사를 사랑하고 훌륭하신 스님이셨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가슴 깊이 새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백중기도를 원만히 입재하고 자광 스님과 신도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도량을 정비했다. 준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며 회향까지 90일간 큰스님들의 법문을 잘 들으시고 정진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는 입재법문에서 유심론을 강조하며 "신을 믿는 종교와는 달리 불교는 마음을 가르치는 유심론의 가르침이다. 일체유심조라는 이 가르침은 마음을 설명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인드라망의 연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존재를 설명해준다"며 "삼독심 탐진치를 버리고 지혜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범어사 백중 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는 입재법회를 시작으로 △초재 6월 1일(범어사 율주 수불 스님) △2재 6월 8일(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 △3재 6월 15일(조계종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 △4재 6월 22일(계명암 감원 선재 스님) △5재 6월 29일(팔공총림 동화사 수좌 지환 스님) △6재 7월 6일(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 △7재 7월 13일(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8재 7월 20일(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9재 7월 27일(단양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 △10재 8월 3일(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 △11재 8월 10일(BTN 광우 스님의 소나무 광우 스님) △막재 8월 17일(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이 법문한다. 회향법회는 8월 21일 금정총림 방장 정여 스님이 법문하며 마무리된다.

한편, 범어사는 5월 15일 '2024 행복바라미 부산지역문화제'를 개최했다. 범어사는 이번 문화제를 통해 자비나눔 실천에 동참하고 행복바라미의 의미를 시민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 문화제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 및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후원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장 원창 스님, 이윤희 범어사 신도회장, 백종헌 국회의원, 김재윤 금정구청장을 비롯한 범어사 스님들과 신행단체장이 동참했다.

(사)동련, 제40회 부산연꽃문화제 시상

양정청소년수련관서 시상식
김민경 · 손예빈 어린이 대상



사단법인 동련 부산지부(회장 효산 스님)가 5월 23일 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 '제40회 부산연꽃문화제'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꽃' '나눔' '약속'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꽃문화제에는 그리기 부문 464명, 글짓기 부문 29명으로 총 493명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76명이 수상했으며, 대상(부산시장상)은 그리기 부문 김민경(동상초2), 글짓기 부문 손예빈(낙동초5)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동련은 상장과 함께 각 수상자에게 드론, 자전거,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을 부상으로 전달했다.

효산 스님은 "올해는 특히나 훌륭한 작품이 많았고 완성도 높은 작품에 칭찬을 더하고 싶다"며 "더 많은 학생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글과 그림으로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만 학생들, 동림사서 불교문화 체험

전통염색 · 참선 명상 등 배워



부산 기장 동림사(주지 성타 스님)가 5월 23일 경내 일원에서 불교 및 한국전통문화 체험 교실을 운영했다.〈사진〉 특히 이날은 대만에서 찾아온 숭광고급중학교 학생과 부산성모여고 학생들간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총 30여 명의 학생들이 동참했다. 동림사는 전통염색과 참선 명상을 체험의 시간을 제공하고, 활쏘기와 떡메치기 등을 다양한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했다.

동림사 주지 성타 스님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불교를 통해 마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종교를 넘어서서 행복한 추억으로 마음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림사는 문화포교에 앞장서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신뇨엔, 동아대에 인재양성 기금 '쾌척'

동아대 공과대학 명예전당서
학생복지 발전기금 1000만원
이토 신조 원주 메시지 전달도



재단법인 신뇨엔 상임이사 정경 국원과 부산지부장 영준 국원 등이 동아대 공과대학 명예의 전당에서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재단법인 신뇨엔(상임이사 정경 국원)이 5월 20일 동아대 공과대학 명예의 전당에서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뇨엔은 인재양성과 학생복지를 위한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으며, 전달식에는 상임이사 정경 국원, 신뇨엔 부산지부장 영준 국원을 비롯해 장상목 동아대 공과대학장, 최영익 공과대학 부학장 등 관계자가 동참했다.

전달식은 내빈 소개에 이어 신뇨엔 원주 이토 신조의 메시지 소개,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원주 이토 신조는 동아대 명예의 전당에 "다른 다양한 개성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협력하는 곳에 지혜와 자비, 진여(眞如) 구제의 힘이 나타나 융화세계가 실현되리라 믿는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토 신조의 메시지는 명예의 전당 기념패에 새겨져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경 국원은 "신뇨엔 개조님과 원주님의 가르침이 담긴 기념패 앞에서 대학의 발전기금을 전달하게 되어 뜻 깊고 영광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서로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전달한 발전기금이 선한 일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타의 삶을 강조한 개조님의 말씀처럼 이웃과 사회에 도움이 되고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에 활용되기를 바란다.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학교관계자에게 응원의 찬사를 보낸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장상목 학장은 "진여원 정경 국원과는 교수불자연합회 학술대회를 계기로 인연을 맺게 됐고, 매년 아낌없는 후원과 지원을 받아왔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전기금과 더불어 명예의 전당에 신뇨엔 원주 이토 신조님의 메시지로 동아대학교 공과대학의 발전을 기원해 주셨다. 의미 있고 뜻 깊다고 생각되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발달장애인과 함께한 시화전

부산불교문인협, 홍법사서 개최



사단법인 부산불교문인협회(이사장 차정연)는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부산 홍법사에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시화전을 진행했다.〈사진〉

개막식에는 실상문학상 이사장 심산 스님을 비롯해 차정연 부산불교문인협회 이사장, 이석래 사단법인 부산문인협회 이사장, 김창식 영호남문인협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개막식은 축사 및 인사말과 배기환 회원의 여는 시, 시인 및 문인들의 시 낭송이 이어졌다. 시화전 작품은 50여 점이 전시됐으며, 봉축 기간 시민들이 관람하도록 안내됐다.

차정연 이사장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올리는 시 낭송은 문인들의 불심이 담긴 음성공양"이라며 "시 한편으로 마음의 여유를 찾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글에 담아 널리 알리 수 있어 한없이 기쁜 마음"이라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NEW "식물성 연꽃향 양초"

오랜 시간 완벽한 배합 비율을 연구, 개발하여
2024년 향긋한 연꽃향 양초를 출시하게 되었으며, 다년간의 개발 및 연구를 통해
완성된 "식물성 연꽃향 양초"를 스님과 불자 여러분들께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또한 신제품 "식물성 연꽃향 육각초"는 연소시 중앙부만 연소되는 단점을 완전히 보완하여 전부 연소시킵니다.
연꽃향양초 샘플이 필요한신 분은 전화번호, 성함, 주소를 010-5265-5118로 문자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식물성 연꽃향 육각초
특 大(대) 7.5Φ×41㎝ 16개 120,000원
大(대) 8.5Φ×33㎝ 20개 140,000원

식물성 연꽃향 양초
〈원기둥〉 7.4Φ×29㎝ 20개 120,000원
〈돈타레〉 5.6Φ×26㎝ 30개 105,000원
〈밀대〉 4.7Φ×24㎝ 40개 92,000원

신제품 반야심경 디퓨져
한글로 새겨진 반야심경 디퓨져는 오랜 잔향을 남기어 일상생활 속 귀한 기운을 갖게 도와줍니다.
연꽃디퓨져
연꽃디퓨져 연꽃처럼 예쁜 향기로 깨끗하고 맑은 기운을 선사합니다.
침향디퓨져 뇌를 깨우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여 고요한 기운을 전합니다.
침향디퓨져 100㎖ 디퓨져 29,000원 200㎖ 디퓨져 39,000원

신제품 도자기 (초)받침
*기존 촛대 안에 넣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양초의 기울어짐을 방지하고 청소가 간편합니다.
정면 구멍있는 받침 탑뷰 구멍없는 받침

「해광양초는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를 제조 판매합니다.」

NAVER 해광양초 해광산업 상담문의 010-5265-5118 / 031-333-024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416-8 (이일로 112-6)

韓불자, 몽골 사상 첫 연등회 개최 '눈길'

세계불교법왕청 등 5월 23일 몽골 울란바토르서 연등행렬

5월 20~24일 한·몽골 교류 일환
몽골 간단사 참배, 나무심기도
23일 울란바토르서 연희 선봬
목탁 스님 "부처님 세상 이루자"
바트볼트 라마 "韓 관심에 감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의 연등회 연등행렬 문화가 몽골에도 자리잡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불자들의 교류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등으로 구성된 한국불교대표단(총재 목탁 스님)이 5월 23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사상 첫 연등회 연등행렬을 진행했다. 몽골의 2023년 부처님오신날 국경일 지정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연등행렬에는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총재 목탁 스님을 비롯해 자운 스님, 월암 스님, 청명 스님, 정인 스님 등 불교계 대표 스님들과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소속 회원불자, 바트볼트 라마 몽골불교협회 신임회장 등 몽골불교계 스님과 불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등회 연등행렬은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가 몽골정부, 몽골불교협회, 인도불교협회와 함께 5월 20~24일 진행한 희망의 나무심기 프로젝트 및 붓다성발·치아사리 봉안식의 일환으로 봉행됐다. 한국불교대표단은 5월 20일 몽골에 입국해 몽골 간단사 참배와 몽골왕궁 환영식을 연 데 이어 5월 22일 희망의 나무심기 식수식 및 기금전달, 봉안대법회, 몽골불교대학 학위수여식, 5월 23일 연등행렬 및 연등축제를 진행했다.

축제 현장에서는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소속 불자들이 연희무용 등을 선보여 몽골 언론사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총재 목탁 스님(사진 오른쪽 두번째)과 몽골불교협회 신임회장 바트볼트 라마(사진 오른쪽 첫번째) 등 한국과 몽골불자들이 5월 23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 광장에서 사상 첫 연등회 연등행렬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불교법왕청 총재 목탁 스님이 희망의 나무심기 프로젝트 식수를 진행하고 있다. 울란바토르시 5만평 대지에 생명의 나무를 심는 행사다.

몽골에서 열린 첫 연등회에서 한국 대표단을 이끈 목탁 스님은 "인류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신 세계지도자들과 불교도들이 좋은 인연,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 부처님 세상을 이뤄보자"며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각자 의무와 책임을 다하자. 후대의 평가를 무서워할 줄 아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봉축사를 낭독했다. 스님은 이어 "상호 협력과 지원, 교류를 통해 신뢰와 믿음이 함께 할 때 화합과 평등, 포용이 이뤄질 것이며 더 나아가 지구촌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자비 가득한 부처님 세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트볼트 라마는 "평화가 가득한 부처님 세상이 한국과 몽골 불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번 한국불자들의 애정어린 관심으로 한국과 몽골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는 지난 3월 몽골불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희망의 나무심기운동, 불교교류, 몽골대학 유학 주선, 몽골 간호사 교육, 한·몽골 기업 교류 지원 등에 협력키로 했다. 게다가 협약의 일환으로 몽골정부로부터 울란바토르시 날라이흐구5군 '나르트 엥게르' 지역의 5만평 대지를 기증받아 현재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 중이다. 희망의 나무심기 동참 02-733-5665.

선운사불교대 수계법회

고창 선운사불교대학(학장 경우 스님, 선운사 주지)이 신입생과 선운사 신도회 임원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선운사불교대학은 5월 25일 선운사 대적광전에서 삼귀의계와 오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수계식에서 전계사 경우 스님으로부터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한 선운사불교대학 재학생 50여 명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도반들과 함께 성실하게 신행활동에 나서 참불자가 될 것을 서원했다.

경우 스님은 "여러분들은 이제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며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美스타셰프 'K-불교' 매력에 빠지다

에릭 리퍼트 백양사 템플스테이
정관 스님 마련 만찬 참여하기도

미국의 스타셰프 에릭 리퍼트가 전남 장성 백양사를 찾아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체험했다.

뉴욕의 미슐렝 3스타 요리사인 에릭 리퍼트는 5월 18일부터 1박 2일간 조계종 제18교구 본사인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산내 암자인 천진암에서 사찰음식 전문가 정관 스님이 마련한 사찰음식 만찬에 참여했다.

백양사에 도착한 에릭 리퍼트는 이날 조슈아 데이비드 스타인(작가), 나디아 조(음식 칼럼니스트)와 함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과 차담을 가졌다.

에릭 리퍼트는 "식당 손님들에게 채식을 더 많이 권유하게 됐고, 이 음식을 먹고 좋은 행동, 좋은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 음식을 배우는 제자들에게도 좋은 음식을 먹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리해야, 먹고 간 사람들이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일러준다"고 평소 음식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에릭 리퍼트 일행과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공 스님은 "사찰에서는 이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수고와 인연에 감사한다. 이 음식을 먹고 수행을 잘하는 것이 이 모든 은혜를 갚는 방법"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천진암 정관 스님이 직접 마련한 사찰음식 만찬도 이어졌다.

만찬에는 무공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 에릭 리퍼트 일행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한종 장성군수, 고재진 장성군의회 의장과 도의원, 군의원 등이 동참했다.

만당 스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릭 리퍼트의 템플스테이를 체험은 한국사찰음식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좋은 초석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사찰음식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만찬에는 완두콩찜, 마찜, 두릅전, 연근전, 표고버섯조청조림, 감말랭이, 죽순구이, 다양한 나물과 감자죽순밥 등이 준비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계, 5·18 추모음악회

5 · 18민주항쟁 44주년 맞아
5월 24일, 광주 원각사에서



광주 불교인들이 1980년 5월 광주를 추모하는 행사를 열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소운 스님)는 광주전남불교NGO연대(상임 대표 도제 스님)와 함께 5월 24일 광주 원각사에서 '꽃진 자리 피어나는 희망, 오월 음악회'를 개최하고 제44주년을 맞은 5·18민중항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불교행사를 진행했다.〈사진〉

이날 음악회에는 원각사 회주 현고 스님, 소운 스님, 도제 스님, 원효사 주지 해청 스님과 사부대중 200여 명이 지광 김동수 열사를 비롯해 5월 광주에서 활동한 불교인들을 추모했다.

소운 스님은 "당시 전쟁과 같은 폭력, 살상에 맞서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섰고, 탄압, 폭력 왜곡과 거짓에 대해 분연히 나서 독재 폭력 정권 타도의 깃발을 들었다"며 "당시 많은 시민의 노력이 있었지만 특히 김동수 열사는 보살의 신념과 실천 모습을 보여준 이 시대의 선지식으로, 마치 보현보살을 보는 듯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5·18광주민중항쟁을 대표하는 불교계 인사인 지광 김동수 열사 추모문화제도 5월 26일 장성군 서삼면 임곡 마을회관 앞에서 개최됐다. 이곳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남지부장으로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마지막까지 전남장성군 서삼면은 도청을 사수하다 계엄군의 총탄에 산화한 김동수 열사(당시 조선대 전자공학과 3년) 생가가 자리한 곳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함께 걷고 쓰레기 주우며 생명 소중함 되새겨

30 생명 나누다, 자비의 길 걷다 ⑤

생명나눔 걷기 현장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서울 도심 속 숲길을 걸으며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알리고 환경도 아름답게 만드는 행사가 열렸다.

불교계 유일 정부 지정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5월 25일 서울 동국대와 남산 일대에서 '제15회 생명나눔 걷기명상&플로깅' 행사를 개최했다.

생명나눔 걷기대회는 2008년 부처님 자비사상과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 걷기대회는 생명나눔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주변 환경까지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방식으로 진행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이사 명신 스님, 법륜 스님, 혜공 스님, 법일 스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성기홍 BBS불교방송 사장 직무대행, 정현숙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회장, 박종우 홍보위원회장, 김경림 부회장, 성명용 부회장, 가수 진미령 홍보대사, 김남명 조계종 제25교구 신도회장, 전보현자 불암사 신도회장, 정홍권 남양주 광동중 교장, 김일동 광동고 교장, 광동중고 학생 등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환영사를 통해 "웃음의 즐거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남산 숲길을 걸으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희망의 발자국이 될 것"이라면서 "생명나눔의 소중한 인연으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서로 배려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걷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축사를 통해 플로깅 활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플로깅은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행동만이 아닌 자연보호와 우리 건강까지 함께 챙기는 일"이라면서 "생명나눔과 함께 환경보호의 큰 뜻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발원문 낭독에서 "건강한 사회 만들기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음을 모으겠다"

생명나눔, 5월 25일 걷기 명상대회
1000명 동참자 동국대–남산 거닐어
쓰레기 주우며 환경보호 일깨우기도
자살예방 퀴즈 등 체험부스도 '활기'

고 다짐했다. 박종우 홍보위원장의 힘찬 징소리와 함께 동국대 만해광장을 출발해 남산 북측순환로 4km구간을 걸었다. 참가자 100여 명은 남산 숲길을 거닐며 생명의 소중함과 함께 환경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알아갔다.

일찍 찾아 온 더위로 걷는 동안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기도 했지만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박주아(남양주 광동고 1) 학생은 "생명나눔뿐 아니라 환경보호도 실천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동참했다"면서 "걷기뿐 아니라 각종 공연 관람과 체험활동으로 즐거운 주말이 됐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지인의 소개로 걷기대회에 동참한 서원모 씨도 "생명나눔의 가치를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간"이라고 말하며 함박웃음을 보였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에서도 장애인 20명이 동참, 봄을 즐겼으며 대한적십자사 헌혈봉사회 전국협의회에서도 봉사자 20여 명이 헌혈 홍보와 함께 봉사에도 적극 참여하는 모범을 보였다.

걷기대회 회향 후 만해광장에 다시 모인 참가자들은 마하무용단의 전통 북공연, 행복나눔태권도연합회 태권도 시범단의 퍼포먼스 공연을 관람하며 축제를 즐겼다. 공연 말미에는 걷기코스를 완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진행, 자전거와 노트북 등 풍성한 선물을 나누며 나눔의 정을 더했다.

정현숙 생명나눔 후원회장은 폐회사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산 숲길을 함께 걷고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활동을 통해 생명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의미있는 행사로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았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나누고 국민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른 아침부터 만해광장 일대에 마련된 20여 개 부스에서는 페이스페인팅, 압화 체험, 보석 십자수 만들기, 마하무용단과 함께하는 전통북 두드리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대표 해성 스님이 이끄는 압화체험 부스와 포토부스는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생명을 주제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홍보와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동참한 참가자들은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일깨웠던 시간"이라고 입을 모았다.



'제15회 생명나눔 걷기명상&플로깅'에는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음을 모으겠다"고 발원했다.



마하무용단의 전통 북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축제의 흥을 돋궜다.

제1회 생명나눔 자선골프대회 성료

5월 27일, 12팀 60여 명 동참
참가비, 소외 환아 치료비로

소외계층 환아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선물하기 위한 '제1회 생명나눔 자선 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는 5월 27일 가평 베네스트GC에서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대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골퍼들이 라운딩을 하며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고 자비와 나눔을 실천, 불우한 환아들을 위한 치료비 모금을 위해 마련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홍보위원회 박종우 회장, 설재근 대외협력실장, 가평 축령사 주지 설봉 스님, 국군 예비역불자연합회, 김병관 전 연합사부사령관, 박대섭 회장, 문선배 동국대 총동창회장 및 임원진, 광동중고 총동창회 등 총 12개팀 60여 명이 동참해 아름다운 나눔의 대결을 펼쳤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러진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자선 골프대회의 취지에 공감하며 기존 비용에 기부금을 사전 입금한 후 대회에 참가했다. 자선행사라는 취지에 맞게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대회가 진행됐다.

이후 시상식에서는 남자부·여자부 우승, 메달리스트상, 롱기스트상, 니어리스트상, 다버디상, 다파상, 다보기상, 행운상, 우정상이 주어졌다.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원사업 중 하나로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자선골프대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시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생명나눔 30주년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의료 취약국에
자비의 의료물품을 보냅시다"

2024년 30돌을 함께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이 의료 취약국에 의료물품을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의 가치를 세계에 전합니다. 공동 캠페인에서 모연된 후원금은 의료물품 배송비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부처님의 세계일화 가르침 실천에 함께해 주세요.

후원계좌 : 농협 053-01-271485
홈페이지 : www.lisa.or.kr
후원문의 : 02-734-8050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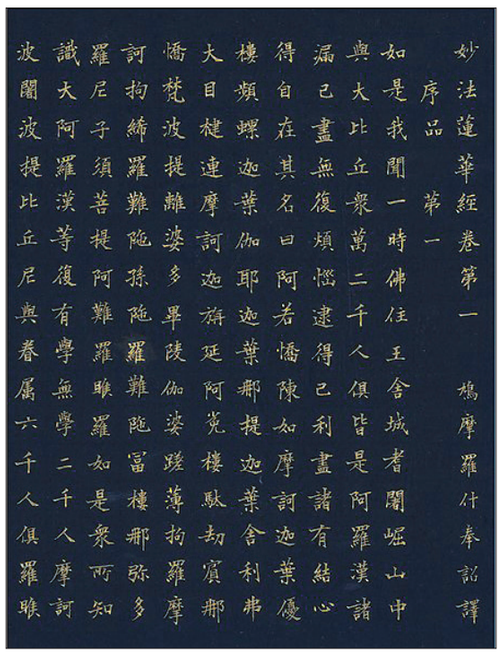


칠순 서예가 사경으로 본 '유·불·선'

〈儒佛仙〉

월천 권경상 작가, 생애 첫 개인 서예전
6월 12~18일, 서울 한국미술관 3층서
10여 년 걸쳐 작업한 〈묘법연화경〉 등
경전 32종 등 방대한 사경 작품 전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권경상 작가의 사경 〈묘법연화경〉.

한학자이면서 서예가인 월천(月泉) 권경상(權卿相) 작가가 '사경(寫經)으로 본 유(儒)·불(佛)·선(仙)' 전시회를 연다. 한국 서예계의 거목인 여초 김응현 선생의 제자이기도 한 권경상 작가의 생애 첫 개인 서예전이다.

6월 12~18일까지 1주일 동안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 3층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10여 년에 걸쳐 사경을 마친 〈묘법연화경〉을 비롯해 육조 혜능이 해석을 부기한 〈금강경〉 〈미륵경〉 등 경전 32종과 유학(儒學) 경전 〈대학〉 〈중용〉 그리고 도교(道敎)의 근간이 되는 〈노자〉 등 총 35종의 방대한 사경 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대학〉 〈중용〉은 본문의 해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해설을 선현들의 이론을 망라해 간주(間注)로 표기해 사경했다. 뿐만 아니라 소주(小註)까지 번역하고 각주를 병기한 번역본을 전시회에 맞춰 출판해 주목받고 있다.

권경상 작가는 "가헌 최완수 간송미술관 한국민족미술연구소장의 권유로 틈틈이 작업하다가 지난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국에 전파되면서 모든 강의가 중단됨에 따라 최근까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경에 매달렸다"면서 "이번 전시는 그 결과물들로, 전체 35만자 사경에 같은 글씨는 한자도 없을 정도로 몰입하며 정성을 다했다"고 이번 전시를 설명했다.

올해 70세가 된 권경상 작가는 매일 아침마다 사경을 하고 부처님께 예경 올린다. 또 틈이 날 때마다 마라톤과 산행을 즐긴다. 권 작가는 "아직도 붓으로 5㎜ 크기의 글씨를 쓸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면서 "돌이켜 보면 타고난 재능은 없었으나 큰 스승을 만나는 복을 누렸다"고 말했다.

구당 여원구 동방연서회 회장은 이번 전시회를 축하하며 "월천 선생의 글씨는 꾸밈이 없고 소박하며 예스럽고, 응결되고 정련된 것이 강건하며, 뛰어나게 아름답다"면서 "필사가 돼 후세에 사경 교본으로서 한국서법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천에서 성장한 권경상 작가는 6살 때부터 선친에게 서예와 한문을 배우다가 가림(佳林) 이달호(李達浩) 선생에게 한문을 수학했으며, 결혼한 이후에 동방연서회에서 여초 김응현 선생으로부터 서예를 사사(師事)했다. 한국고전번역원 국역연수원 연수부와 상임연구원을 졸업하고 국역위원과 강사를 역임했다.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국제서법예술연합회 초대작가로 서예대전을 비롯한 많은 대회의 심사위원 및 감수위원을 지냈다.

송광사 영산회상도·팔상도 국보됐다

5월 27일,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구성·표현 등 예술적 가치도 탁월



5월 27일 국보로 지정된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5월 27일 조선 후기 팔상도를 대표하는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 이번 국보 지정은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 이래 첫 사례다.

2003년 보물로 지정됐다가 20여 년 만에 국보로 지정된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는 송광사 영산전에 봉안하기 위해 일괄로 제작한 불화다. 영산회상도 1폭과 팔상도 8폭으로 구성돼 있다. 팔상도는 석가모니의 생애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8개의 주제로 표현한 불화다.

조선 초기에는 〈월인석보(月印釋譜)〉의 변상도를 차용한 팔상도가 제작되다가 후기에 접어들면서 〈석씨원류응화사적〉에서 제시된 도상으로 새로운 형식의 팔상도가 유행했는데, 후기 팔상도를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순천 송광사 팔상도다.

현재 송광사성보박물관에 보관 중인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는 화기를 통해 1725년(조선 영조 1)이라는 제작 연대와 의겸(義謙) 등 제작 화승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한 전각에 영산회상도와 팔상도를 일괄로 일시에 조성해 봉안한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확인되며, 팔상도만이 아니라 영산회상도까지 〈석씨원류응화사적〉의 도상을 활용해 하나의 개념 속에 제작된 일괄 불화로서 완전함을 갖추고 있다. 또 조선 후기 영산회상도의 다양성과 팔상도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화승 의겸의 지휘 하에 영산회상도를 중심으로 팔상도 각 폭이 통일된 필선과 색채를 유지하면서 수많은 화제로 구성된 팔상의 인물들은 섬세한 필치로 묘사하고 전각 및 소나무 등을 이용해 공간성만이 아니라 사건에 따른 시공간의 전환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등 구성과 표현에 있어 예술적 가치도 뛰어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임은호 기자

6월, 부처님법 만나는 무용대전 열린다

6월 6일부터 제10회 국제 불교무용대전
인도 주빈국으로 22개팀 50여 명 참가
6월 5일 콘퍼런스…결선·시상 7월 6일



제10회 국제 불교무용대전 출연팀 최보결의 춤의 학교 '몸의 시'.

불교계 대표 무용 페스티벌 불교무용대전이 10회를 맞아 6월 한 달간 성대한 축제를 연다. 불교무용이라는 개념도 없던 열악한 환경 속에 시작한 불교무용대전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무용 페스티벌이자 한국의 무용 활성화를 위한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대표 이철진)는 5월 29일 성균소극장에서 '제10회 국제불교무용대전 기념 쇼케이스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제10회 국제 불교무용대전은 이날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6월 5일 10주년 기념 콘퍼런스 IDANS '불교무용을 통한 국제 네트워킹 활성화 방안 모색'을 진행한다. 6월 7~30일 본선을, 7월 6일 결선 및 시상식을 갖는다.

올해는 특히 10주년을 맞아 불교 발상지인 인도를 주빈국으로 선정했다. 공연 첫 주는 역대 수상자들의 초청공연도 준비됐다.

본선은 성균소극장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일요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최보결의 춤의 학교, 수(修) 예술단, 춤이상&서정 무용단, 윤명화무용단, 마묵무용단, 치트라 달비(인도), 카츠미 요시유키·하나야기 리두(일본) 등 22팀 50여 명이 무대에 오른다.

제10회 국제 불교무용대전 기념 콘퍼런스(IDANS)는 '불교무용을 통한 국제 네트워킹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주빈국 인도의 뭄바이 국립 공연예술센터 무용 프로그래밍 책임자 스왑노칼파 다스굽타 박사(Dr. Swapnokalpa Dasgupta), 바라타 미술문화대학 조교수 치트라 달비(Prof. Chitra Dalvi), 베트남 무용대학 협의회 의장 응우옌 투이 응아 박사(Dr. Nguyen Thuy Nga), 베트남 무용대학 전 총장 트란 반 하이 박사(Dr. Tran Van Hai), 일본 '앗파레 후지' 페스티벌 집행위원회 고문 아츠시 스기모토(Director Atsushi Sugimoto) 등 한국, 인도, 베트남, 일본 4개국의 무용계 및 문화예술계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참가를 확정했다.

결선 및 시상식은 7월 6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된다.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예약(booking.naver.com/booking/12/bizes/1144836)이 필수다.

쇼케이스에서 이철진 구슬주머니 대표는 "10년 전 처음 불교 무용대전을 시작했을 때부터 많은 분들의 도움과 관심으로 10회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면서 지난 10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불교 무용대전이 아시아를 불교로 똘똘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해외 무용수들과 함께 협업 무대를 많이 만들어 세계 속 불교무용의 앞으로 10년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070-4135-3333

임은호 기자

덕산 스님, 직지 가르침 담긴 음반 발표

직지 대의 담긴 12곡 공개
송우주 등 불자가수 동참



청주에서 직지 홍법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혜은사 주지 덕산 스님이 음반 '백운화상초록 불조직지심체요절'을 발매했다.〈사진〉

직지의 도시 청주에서 수십 년 동안 직지 강의를 해온 덕산 스님은 직지의 내용보다는 인쇄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직접 듣고 체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로 이번 앨범을 제작했다.

직지의 대의와 가르침을 집약한 노랫말을 불자 작곡가 오해균 가릉빈가 소리 대표에게 의뢰, 12곡을 만들었다. 이어 신심 깊은 불자가수 서주경, 현당, 이정옥, 정향속, 오영민, 송우주 등 10여 명을 선정, 음반을 제작했다. 이번 음반은 기존 찬불가 방식을 벗어나 가요의 리듬을 차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웃종교인과 무종교인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불교 색채를 걷어냈다.

덕산 스님은 이번 앨범 제작을 계기로 사찰 신도로 구성된 인디밴드 '허튼소리'를 결성했다. 이들은 참여 가수들과 함께 청주는 물론 전국 각지를 순례하며 음성공양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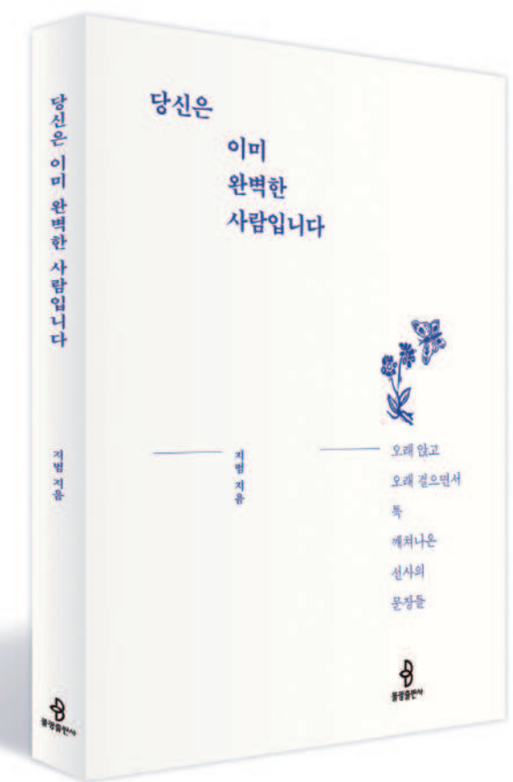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고,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며,
충분히 완벽한 사람이다.

세상이 두렵고, 혼란스러우며,
자신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다.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다.
지범 스님의 넉넉한 미소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하심의 마음결에서
끝까지 가본 사람의 단단한 공부 속에서
또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당신은 이미
완벽한 사람입니다

오래 앉고
오래 걸으면서
툭
깨쳐나온
선사의
문장들

지범 지음 | 224쪽 | 값 17,000원



지범 스님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 보문선원 선원장. 1978년 출가 후 20년 넘게 운수납자로 살아오며 전국 제방선원에서 오로지 수좌의 한 길을 걸어왔다. 특히 대자암 무문관, 백담사 무문관, 진귀암 무문관 등에서 3년을 치열하게 몸을 던졌으며, 봉암사와 고운사 100일 용맹정진을 여법하게 회향하기도 했다. 2000년 은사스님이 갑작스럽게 입적하게 되어, 보문사 주지를 맡게 되었다. 이후에도 결제철엔 선방에 방부를 들이고 수좌로 돌아가 좌복에 몸을 던져왔다. 2022년 서울 도심에 출·재가자가 함께 정진할 수 있는 보문선원을 개원하고, 선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이끌며 한국불교계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제34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BBS불교방송 '지대방 산책'에서 법음을 전하고 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불광미디어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29~6/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사회복지(프라즈냐총서60)불교사회복지사상과 실천의 현대적 모색	명안	운주사	6	원각경이가해	함허득통, 감산덕청	운주사
2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원영	불광출판사	7	네가지 마음챙기는 공부*대념처경과 그 주석서(초기불전001)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산스크리트원전 완역 팔천송 반야경붓다의 사상적 혁명대승 경전의 시작과 그 뿌리	전순환 번역	불광출판사
4	붓다중도로 살다:깨달음은 지금 여기 삶이 되어야 한다	도법 지음	불광출판사	9	기도의 이유:당신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중현	불광출판사
5	윤회(대원불교학술총서15) 불교의 마음업 우주에 대한 길잡이	로저 잭슨	운주사	10	머리 한번 만져보게 나 극락 간다네(정토문성언집)	함현	담앤북스

책세상

‘부처님 발우’에 담긴 이야기들

〈佛鉢〉



불발,
부처님 발우이야기
권오민 지음
운주사
3만5000원

부처님 탁발할 때 사용한 그릇
아함, 율장 등서 에피소드 언급
권오민 교수, 불발 이야기 조명
부처님 발우 관련 종합 안내서



영축총림 통도사 용화전 앞에 있는 봉발탑.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돼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석가모니 부처님이 탁발할 때 사용한 공양 그릇을 ‘발우’라고 한다. 부처님이 사용하셨기에 ‘불발(佛鉢)’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들은 초기경전인 아함이나 6부의 율장은 물론 아비달마 논장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중요하다. 그렇기에 ‘불발’은 불타가 무량한 세월 동안 쌓아온 수행의 결정체로, 불타 정법의 상징이자 신앙의 대상이 됐다.

실제 한국 불보사찰인 영축총림 통도사에도 부처님 발우가 확인된다. 경내 용화전 앞에는 부처님의 옷과 발우를 미륵보살이 이어받을 것을 상징한 봉발탑(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이 있다. 이처럼 부처님 발우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신화와 역사, 전설로 교차하며 확대됐다.

30여 년에 걸쳐 경량부를 연구해 온 권오민 경상국립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발간한 〈불발, 부처님 발우 이야기〉를 통해 경전 속에서 어떻게 부처님 발우 이야기가 기술되고 있으며, 이는 시대와 지역을 거치며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조명하고 있다.

책은 △제1장 트라푸사와 발리카 두 상인의 첫 공양 △제2장 사천왕의 발우 봉납 △제3장 나이란자나 강가 마을 여인의 공양 △제4장 불발, 간다라로 옮겨가다 △제5장 간다라의 불발 신앙 △제6장 불발의 파괴와 정법 멸진 △제7장 불발의 유전과 미륵불의 불발 예배 △제8장 미륵세존과 불발 △제9장 반야바라밀다와 불발 △제10장 우리나라의 불발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좇아가면 불발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하나의 대하드라마와 같다.

불교에서 불발은 처음부터 특별한 것이었다. 경전에서 그것은 사천왕이 바친 것으로, 단순히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법에 의해 이루어진, 법을 담는 그릇, 먹어도 먹어도 줄어드는 법이 없는 법기(法器)였다. 〈연화면경〉에 따르면 불발은 3아승지겁에 다시 백겁을 더한 수행의 결정체로 불타 정법의 상징이었다. 불발을 이같이 인식하는 한 그것은 성물로 신앙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당시 간다라에서는 불발 역시 불사리(佛舍利)와 마찬가지로 불탑에 안치하여 예배했고, 사천왕이 불타에게 발우를 바치는 모습이나 불제자가 불발에 예배하는 모습은 간다라 불교미술의 하나의 소재가 되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없듯이 불발 역시 그러했다. 불발은 불법(佛法)과 흥망을 함께했다. 정법의 시대에는 찬탄 예배됐지만, 정법이 사라진 말법의 시대에는 파괴를 면할 수 없었다. 불발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계법(戒法)도 파괴됐다. 간다라 사람들에 의하면 말법의 시대, 불발은 바야흐로 간다라를 떠나 인천(人天)의 또 다른 세계로 유전(流轉)하며, 종국에는 미래세의 부처인 미륵불의 세계에 이른다. 부처가 비록 삼세에 걸쳐 수없이 출현할지라도 불법은 하나이듯 불발 역시 그러하여 현겁(賢劫)의 천불(千佛)은 하나의 발우를 함께 사용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불발을 미래세의 새로운 주인인 미륵불에게 전하는 일도 당연히 사천왕의 몫일 것이지만, 여기에는 매우 특별한 버전의 이야기도 존재한다. 석가모니불이 각별히 신뢰하였던 마하가섭을 통해 전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가섭존자는 왕사성의 계족산중 지하암굴에서 석존의 가사와 발우를 든 채 반열반(멸진정)에 든 상태로 57억년 후에 출현할 미륵불을 기다린다. 그러나 다른 한편 중국의 선종에서는 마하가섭에게 전해진 불발은 깨달음의 신표로서 보리달마를 거쳐 역대 조사에게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그들은 6조 혜능의 전기를 서술하며 이와 관련된 매우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구성하기도 했다. 〈삼국유사〉와 〈송고승전〉에서는 각기 문수보살과 미륵보살이 자장율사와 진표율사에게 전해 주었다고 설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들이 창건한 통도사와 금산사, 진표의 제자 영심이 창건한 법주사는 어떤 식으로든 불발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소개했듯 통도사의 봉발탑을 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흔히 불교는 실천적 수행의 종교지만, 동시에 비유와 스토리가 풍부한 대중적 신앙의 종교이기도 하다. 부처님 발우 이야기만큼 대중의 호기심에 부응하는 스토리텔링 또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불교의 귀중한 전통이자 자산이다.

불교적 생활 지혜를 담다



붓다의 생활 수업
박경준 지음
우리출판사
1만8000원

〈붓다의 생활 수업〉은 석가모니 붓다의 가르침을 오늘날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냈다. 저자인 원로 불교학자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명예교수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분명하다. 수행 지침만이 아니라 생활 지침도 필요해서다.

“이제 불교는 깨달음을 향한 수행 지침만이 아니라 일상 전반에 대한 생활 지침까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머리말 중에서

이를 위해 책의 내용 또한 ‘먹다-식탁에도 성찰이 필요하다’ ‘입다-내면의 멋과 향기가 우러나와야’ ‘자다-죽음보다 깊은 잠’ ‘사랑하다-본능의 성 혹은 인간적인 성’ 등 우리들의 삶과 직결된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막연한 실천담론을 전하지 않는다. 초기불교 문헌은 물론 대승불교의 경·논서, 더 나아가서는 현대의 석학, 작가들의 글에서 관련된 부분을 제시하고, 이를 현대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햄버거용 소고기 100g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이 2000L이고, 햄버거 한 조각 때문에 사라지는 숲이 약 5㎡(1.5평)라고 한다. 이처럼 육식은 윤리, 환경, 나아가 건강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불교인들도 이제 육식의 전면 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생명 존중과 환경의 관점에서 무절제한 육식문화를 돌아보고 소박한 식생활을 선도해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19p)

〈붓다의 생활 수업〉은 불교인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불교의 가르침과 생활 실천 지침을 전하는 실용서다. 신중일 기자

불자 아나운서의 담담한 수상들



해바라기 피는 마을
이계진 지음
맑은소리맑은나라
2만원

넘치는 세상이다. 말과 글, 생각과 논쟁, 대화와 소비, 감정과 갈등, 사건과 사고, 거짓과 진실. 대응하고 대립하는 모든 것들이 흘러넘쳐 피로하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자연을 닮은 싱그러운 소리와 솔직한 마음과 날것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들여다보고 싶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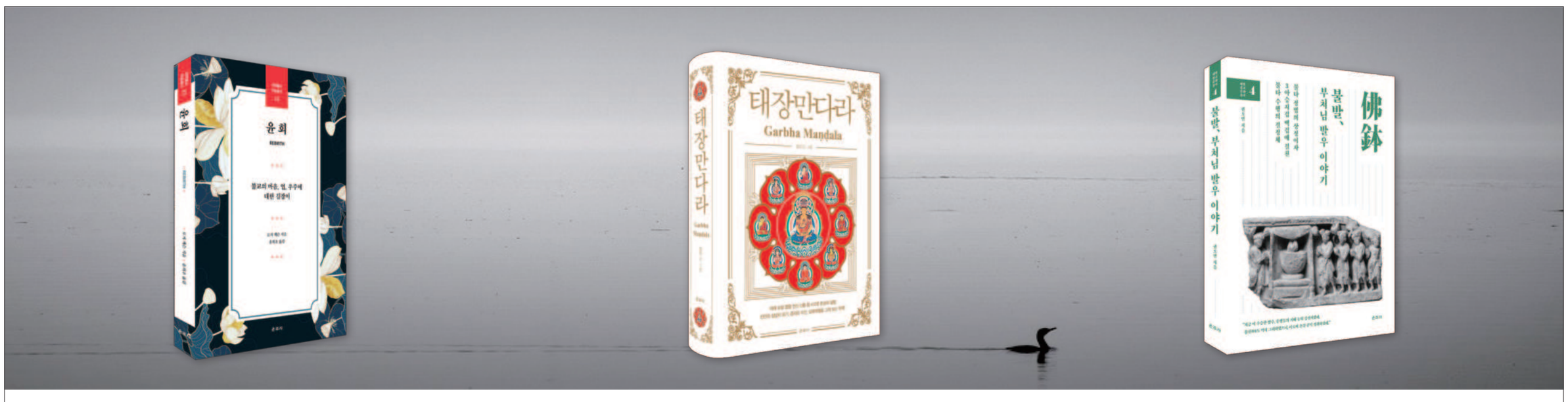
불자 아나운서 이계진 씨도 정장과 넥타이를 차려입고 정제된 언어로 세상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고, 여의도에서 의정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어느날 ‘화개산’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들어온 그만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해바라기 피는 마을〉은 저자 이계진이 자연과 호흡하여 텃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아냈다. 이는 같은 이름의, 지난 2004년에 개설한 네이버 블로그 ‘해바라기 피는 마을에’ 20여 년 동안 연재해 온 글들을 추리고 다듬어낸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 안에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 흔한 보통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값진 교훈을 저자만의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낸다. 불자인 만큼 법정 스님과의 차담 에피소드 등도 담겼다.

책에 실린 62편의 글과 채 다 실을 수 없었던 200여 편의 글 속에서 늘 주인공은 ‘사람’이다. 자신과 누군가의 경험과 목소리를 옮겨 실었으며, 알 수 없는 타인의 삶과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과 이해와 행복이 넘쳐흐르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저자의 발자국이 읽는 이의 마음에도 뚜렷이 찍힌다.

신중일 기자



‘윤회는 실재하는가, 방편인가?’
윤회
불교에서 윤회에 관해 다룬 최초의 포괄적인 안내서이자, 윤회에 대한 불교적 가르침을 역사적 맥락에서 다룬 최초의 이론적 연구서이다.
로저 잭슨 지음, 윤희조 옮김/신국판/무선/408쪽/값 25,000원

『대일경』에 근거한 태장만다라의 412분 존상 재현!
태장만다라
중대팔엽원부터 외금강부원까지 12부원을 도상화하고, 412분 존상에 대해 의미와 형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진언과 실담 범자, 종자, 수인, 삼매야형 등을 부여.
법헌 글 · 그림/사륙배판/양장/컬러/688쪽/값 100,000원

불타 수행의 결정체이자 정법의 상징인 불발佛鉢!
불발, 부처님 발우 이야기
경전 속 묘사부터 의미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발우를 둘러싼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은, 불발을 주제로 한 최초의 체계적인 저서이다.
권오민 지음/사륙배판 변형/무선/컬러/544쪽/값 3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불교 부적, 민중 염원 담아낸 문화유산



불교 부적의 연구
정각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3만5000원

중앙승가대 교수 정각 스님
부적 원류부터 의미들 조명
일제강점기에 기형적 변형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통일신라시대 범자 수구다라니. 민중의 염원이 담긴 부적이기도 했다.

부적. 액운을 쫓고 복을 가져준다고 믿는 글씨·그림·기호 등을 그린 종이를 의미한다. 지금도 불교용품점에 가면 다양한 액운을 막아준다는 경면주사 부적들 구입할 수 있다.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한다. "부적은 미신이고 불교의 정법과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

중앙승가대 교수이자 조계종 교육아사리인 정각 스님(고양 원각사 주지)은 최근 출간한 저서 〈불교 부적의 연구〉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정각 스님은 돈황 자료 및 대장경에 실린 부적을 점검하고 한국불교 의식집을 검토하던 중, 기존의 연구에 많은 자료가 누락돼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시대 부적과 근현대에 사용된 부적에 관한 연구가 전무함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은 불교 부적의 연원이 되는 〈오명론(五明論)〉의 의미와 중국 전래의 고찰에서부터 고려, 조선 나아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에 이르는 광범위한 시공간 속의 불교 부적 연구를 시도한다.

특히 저자는 고려시대 간행 다라니에 실린 부적을 연구하던 중, 고려 때 사용된 부적의 동일한 형태가 돈황 자료에서 발견됨을 알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책도 그 탐구의 여정을 그대로 좇는다.

책의 여정은 '둔황'에서 시작된다. 앞서 이야기한 〈오명론〉의 의미와 중국 전래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둔황 문서 중 부적이 실린 12종의 사본을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구성 차이와 사본 간 부적의 형태 및 내용 변화 양상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발걸음은 '대장경'으로 향한다. 정각 스님은 〈대정신수대장경〉과 도상부(圖像部) 중 불교 부적이 실린 총 18종의 문헌을 대상으로 각 부적의 내용과 의미를 검토한다.

세 번째 여정은 '한반도'다. 먼저 고려시대에 간행된 부적을 정리하고 그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데, 스님은 고려시대에 사용된 불교 부적은 돈황 사본에 실린 부적에 기인한 것임을 밝히고자 했다.

조선시대 간행 부적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도교 문헌인 〈태상비법진택영부〉 〈옥추경〉 등 도교 부적 유입 양상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불교 부적이 다양화될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 그려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님은 일제강점기 및 근현대에 이르러 불교 부적이 기형화된 형태로 변화된 모습을 진단하기도 한다.

이 책은 '부적'이라는 또 하나의 불교문화에 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특히 불교 전통 부적에 담긴 의미에 관한 내용에 이르러, 옛사람들의 염원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염원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부적을 지니면 정토에 태어나거나 성불을 하게 되며, 또는 만겁에 걸친 생사를 받지 않거나 모든 죄를 능히 멸하게 된다고 한다. 현재의 소망을 성취하거나 행복한 삶, 부유한 삶을 기원하는 부적도 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소망은 그 결은 같은 법이다.

이 책의 추천사를 최근 원적한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남은당 현봉 대종사가 썼다. 그 추천사가 이 책의 주제와 중요성을 대변하기에 일부를 게재한다.

우리의 오래된 부적 문화가 식민시대를 거치며 폄하되고, 서구 문물이 유입되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근대적인 미신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즈음은 국내외에서 우리의 미묘한 부적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부적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소박한 염원을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제대로 알고, 이 부적 문화를 새롭게 일구어 간다면 한류(韓流)의 흐름에 아름다운 꽃잎을 더하게 될 것이다.

– 현봉 대종사 '출판에 부쳐' 중에서

어른을 위한 담백구수한 '불교 동시'



부처님의 작은 선물
최승호 지음
준한 스님 감수
담앤북스/ 1만6800원

〈부처님의 작은 선물〉은 현대 시문학의 거장 최승호 시인의 '어른들을 위한 동시집'이다. 동시의 새 지평을 연 〈말놀이 동시집〉 시리즈와 방시혁이 작곡한 〈말놀이 동요집〉, 카툰 동시집 〈치타는 짜장면을 배달한다〉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름다운 동시를 꾸준히 창작해 온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불교를 소재로 대자연 속 천진스러운 생명체들을 노래한 동시 60편을 선보였다.

시인은 "마음은 부처님이 주신 선물이고, 절은 부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아름다운 공간"이라며 "그곳에서 스님들의 생활 그리고 사찰을 둘러싼 대자연 속 천진스러운 생명체들을 떠올리면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렸다"고 불교 동시를 쓰게 된 계기를 밝혔다.

시집에는 시인이 아이들의 눈높이로 직접 그린 삽화 60점도 실려 있다. 파란색 털실 뭉치 같은 '청삽살개'는 절로 웃음을 짓게 만들고, '연등행렬' 속 코끼리는 알록달록한 연등을 떠올리게 한다. 개구쟁이 어린이가 그린 것 같은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그림은 한 편의 선화(禪畵)를 보는 듯 담박(淡泊)하다.

시집의 또 다른 특징은 한글 시와 영문 번역을 함께 실어 영어를 배우는 어린이나 한글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도 즐길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영문 번역은 JustBe 홍대선원의 준한 스님이 직접 감수했다. 스님의 제안으로 '섬돌' '소소리바람' 같은 단어는 발음 그대로 표기한 후 뜻풀이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번역해 말놀이의 재미를 살리면서도 우리 정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 잡지 톺아보기

가깝고도 먼 '일본불교' 만나다

월간 〈불교문화〉 6월호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발행하는 불교대중문화지인 월간 〈불교문화〉 6월호(통권 제286호)가 발간됐다.

〈불교문화〉6월호 특집은 '일본불교'로 한때 국교의 위치까지 올랐던 일본불교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스에키 후미히코 일본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명예교수는 '일본불교와 보살'을 주제로 일본불교는 〈법화경〉과 〈무량수경〉 등 초기 대승불교 바탕으로 실천적인 불교 전개를 했다고 전한다. 박규태 한양대 명예교수는 '일본불교의 특징과 역사'에서 나라 시대부터 메이지유신에 이르기까지 1000여 년 넘게 지속된 신불습합(神佛習合)의 현상은 일본불교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용월사불교문화연구소장 법우 스님은 '일본의 정토불교'에서 일본의 불교 지형에서 가장 큰 세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정토불교임을 말하며 정토종(淨土宗), 정토진종(淨土眞宗), 시종(時宗)으로 대표되는 정토계 종단들의 특징을 설명한다.

또한,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현대 일본 조동종'을, 원영상 원광대 일본어교육학과 조교수는 '일본불교 니치렌계의 역사와 활약'을, 바바 히사유키 일본 불교대학 교수는 '일본불교의 현주소와 과제' 등을 통해 일본불교 종파와 현황 등을 살핀다.

이 밖에도 △치유의 숲, 사찰림을 가다-화계사와 삼각산 숲 △문화재의 시선으로 보는 절집 이야기-동해 삼화사 △10분으로 배우는 불교-계율과 수행 △법상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공부-모름을 받아들일 때 두렵지 않다 △6월 화요 열린 강좌-'붓다' 등 풍성한 읽을거리가 담겼다.

신중일 기자

친숙하고도 무서운 '저승사자'

월간 〈불광〉 6월호



불광미디어가 발행하는 월간 불교지 〈불광〉 6월호(통권 제596호)가 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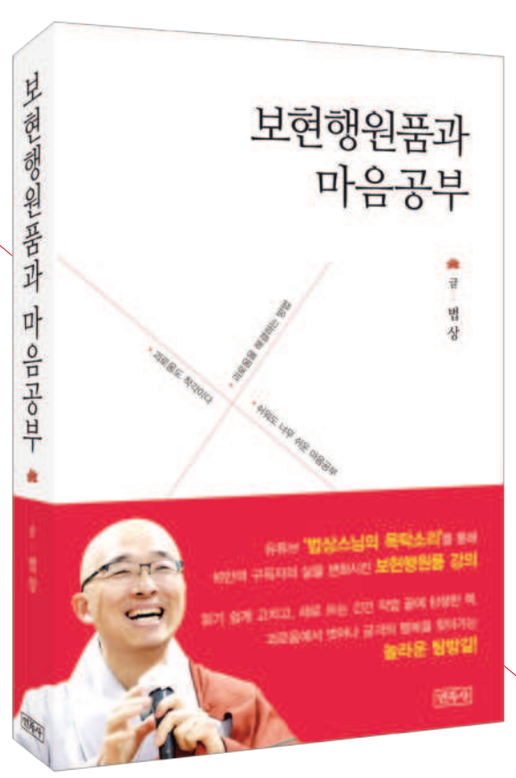
〈불광〉6월호의 주제는 '저승사자'다. 저승사자는 영화나 드라마, 만화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무언가 두려운 존재다. 검은 도포를 입고 검은 삿갓을 머리에 쓴 저승사자는 1980년대 초 방영된 〈전설의 고향〉에 보여진 모습이다. 요즘은 드라마 등을 통해 보이듯이 무서운 얼굴보다는 주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 민간 신앙에서 유명한 저승사자는 바리데기 공주와 강림차사다.

민간 신앙과 대중문화에 등장하는 저승사자와 불교 의식에 등장하는 저승사자의 가장 큰 차이는 말을 타고 내려온다는 점이다. 경전에 등장하는 저승사자는 검은 옷과 검은 모자를 걸치고, 검은 말을 타고 내려온다. 이번 호에서는 염라대왕과 사천왕의 대리인이었던 저승사자가 시왕의 대리인으로 등장하는 과정과 저승사자의 명칭과 종류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전통 사찰의 명부전에 가면 저승사자를 만날 수 있다.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좌우로 있는 시왕의 맨 끝에 두 분의 저승사자가 도끼와 종이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다. 또한 각각의 시왕 뒤로 걸린 시왕탱화에는 저승에서 이승으로 떠나는 듯한 사자, 이승에서 망자를 데리고 저승에 도착한 사자 등 저승사자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다.

〈불광〉6월호에서는 염라대왕과 사천왕의 대리인이었던 저승사자가 시왕례의 정착과 더불어 변해가는 모습을 살폈다. 검정색 옷을 입은 사자가 화려한 색으로 변해가는 과정, 수륙재 같은 망자를 위한 추모의례에서 저승사자를 맞이하고 보내는 절차 등을 다뤘다.

신중일 기자



억지로 실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행복의 여정으로 안내하는 법상 스님의 말씀을 통해
저절로 공명하고, 감동하면서 체화될 것이다.

『화엄경』「보현행원품」은 생활 속에서
마음공부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경전입니다.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쉽고도 직접적인 가르침을 전합니다.
매우 깊은 불교의 가르침을 이토록 쉬운 방식으로
실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법상 스님의 머리말–



보현행원품과 마음공부 | 글 법상 | 432쪽 | 23,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지상백고좌

김제 금산사 조실 금산 도영 대종사

“너그럽게 참는 마음으로 정진 근본 삼아라”



도영 대종사는…1941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1960년 김제 금산사에서 월주 스님은 은사로 출가했다. 총무를 거쳐 주지를 맡아 보면서 금산사를 중창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교무부장, 조계종 포교원장 등을 역임하며 수행과 포교에 진력했다. 금산사와 완주 송광사 조실로서 후학들을 제접하고 있으며 다양한 현장 포교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적인 콘텐츠로 자리 잡은 ‘템플스테이’를 취재한 적이 있다. 2022년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아 이런저런 자료들과 사진, 영상들을 오랫동안 살펴봤다. 또 템플스테이 역사와 함께 해 온 관계자들을 만나 생생한 ‘증언’을 듣기도 했다.

당시 여러 대중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도영 스님의 존재’였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템플스테이가 지금처럼 튼실하게 자리 잡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만큼 도영 스님의 포교원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대단했음을 대중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템플스테이 행사는 금세기 처음으로 열리는 지구인의 축제 월드컵대회를 맞아 1700년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사찰의 산문을 열고 외국인 손님을 맞이하여 스님들의 수행생활을 체험케 하는 취지로 준비되었습니다.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라는 부처님의 연기사상에 입각하여 자연과의 철저한 조화를 이룬 곳.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한국 전통문화의 가장 깊은 체험을 맛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2002년 5월 11일 김천 직지사에서 열린 주한 외교사절 초청 템플스테이 입재식에서 당시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템플스테이의 취지와 의미를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렇게 ‘역사’는 시작됐다. 그 후 600만명이 넘는 세계시민들이 사찰의 품에 안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다.

아쉽게도 취재 당시에는 도영 스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원하고 원하면 이뤄진다고 했던가? 결국 스님을 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소나무처럼 널리 전해지는 부처님법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을 가슴에 새기고 새기며 완주 송광사로 향했다. 송광사는 아늑하고 편안했다. 백두대간이 남서쪽으로 뻗어오다 더 나가지 못하고 멈춘 곳, 종남산(終南山) 끝자락 평지에 앉아 있다. 한 줄로 선 일주문과 금강문, 천왕문, 종루, 대웅전 등을 차례차례 지났다. 남녀노소 누구나 평평한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었다. 경내를 장엄한 형형색색의 꽃과 나무와 사람이 어우러진 송광사는 그야말로 화엄세계다.

경내를 돌아보다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을 만났다. 절 이름이 송광사인 이유가 궁금했다. 처음에는 백련사였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소나무는 독특한 향이 있어 다른 식물과 함께 어울려 생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물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소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 금세 소나무 일색이 되고 말죠. 선종도 그와 같아 화엄종, 법상종, 정토종 등의 가르침이 토착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선종이 전래 되고 나면 선종 일색이 됩니다. 이를 소나무가 널리 자리한다[松廣]는 선종의 비유어로 백련사를 송광사로 바꾼 것입니다. 신라 말의 일입니다.”

법진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경내의 풍경이 또 달라 보였다. 대웅전 부처님께 예를 올린 후 도영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약사전의 방문을 두드렸다.

홀로인 사람 없으니 어울리며 살아야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이 행복의 길
“‘소 거꾸로 타고 법당 들어가는’ 愚를
범하지 않으려면 선입견을 내려놓아라”

도영 스님 주석하는 거처 ‘약사전’ 명명
“찾는 모든 사람 번뇌 · 병 사라졌으면”
매년 사자성어 선정해 대중과 실천 노력

팔순을 훌쩍 넘긴 스님이 자비로운 할아버지 미소를 얹어 직접 시원한 차를 내어 준다. 그 어떤 음료보다 달고 맛있었다. 스님이 먼저 운을 뗐다.

“금산사 주지를 하다가 포교원장을 맡게 되면서 2001년에 이곳 송광사에 짐을 풀게 됐습니다. 40년간 금산사에서 제 청춘을 보낸 뒤 수행처를 옮겼어요. 하하. 그때는 집도 몇 채 없었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사격을 갖췄어요. 동네 속의 절, 공원같이 아름다운 절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누구라도 쉬어 갈 수 있는 사찰이 됐으면 했는데, 이제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훅 들어온 스님의 말씀에 잠시 당황했지만, 삼배를 올리고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에 내린 법어의 의미에 대해 여쭈었다. 스님은 금산사 봉축법요식에서 ‘외로운 빛이 모여 스스로 비추니 그대들을 위하여 길을 열어주네. 꽃지는 나무에는 그림자가 없으니 (자신의 내면에 있는 밝은 빛을) 보려 할 때 누군들 보지 못하겠는가? 봄이여, 보지 못함이여! 소(내 마음)를 거꾸로 타고 법당으로 들어가네(自照列孤明 為君通一線 花謝樹無影 看時誰不見 見不見 倒騎牛兮入佛殿)’라고 대중들에게 법어를 내렸다.

“아무도 홀로인 사람은 없습니다. ‘객체’는 있어도 ‘독자’는 없어요. 모든 것은 싫든 좋든 어울리고 섞임으로써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사는 것만이 행복의 길입니다. ‘나’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나 아닌 다른 것들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하지만, 이들과 만날 때 경험적 선입견을 내려놓고 살기만 한다면 ‘소를 거꾸로 타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른다운 당부의 말씀이었다. 계속 이어진 스님의 ‘약사전(藥師殿)’에 대한 설명도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제가 사는 이 집 이름이 약사전입니다. 다른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방에 오시는 분들이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우선 강조하는 것은 ‘지족상락(知足常樂) 능인자안(能忍自安)’입니다. 만족할 줄 알면 항상 즐겁고 능히 참을 줄 알면 스스로가 편안해집니다. 만족하는 삶,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오래 사는가 봅니다.”

스님은 매년 정월이 되면 사부대중에게 사자성어를 내린다.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라는 당부를 실어서 전하고 있다.

‘심외무법(心外無法), 마음 밖에 따로 법이 없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수처작주(隨處作主),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야 한다. 존해파평(尊海波平), 바다도 존중받으면 파도가 잔잔하다.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상대방이 즐거우면 나도 즐거워진다.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설 수가 없다.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부분은 다 아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실천이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한 매년 하나의 사자성어를 선정해 그 뜻을 같이 새겨봅니다. ‘나’보다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우리 삶이 금방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승려들의 과거시험, ‘승과(僧科)’
조선시대 승과는 어떻게 운영되었고,
승과의 입격자들은 누구였는가

조선의 승과 연구
僧科
승과의 형식과 전개, 입격자에 대한 연구
정각 지음
432쪽 | 2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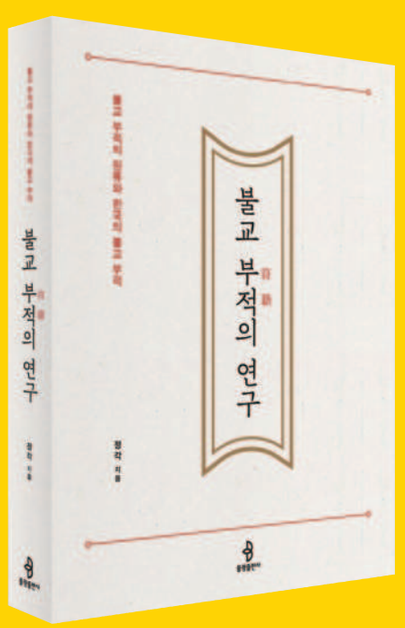
“이 책은 승과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종단의 역사적
전통 가운데 하나를
되살린 중요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_여천 무비 대종사

조선시대 승과의 전개와 양상,
그리고 조선불교 승과
입격자들의 목록까지
우리 역사 속 승과 전통에 관한
총체적 고찰!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부적은 정말 불교의 정법(正法)과 무관한 것인가?
왕생과 성불의 염원을 담은 불교 부적,
그 원류와 역사를 좇는 거대한 여정!

불교 부적의 연구
符籍
불교 부적의 원류와 한국의 불교 부적
정각 지음
496쪽 | 올컬러
35,000원



“우리 조상들의 염원을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인
부적을 제대로 알고,
부적 문화를 새롭게
일구어 나간다면 한류의
흐름에 아름다운 꽃잎을
더하게 될 것이다.”
_남은 현봉 대종사

돈황 자료 및
대장경에 실린 불교 부적,
그리고 고려·조선에 통용된
우리 불교 전통 부적까지,
그 역사의 흔적을 발굴한
단 하나의 책!

지상백고좌

김제 금산사 조실 금산 도영 대종사

“보살의 삶 서원… 中道적 삶 살아가야”

12면에 이어

理事를 같이 공부했던 날들

길지 않은 말씀 속에서 스님의 깊은 법향(法香)이 느껴졌다. 도영 스님은 이(理)와 사(事)를 겸비하고 있는 어른으로 존경받고 있다. 스님의 이사무애(理事無礙)한 삶은 65년 수행 과정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스님은 스승들을 잘 만난 덕분이라고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금산사로 출가했습니다. 백양사로 먼저 출가한 집안 형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당시 주지가 은사이신 월주 큰스님이십니다. 은사스님은 종단 일을 하시느라 절에 잘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숙스님들과 주로 같이 있었습니다. 일부 사숙스님들이 금오 노스님의 상좌가 되길 바라셨지만 결국 월주 큰스님을 은사로 모셨습니다. 은사스님은 젊으셨을 때부터 항상 ‘사회 속의 불교’를 강조하셨습니다. 인류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바세계에서 보현행원을 실천하시며 ‘깨달음의 사회화’라는 꽃을 지구촌에 활짝 피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도영 스님은 월주 큰스님께서 생전에 강조하셨던 말씀들을 소개했다.

‘불법은 세간 가운데 있으니 세간을 떠나서 깨닫지 못한다.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찾는다면 마치 토끼에게서 뿔을 구하는 것과 같다.(佛法在世間 不離世間覺 離世覓菩提 恰如求兎角)’

‘하늘과 땅은 나와 더불어 한 뿌리요,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한 몸이다.(天地與我同根 萬物與我一體)’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일체중생을 이롭게 하라.(歸一心源 饒益衆生)’

소개를 마친 도영 스님은 “우리 문도들은 항상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월주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도영 스님은 수행에도 진력했다. 노스님인 금오 스님의 선수행 정신을 밑거름으로 경봉 스님과 혜암 스님 등의 지도를 받으며 정진했다.

“정화의 주역이신 금오 노스님은 수행에도 철저하셨어요. 호랑이 같은 어른이셨습니다. 노스님께 시심마(是甚麽) 화두를 받았지만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줄곧 금산사 살림을 살피다 보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참이 지나 1970년대 중반 해인사 선원에 방부를 들였습니다. 성철 스님을 비롯해 기라성 같은 어른들이 계셔서 공부할 맛이 났습니다. 당시 해인총림 유나로 계시던 혜암 스님께 공부를 다시 배웠습니다. 사판으로만 살다가 선원에 가니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스님께서 무(無)자 화두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화두를 잘 참구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하셨습니다. 해인사에서 정진하면서 ‘내려놓음’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신심명〉의 ‘지도무난유혐간택(至道無難有嫌揀擇)’ 말씀처럼 도(道)는 어려운 것이 아닌데, 다만 분별심 때문에 도를 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도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도영 스님은 해인사에서의 정진 후 통도사 극락암에서 경봉 스님을 모시고 정진했다.

“경봉 스님께서 ‘사바세계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한번 제대로 놀아보자’며 공부와 정진을 독려해 주셨습니다. 수좌로서 의미있는 삶을 살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공부가 제일 잘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김천 수도암선원, 인제 백담사 무문관에서도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역시 수행자들은 공부를 해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도영 대종사가 본지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금생에는 보살의 삶을 살겠다” 다짐해
보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
“주변 진실히 챙기는 보살행 서원하자”

도영 스님은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포교와 전법에도 뛰어들었다. 월주 스님을 대신해 사실상 금산사를 지켰다. 특히 1974년 금산사 총무 소임을 보며 인근 지역 군법당 불사와 군포교를 시작해 지금까지도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천사불여일행(千思不如一行)’이라고 했습니다. 천 번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35사단, 논산 연무대, 부사관학교, 7공수, 임실 탄약창 법당 등을 건립했고 또 법회에 꾸준하게 다녔습니다. 보통 군에 입대하는 아이들이 대학교 1, 2학년을 마치고 와요. 최근 들어 종단이 대학생 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어서 반갑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군포교도 중요합니다. 군생활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서도 또 사회에 나와서도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교원장을 할 때 군종특별교구도 만들었습니다. 군포교는 ‘젊은 불교, 남성 불교, 새로운 불교’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군법당에 가면 우리 장병들에게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다.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것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주인답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당신의 삶을 온전하게 주인공의 삶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도영 스님은 군포교를 비롯한 다양한 전법활동을 하면서 많은 보시를 했다. 스님은 “써야 내 돈이다. 쓰지 않으면 남의 돈이다. 좋은 곳에 쓰면 더 좋은 내 돈이 될 것”이라며 웃었다.

스님은 군포교와 함께 전북불교회관 건립과 백산장학재단 설립 등 각계각층 포교를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있다. 스님은 특히 장학재단을 통한 포교에 애정이 간다고 했다.

“1980년 금산사 주지 재임시절 한 불자가 지역 내 어려운 학생들을 절에서 도와주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물어왔어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학생들을 지원해 불교인재로 키워보자고 말입니다. 포교원장 소임을 회향하고 2007년 백담사 무문관에서 정진한 뒤 장학재단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많이 늦어졌지만 그래도 2010년에 재단을 만든 것은 참 잘한 일 같습니다.”

진실된 보살의 삶 필요

도영 스님의 수행과 포교 원력은 대단했다.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대중들을 만나는 힘이 느껴졌다. 스님은 평소 마음에 담고 있는 게송이라며 직접 글씨를 써 줬다.

‘어젯밤 꿈속에는 머리 머리마다 부처이더니 이른 아침 눈을 뜨고 보니 물건마다 보살이로다. 멀리 창밖을 바라보니 곳곳마다 주인이 되니 봄은 풀잎 따라오고 생각마다 모두 하나로다.(昨夜夢中頭頭佛 今朝開眼物物薩 遠看窓外處處主 春來草葉念念一)’

“금생에는 보살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中道)’입니다. 그것도 실제로 실천하는 ‘중도’말입니다. 넘치지 않게,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부터 진실하게 챙기는 보살의 삶을 서원합시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영 스님은 보살의 삶을 위해 〈화엄경〉을 통한 수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화엄경〉은 보살의 수행계위로 십신(十信)-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廻向)-십지(十地)-등각(等覺)-묘각(妙覺) 순으로 52위를 설하고 있다.

“십지(十地)에서 지(地)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갖추고 있는 근본이며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환희지(歡喜地), 이구지(離垢地), 발광지(發光地), 염혜지(焰慧地), 난승지(難勝地), 현전지(現前地), 원행지(遠行地), 부동지(不動地), 선혜지(善慧地), 법운지(法雲地) 등 십지의 뜻을 알고 정진하면 더 행복한 날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영 스님은 몇 년 전 크게 아픈 적이 있다. 실제로 당시 제자들은 스님의 열반까지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도 고비를 잘 넘기니 이렇게 건강하게 사나 봅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본무생사(本無生死)입니다. 본래 태어남과 죽음이 없는 것이 우리들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을 더 잘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저를 ‘본무스님’이라고 불러 주세요.”

유쾌하면서도 진지한 인터뷰는 이른 아침부터 점심 공양 목탁이 울릴 때까지 계속됐다. 송광사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싱싱한 야채들이 공양간을 장엄하고 있었다. 공양이 끝나고 모든 대중들과 인사를 나누는 스님의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도영 스님에게 혹시 못다 한 말씀이 없는지 여쭈자 2020년 5월 15일 송광사에서 열린 ‘사법호유게(賜法號遺偈) 법회’에서 내린 게송을 전해줬다. “한번 잘 읽어 보세요. 제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린 게송이지만 모든 사부대중들이 새겨야 할 말씀이었다.

守護慈忍以爲精進行本門
堅持佛戒心得淸淨菩提果
和合僧衆自他爲宗門活計
隨機演暢傳法度生廣度衆

너그럽게 참는 마음으로 정진의 근본을 삼을 것이며,
계행을 굳게 가져 청정한 보리과를 이루도록 하라.
승가 대중들은 화합하여 종문이 융성할 방책으로 삼고,
근기에 따라 연설하여 불법을 전하고 중생을 널리 제도하라.

유철주 / 작가

대한민국 최대 관음응신상

-관음보살님의 신통한 위력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려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소서-

40여년간 불교미술조각에 외길을 걸어온 ‘금어 불교미술조성소’ 김승엽 소장은 권정학 선생의 문하생으로 생의 마지막 결과물이자 대한민국 최대의 33관음상을 조성하여 국제적인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수상경력

1987 정통불교미술대전 ‘장려상’ (동국대 주최)
1989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특선’ (조계종 주최)
1991 대한민국불교미술재전 ‘가작’ (조계종 주최)
2008 신라미술대전(조소부문) ‘입선’ (한국미술협회 주최)
2009 제5회 국제종합예술재전 ‘대상’ (한서미술협회 주최)

일체중생을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호하심과 가피를 입고 살아가며 중생은 그 은혜를 알아 보은행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번 33관음응신상 조성의 후원을 통해 가내에 큰 은혜와 기적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2-1709-1692-11 성수진 사무국장
연 락 처 | 금어 불교미술조성소 소장 김승엽 010-6262-5840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불 향 : 8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목경찬의 사찰 설화탐사대 ⑪ 영축산 통도사

▶한줄 요약
영축산이 꼭 인도의 영축산만은 아니다. 불보사찰답게 영축산 통도사에도 부처님이 항상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문수보살 전한 진신사리 봉안하다

독룡 물리치고 터를 잡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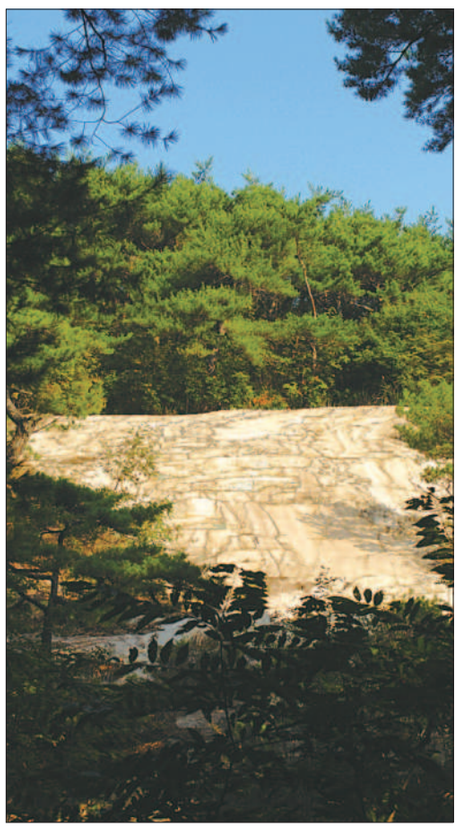
부처님 뵈려 절을 가는 길은 신심으로 가득하다. 간혹 사찰 안쪽까지 차를 타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멀리 떨어진 주차장에서 걸어 들어가는 편이다. 특히 경남 양산에 자리한 영축산 통도사를 찾아갈 때는 아예 입구 주차장 매표소부터 걸어 들어간다. 일주문까지 30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다. 무풍한송로(舞風寒松路)라 이름하는 이 길은 참으로 아름다운 절길이다. 그런데 통도사를 갔어도 이 길의 존재조차 모르는 이가 많다. 대부분 일주문 옆 주차장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이 길은 그 전에 끝이 나기 때문이다. 무풍한송로는 무성한 소나무가 드리우고, 왼쪽 옆으로는 맑고 잔잔한 계곡물이 흘러가고 있다. 이 길 도중에는 통도사의 창건 설화를 전하는 용피바위(용혈암)가 있다.

신라의 자장 스님(590?~658?)이 중국 종남산 운제사 문수보살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부처님 가사 한 벌과 진신사리 100과 등을 주면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나라 남쪽 영축산 기슭에 독룡들이 사는 못이 있다. 그 용들이 비바람을 일으켜 곡식을 상하게 하고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 용들이 사는 못에 금강계단을 쌓고 불사리와 가사를 봉하라. 그러면 삼재를 면하게 되어 만대에 이르도록 불법이 전해지리라."

자장 스님은 귀국하여 선덕여왕과 함께 영축산 기슭 독룡들이 사는 못에 이르렀다. 스님의 법력에 의해 용들은 허둥지둥 도망갔다. 다섯 마리는 상북면 외석리 뒤로 날아가고, 세 마리는 하북면 순지리 쪽으로 날아갔다. 그 골짜기를 각각 오룡골, 삼동골이라 한다. 그중 한 마리가 바위에 부딪혀 피를 흘렸다. 지금도 무풍한송로 용피바위에는 그 핏자국이 남아있다. 그런데 오직 한 마리의 눈먼 용만은 굳이 그곳에 남아 터를 지키겠다고 굳게 맹세하였다. 스님은 그 용의 청을 받아들었다. 연못 한 귀퉁이를 메우지 않고 남겨서 용이 머물도록 했다. 그곳이 적멸보궁 옆에 있는 구룡지다. 네댓 평의 넓이에 한 길도 채 안 되는 깊이의 조그마한 타원형의 연못이지만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물이 줄지 않는다.

다른 창건 설화도 있다. 중국에서 돌아온 자장 스님이 부처님 사리를 모시기 위해 절터를 알아보고자 나무로 만든 오리를 공중에 날려 보냈다. 곧 오리는 칡꽃 한 송이를 물고 돌아왔다. 자장 스님은 인근 산을 찾아다니다가 칡꽃이 가득한 곳을 발견하였다. 그곳에 통도사를 세웠다.



통도사 창건설화에 등장하는 한 마리 용의 피가 흘렀다는 용피바위.



신라 자장 스님 독룡들을 물리치고 터를 잡았다고 전해지는 구룡지.

단순한 설화일 수 있지만, 상징이 있을 수 있다. 독룡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무렵, 불교에 대해 텃세를 부린 기존 세력이라 풀이한다. 기존 세력과 대립 구조 속에서 기존 세력은 약화하고 불교가 지역에 자리 잡은 모습이 전설이 된다. 그렇다면, 나무로 만든 오리는 불교가 이 땅에 자리 잡도록 도와준 이들이라 할 수 있다.

자장 스님 중국 운제사서 기도
문수보살 나타나 '영축산' 언급
구룡지 통도사 창건설화 탄생
적멸보궁 · 금강계단 위상 높아

불보사찰로서의 높은 위상

〈삼국유사〉 제3권 '전후소장사리조(前後所將舍利條)'에 이런 기록이 있다. "643년에 자장 스님이 부처님의 두골, 부처님의 치아, 사리 100과, 부처님의 가사 한 벌을 모시고 왔다. 그 사리를 셋으로 나누어 한 몫은 황룡사탑, 한 몫은 태화사탑, 한 몫은 부처님 가사와 함께 통도사 계단에 두었다. 그 나머지는 어디에 있는 알 수 없다. 계단은 2층으로 상층 가운데에 범종 모양의 석개(石蓋)를 안치하였다." 이는 통도사의 불사리 금강계단과 함께 부처님 가사를 모신 사실을 전해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통도사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을 적멸보궁이라 하고, 또 그곳에서 계(戒)를 받는 의식을 진행하기에 금강계단(金剛戒壇)이라 한다. '금강'은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가장 단단한 것을 말하고, '계단'은 계를 전수하는 법단을 말한다. 즉, 금강계단은 금강처럼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계법을 전수하는 법다운 장소라는 뜻이다.

한때는 언제든지 금강계단을 참배할 수 있었지만, 현재 사리탑 보존을 위해 금강계단 참배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법회가 있는 특정 시간에 가능하다. 어느 날 금강계단을 참배할 때였다. 금강계단을 돌던 어느 일행들이 필자에게 물었다. "여기 금강계단이 어디 있어요?" 금강계단을 돌고 있음에도 금강계단을 금으로 된 층계(계단)로 잘못 알고 있었기에 나왔던 질문이다. 금강계단을 본인이 아는 대로 이해하였으니, 당연히 금으로 된 계단을 찾을 수 밖에.

통도사는 삼보사찰 가운데 불보사찰이다. 삼보(三寶)는 부처님[불보(佛寶)], 부처님의 가르침[법보(法寶)],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승가대중[승보(僧寶)]이다. 우리나라에는 삼보사찰이 있다. 통도사는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으므로 불보사찰, 해인사는 부처님 가르침인 팔만대장경(판)을 모시고 있으므로 법보사찰, 순천 송광사는 고려의 보조 스님 이후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계셨기에 승보사찰이다.

통도사가 자리한 산은 영축산(靈鷲山)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던 장소다. 참고로 '鷲'를 '취'라고 발음하여 영취산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통도사 뒷산을 취서산(鷲棲山)이라고도 하는데, 독수리가 사는 산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절 집안에서는, 특히 양산 통도사에서는 '취'가 아니라 '축'으로 발음하여 영축산이라 한다. 중국 수나라 때 천태대사는 지금도 영축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영축산이 꼭 인도의 영축산만은 아니다. 불보사찰답게 영축산 통도사에도 부처님이 항상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화마 제압하려 둔 소금단지

통도사를 여유롭게 참배하거나 눈썰미가 좋은 이들은 각 전각 처마 아래 있는 조그만 단지를 발견할 수 있다. 한 해의 안녕과 화재 예방을 위해 올려둔 소금단지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효능이 있다. 그러므로 민간에서도 사악한 기운을 막는 경우에 소금을 상징적으로 사용한다. 또 소금물은 바닷물을 의미하니, 바닷물로 화재를 막는다는 뜻이 있다. 따라서 소금단지는 바닷물로 화재를 막는다는 의미와 화마(火魔)를 제압한다는 의미가 함께 있다.

매년 음력 5월 5일 단옷날이 되면, 통도사는 단오절 용왕재를 지낸다. 이 의식을 통해 각 주요 전각 처마 아래 모서리에 1년 동안 있었던 소금단지를 내리고, 새로 소금을 넣은 단지를 올려놓는다. 단지에 소금을 넣고 그 위에 한지로 봉하고 나서 뚜껑을 덮는다. 한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있다. 임진왜란 당시 유일하게 화재를 입지 않았던 대광명전에 적힌 게송이다.

吾家有一客(오가유일객) 定是海中人(정시해중인) 口呑天漲水(구탄천창수) 能殺火精神(능살화정신)
우리집에 한 손님이 있으니 필시 바닷속 사람이라. 입으로 하늘에 넘칠 물을 뿜어서 능히 불귀신을 죽이소서.

'한 손님인 바닷속 사람'은 용왕이다. 소금이 바닷물에서 생산되니 용왕에게 불법을 지키는 임무를 맡겼다. 호법신장인 용왕이 하늘도 넘칠 물을 뿜어서 화마(火魔)를 제압하기를 바란다는 글이다. 즉 삿된 것을 막는 벽사(辟邪)의 글이다.

음력 5월 5일 단옷날은 홀수가 겹쳐 양기가 가장 왕성하고 첫여름이 시작되는 절기다. 이처럼 화기(火氣)가 가장 왕성한 날이므로 단옷날에 소금단지를 마련하여 모든 전각 처마 아래 놓는다. 통도사에서는 단옷날 소금을 교환할 때, 묶은 해의 소금은 신도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행사도 겸한다. 단옷날 아침에 가면 이 소금을 담은 주머니를 얻을 수 있다. 대중스님이 정성껏 마련한 소금 주머니다. 한해의 안녕을 기원하고 화마를 막는 주머니다. 바깥의 불도 살펴야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불을 살펴야 한다. 때마침 영축산에 부처님 가르침이 울려 퍼진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그러면 무엇에 의하여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에 의해 불타고, 성냄의 불에 의해 불타고, 어리석음의 불에 의해 불타고 있고…." 〈잡아함경〉 제8권 176경

〈불교학자〉

(사)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보 일봉
감찰원장 법운 성연
종회의장 벽산 혜암

포교원장 법전 법현 연수원장 가원 성각 교육원장 진각

강원종무원장 영명 서울종무원장 감우 총무부장 진공
경기종무원장 혜암 군산종무원장 덕일 재무부장 지안
충청종무원장 진산 경남동부종무원장 진공 사회부장 진성
전라종무원장 덕운 경남서부종무원장 진성 연화부장 정해
경기서부종무국장 보성

종도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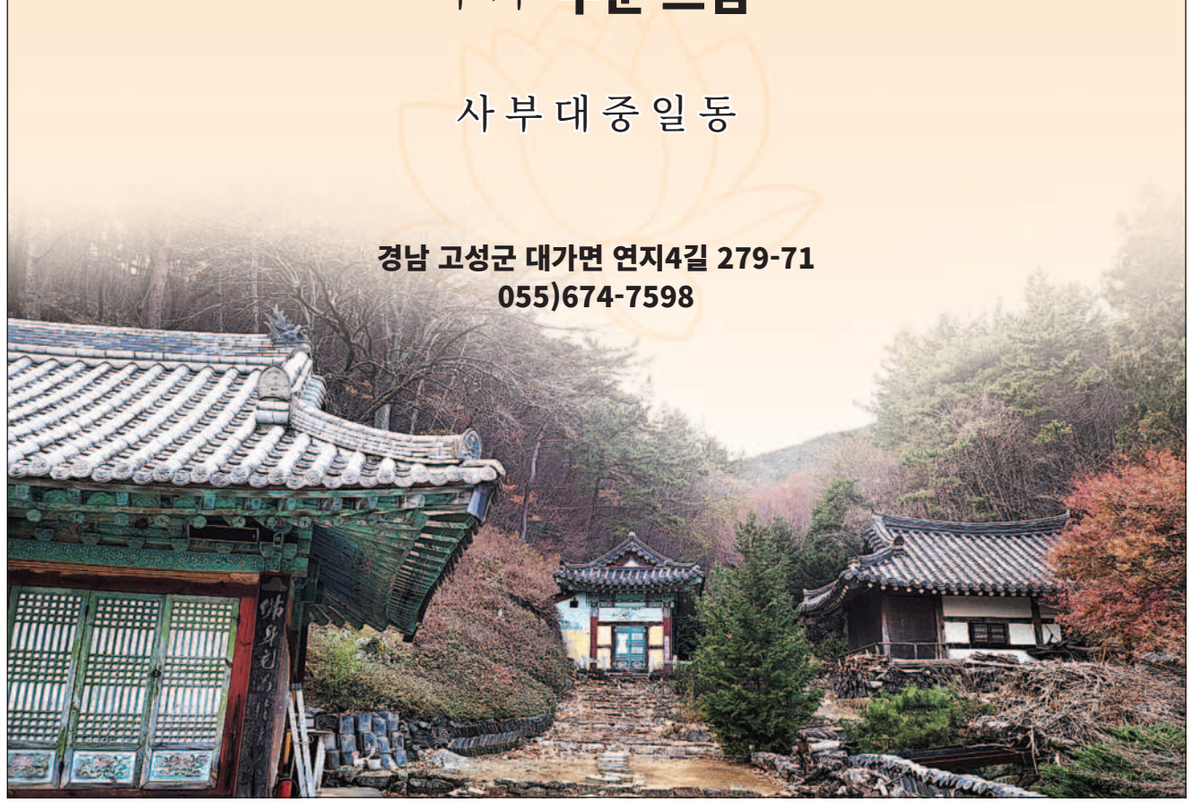
총본산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250번지 흥도사
총무원 : 경남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796번길 62-12 천지암

고성 약수암

주지 수운 스님

사부대중일동

경남 고성군 대가면 연지4길 279-71
055)674-7598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86호 | 15 | 전면광고

병든 사람을 문안하는 것은
나(부처님)를 문안하는 것이요,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사람은
나를 간호하는 사람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중일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시내 •부지 : 180평
•법당 : 40평 •요사 : 60
•매가 : 17억2천

•위치 : 인천 •부지 : 200평
•법당 : 60평 •요사:60평
•매가 : 15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채권 인수합니다. 사찰컨설팅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토 지 안 내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836번지
•835번지 임야 130평
•836번지 밭전 300평
•총 430평, 샘물 나옴
•사정상 급양도 2750만원

010-7628-9997

사찰(급)안내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가액 10억

010-6325-5112

사찰토지 안내

•위치 : 충주시 주덕읍 (국도 4차선 접)
•대지 : 631평
•금액 : 2억 5천

010-2136-9889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위치 : 강원도 삼척시
•대지 : 약 500 평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새고개2길 47
• 대지 : 종교부지 265평 (삼천포)
• 법당 : 20평 (동향)
• 요사 : 30평 (남향) 방3개
• 특징 : 50년된 우물, 수도
• 가액 : 3억

010-8868-70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 광역시 서구 신석로 111번길 3-1
• 2층 : 법당 30평
• 1층 : 요사채 30평
• 지하 : 15평
• 가액 4억원
• 스님 건강상 내놓습니다.
• 도심 속 깨끗한 사찰
• 교통 아주 편리함

010-9286-1008

사 찰 안 내(토굴)

•위치 : 경북 영덕 동해안
•대지 : 326평, 40평 건물 2채
•법당 15평, 공양간 17평, 방 7개, 목욕탕 3, 외부화장실 2
•용궁당 노천산신 야외석불 지장입불
•편리한 아파트식
•가액 : 2억 (절충 가능)

010-2008-0377

사찰(급)안내

•위 치 : 부산 연산동
•땅값만 받고 양도 합니다
•대지 124평
•법당 삼성각 용왕당 호심불(소불)
•공양간 종무소 스님방
•가격은 절충

010-7785-5577

사 찰 안 내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포항시 남구
• 대지 : 200평
• 건물, 법당, 산신각, 봉왕당, 요사채 2동,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함
※가액 : 보증금 3백만원 월세 20만원 (계약기간 5년이상 해드림)
※권리금 : 1천5백만원
※동시주차 15대 가능
※비구니 스님 원합니다.

010-7788-3320

사 찰 안 내

•위치 :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 소재
•종교 부지 적합함
•관광산업 단지로도 활용도가 높은 토지
•토지(과수) : 약 2800평 •대지 : 약 200평
•2층 건물 1동 : 약 60평
•매매금액 : 상호 협의하에관심 있으신 분께 영상 보내드립니다. 전화·문자 주세요.

010-3119-3351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사찰(급)안내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1
• 대지 300평(종교부지), 농지 114평(논)
• 목조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 3개), 태양광, 기름보일러, 저장식 전기온수기, 지하수, 욕실2개, 실외화장실1개
• 가액 : 2억 5천만원 (절충 가능)

010-4835-1739

사 찰 안 내

•매매가 6500만원
•영천 북안면 약 60평
•약사불, 조용한 기도처

010-9667-4898

사찰(급)안내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5분
•법당 : 약 23평, 단청필
•요사체, 친견실, 산신각 각 1동
•주차장 : 넓음
•가액 : 3억

010-5550-9725
010-4001-8476

사찰(급)안내

•위치 : 대구근교 IC에서 3분 거리
•대지 : 230평,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용왕당,
노천미륵불, 석물다수
•몸만 오시면 됩니다.
•가액 : 오억(5억) 절충가능

010-3540-8431

사찰(급)안내

•장호원 감곡KTX역 10분거리 깨끗한 사찰
•대지계획관리, 그린시설 1000평
•대웅전, 종각, 휴게소, 잔디광장
•요사채3동, 다도실, 리라이트광석찜질방
•연못, 가온기치료기실, 각종 암환자 치료완비
•은행 2억대출 매매가 8억 급매매 전세 놓습니다
•장난전화 사절

010-5883-2255
010-7151-8546

멋진사찰 (급) 안내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대 지 : 약 175평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가 액 : 2억 3천만원(절충가능)
건강상의 이유로 시세 이하로 계산합니다.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 토지 : 종교용지 500평. 대지 :114평. 전 : 89평
• 건물 : 대웅전, 요사채 등 총117평
• 약 6평 정도의 굴법당 있음
• 진주ic에서 15분. 사천ic에서 10분 이내 거리. ★접근성 좋음★ 약 80년 된 사찰
• 가액 : 6억원. 절충가능

010-4021-8588

사찰(급)안내

•위치 : 경남 산청원지
•대지 : 약 530평 건물 3동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저온창고 5평
•공양간 30평, 방 5개, 화장실 5개 스님 접견실, 주차공간 20대
•가액 : 3억 3500만원

010-7364-8604

사찰(급)안내

•위치 : 경남 양산
•종교용지, 대지 218평, 시유지 포함 500평 사용, 주차10대, 건평 68평 중 1층 요사 42평, 방4, 화장실3, 2층 대웅전 26평, 식당2, 실외화장실1, 산신각6평, 난방 심야전기, 지하석수 1일 150톤 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집기 일체 포함, 즉시 법회 가능
•시가이하로 7억5천에 양도함 (절충가능)

010-6425-8274

사 찰 안 내

•위치 : 부산 북구 백양산 아래
•청정도량 최상의 낙동강 뷰
•토지 48평, 건물 90평
•지하1층 34평 법당
•지상1층 22평
•2층 20평 및 3층 15평 요사채
•종교시설 운영, 토굴 활용 가능
•가액 3억 9500만원(협의 가능)

010-9881-736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풍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86호 | 16 | 전면광고

베를 짜는 북처럼 곧고 편안하게 서서
모든 악한 행위를 싫어하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무속인,법사,무당,일반인,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불사금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검색-손도사 자전 천기소설 운명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010-5270-8260
010-6785-113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불교무량법계종 (종교법인)

도반 수행자 모집
종도 모집
함께 모여 정진하실 분 찾습니다
위치: 대구시 동구 파계로 22길 7
010-4766-6358

범음·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사물 법고, 정근북, 송주북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 금륜사 법현 . 대진합장
• 주소 :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륜사
010-7579-8200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상속 · 증여 · 세금
보장자산
(밀착관리/비밀유지)
삼성생명 팀장 오은정
문의 010-9573-4180

탈종공고

•성 명 : 김정완
•법 명 : 승현 스님
•승 번 : 081-0594

상기 본인은 한국불교 태고종과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 하고자
탈종계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68(2024)년 6월 5일

상기 탈종승려 승현 스님 (김정완)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귀하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파계사

관음기도도량
파계사 원통전 보물 제1850호 지정



주지 현봉 법준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741(중대동)
전화 053)984-4550 팩스 053)985-7118
www.pagyesa.org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1+1 소비자가 ~~₩99,000~~ 60%할인
₩39,600 총 8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 리 통 증
무 릎 통 증
어 깨 / 목 통 증
손 목 / 발 목 통 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⑪ 우리나라의 찻그릇

中 제자기술 습득… 자체 찻그릇으로 발전

우리나라에서 차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대략 7세기인 통일신라 시기이다. 당으로 유학을 다녀온 선종 구법승들에 의해 전해진 차는 주로 부처에 대한 공양물로 사용돼 오다가 대렴(大廉)이 중국으로부터 차 종자를 들여온 시점(828)인 9세기 초를 전후로 차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제자(製瓷) 기술이 완성되지 못했던 통일신라에서는 중국의 월주요(越州窯)나 형요(越窯) 등에서 다완을 수입했다. 이 다완들은 육우(陸羽)가 〈다경(茶經)〉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체가 낮고, 측면이 직사선을 이루며 넓어지는 형태로서 덩이차(餠茶)를 자다법(煮茶法)으로 마실 때에 차와 차거품을 함께 마시기에 편리했다.

고려시대에는 제다(製茶)와 탕법(湯法), 다구(茶具) 등 모든 방면에서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는데, 고려 초기청자의 생산 기종 대부분이 다완이었다는 점은 중국에서도 천하제일이라 찬하였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자랑한 고려청자의 제작이 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서 비롯됐음을 시사한다. 특히 고려의 초기 청자는 육우가 예찬한 월주요 자기의 형태와 제자기술을 이식한 것으로 알려져 차 문화와 함께 양자 간의 연관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1123년 고려에 사신으로 온 북송의 서긍은 고려의 다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송에서 하사한 것 이외에, 상인들도 와서 (차를) 판매하기 때문에 근래에는 차 마시기를 제법 좋아하여 다구(茶具)가 훨씬 정연해졌다. 금화오잔(金花烏盞)·비색소구(翡色小甌)·은로(銀爐)·탕정(湯鼎)은 모두 중국 제도를 흉내 낸 것들이다.

– 서긍(徐兢)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중

위의 금화오잔(금빛 장식의 검은 잔)은 흑유잔을, 비색소구(비취색의 작은 사발)는 청자 다완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대 송에서는 단차의 새하얀 차색을 돋보이게 하는 건요의 감흑색 토호잔(兎毫盞)을 최고의 다완으로 여겼다. 고려 유적에서도 건요를 비롯한 중국제 흑유잔이 출토되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고려청자 잔들 중에는 흑유잔처럼 잔의 전면이나 외부를 검은 철 안료로 시유한 사례가 종종 나타난다. 이러한 청자 잔들을 살펴보면 그 형태나 비례가 단차를 점다하기에 기능적으로 특화된 흑유잔과 닮아있다. 아마도 청자 생산이 주류였던 고려에서는 청자를 사용해 단차를 마시기에 적합한 다완을 제작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고려 중기로 접어들면 기체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면서 잔에 깊이감이 더해진 형태의 다완이 제작되기 시작한다. 이는 다완에 찻가루를 넣고 끓인 물을 부은 다음 다시(茶匙)나 다선(茶筅)으로 휘저어 풍성한 차 거품을 만들어 내기에 유리한 구조이면서도 다완을 손으로 감싸 쥐거나 구연에 입술을 대었을 때 거슬림 없이 부드럽고 편안한 형태였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청자양각국화문완.

통일신라 중국 다완 수입 의존
고려시대 비약적인 발전 이뤄

이외에도 고려시대에는 차를 탕(湯)이나 약(藥)으로 기록한 바가 있는데, 이는 차를 가루 내어 마시지 않고 찻잎을 우려서 마시는 음다(飮茶) 방식의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청자 중에는 뚜껑이 있는 통형의 잔(有蓋筒形盞)이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종류의 차를 담아 마셨을 것으로 추정한다. 차를 가루 내어 섭취하는 자다법이나 점다법과 다르게 찻잎을 우려서 마시게 되면 향이 쉽게 날아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려시대에는 여러 종류의 차와 음다 방식이 공존하면서 그에 어울리는 다양한 형태의 찻그릇들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새 왕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회, 정치,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변혁이 이뤄졌다. 그 중 하나였던 숭유억불 정책과 함께 불교 승려와 고려 왕실을 중심으로 주도되어 온 차 문화는 쇠락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차 문화는 불교 승려들에 의해 잔존하여 명맥을 이어갔고, 차는 승려들과 학문적으로 교유하던 선비들에게 탐미의 대상이 되곤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의 차 문화를 재창하고 부흥시킨 다인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초의 선사와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이다.

잔은 설백색이 가장 좋고, 푸른빛이 도는 백색 잔도 차색을 손상시키지 않으므로 그 다음으로 친다.

〈다신전〉은 초의가 〈만보전서(萬寶全書)〉에 수록된 명대 장원(張源)의 〈다록(茶錄)〉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정리한 글이다. 초의 선사(1786~1866)는 역대 다서들을 연구함으로써 '초의차'를 완성하여 조선의 제다를 정립했는데, 이는 찻잎을 덖어서 만드는 '산차(散茶)'였다. 산차는 끓인 물을 다관(茶罐)에 찻잎과 함께 넣고 우려낸 다음 찻잔에 따라서 마신다. 때문에 명이나 청과 마찬가지로 맑고 투명한 차색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줄 수 있는 백자가 가장 좋은 찻잔으로 여겨진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선진의 차 문화를 동시대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를 내재화 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다. 차 문화 수용 초기에는 찻그릇을 수입에 의존해야 했지만, 이내 중국의 제자기술을 습득하여 자체적인 찻그릇의 생산을 이뤄냈다. 이는 주변의 다른 아시아 국가나 유럽 등에 비해 수세기를 앞선 독보적인 발전이었으며, 한국의 수준 높은 차 문화와 탄탄한 향유 층의 존재를 방증하는 것이었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㉒

1. 불교의 4대 성지 가운데 부처님이 처음으로 가르침을 설하신 장소는?

① 룸비니 ② 뉴델리 ③ 사르나트 ④ 붓다가야 ⑤ 쿠시나가라

해설 : 룸비니는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이며, 뉴델리는 인도의 현 수도이다. 사르나트는 바라나시와 묶여 말할 수 있는 근접지로 초전법륜이 일어난 곳이다. 붓다가야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곳, 쿠시나가라는 열반하신 곳이다.

2. 최초의 사찰인 죽림정사를 지어 부처님께 바친 사람은?

① 찟따 장자 ② 욱가 장자 ③ 빔비사라왕 ④ 수닷타 장자 ⑤ 나쿨라피타 장자

해설 : 빔비사라왕은 수행자이던 태자에게 부처님을 이루면 꼭 자신을 다시 찾아와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태자가 깨달아 부처님을 이루시고 나타나자 바로 사찰을 지어 기부하니 이것이 최초의 사찰인 죽림정사였다.

3.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게 하려는 것인데, 흔히 강을 건너는 것에 비유한다. 비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온갖 맹수와 위험이 도사리는 밀림을 헤매던 사람이 강가에 다다랐다. 강 건너편을 보니 넓은 들에 온갖 곡식과 과일이 풍성했다. 그곳은 갑자기 튀어나와 뒷덜미를 무는 맹수도 없고, 슬금슬금 목덜미를 기어오르는 독충도 없고, 손과 발을 할퀴는 독초도 없는 곳이다. 지금 겪고 있는 온갖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나려면 강을 건너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야 한다. 그러나 강물은 깊고 차갑고 거세게 소용돌이 친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강을 건너려면 튼튼한 배를 만들고, 거친 물살을 타는 지혜를 갖추고, 노를 부지런히 저어야 한다."

① 맹수와 독충은 삶의 고통을 비유한 것이다.
② 지혜로운 뱃사공은 수행자를 비유한 것이다.
③ 튼튼한 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유한 것이다.
④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는 것은 죽음을 비유한 것이다.
⑤ 깊고 세찬 강물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三毒)을 비유한 것이다.

해설 : 불교에서는 우리의 현실을 위와 같은 비유로 잘 설명한다. 특히 이 언덕에서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은 피안에 이른다고 하여 도피안(到彼岸)이라 하며, 인도말로 파라미타, 즉 바라밀이라고도 한다. ④와 같이 저 언덕에 다다랐다면 바라밀이 완성된 것으로 죽음이 아니라 열반의 성취를 비유하는 것이다.

4. 다음에 나타난 사상과 거리가 먼 것은?

훌륭한 미술가는 쓰레기 더미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지만, 안목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흐(Gogh)의 그림도 어린아이의 붓장난일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세하고 정교하게 연결된 세계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지, 마음 내키는 대로 허공에 선을 그어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① 이것과 저것은 본래 나뉜 것이 아니고, 나뉜 적도 없으며 나눌 수도 없다.
② 어리석음과 탐욕에서 비롯한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화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③ 둘로 구분 지어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사고방식은 끝없는 분열과 투쟁을 초래한다.
④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한쪽을 우선시해야한다.
⑤ 상대의 신념과 주장을 악이라고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의 악을 먼저 눈여겨 살펴야 한다

해설 : 불교의 대표적 실천인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正見), 즉 바른 인식이다. 바른 인식을 통해 세계의 참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불이(不二)의 인연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기에 이것과 저것은 본래 나뉜 것이 없으며, 이것과 저것이라는 둘로 구분지어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분열과 투쟁을 멈출 수 있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 남을 자신과 둘이 아니라고 보기에 상대의 신념과 주장에 앞서 자신의 악을 먼저 살피게 된다. 불이로서 바라보면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둘 중 하나의 취사선택이라는 것은 할 수 없다.

5. '나를 비운다'의 의미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나를 비워야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② 나를 버려야 하므로 나는 세상에 없어도 된다는 의미이다.
③ 어딘가 버려야 할 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버리면 행복하다.
④ 나는 발라드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러한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까지 버리는 것이다.
⑤ 나를 비운다는 것은 아집을 버린다는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고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설 : 불교에서 나, 자아 등은 임시적인 것으로 자동차가 바퀴와 차체와 문,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중에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과 비슷하다. 즉 나는 여러 인연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인연 중 하나만을 나라고 할 수 없다. 특히 나를 구성하는 인연 중 번뇌가 되는 인연인 아집(나에 대한 집착) 같은 것은 버려야 하며, 나의 일상생활 전반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린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정답 : 1. ③ 2. ③ 3. ④ 4. ④ 5. 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영적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빙의치유전문의'를 만나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숨기고 방치하지 마시고 빠른 상담으로 빨리 벗어나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신기운천도 전문 도량
금강경독송수행 전문도량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천수 감로수를 얻어가세요'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백련화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온데 이어 서울 봉천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투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감로수 보시합니다. 위, 간, 장 안 좋으신 분에 특효입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천수관세음보살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백련화스님)

장보배의 사찰국수기행 스님이 웃는다 ⑩ 명천 스님의 상추찔레 국수



▶한줄 요약
오목한 그릇에 상추의 잎만 4등 분하여 '田'모양으로 정갈히 담아주고, 그 위에 먹기 좋은 양으로 동그랗게 말아둔 국수를 차례대로 올린다. 물김치 국물을 넉넉히 따른 뒤, 아삭한 찔레순을 정갈하게 올려주면 완성.

소박한 국수 한그릇에 푸른 초여름 담아내다



명천 스님의 상추찔레국수
재 료 | 상추(500g), 찔레순 약간, 고춧가루/생강가루/소금(각각 1ts), 밀가루 풀국 (종이컵 1/3컵), 물 적당량.
만드는 법 | 1. 상추를 깨끗이 세척한 후 용기에 차곡차곡 담는다. 2. 분량의 양념과 물을 잘 섞은 뒤 상추/찔레순과 골고루 버무려 준다. 3. 실온에 하루 두면 물김치가 완성된다. 4.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보관한 뒤, 삶은 소면과 함께 내면 완성!

푸른 물 흐르는 땅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예로부터 물이 풍부하고 산세가 좋기로 이름난 이곳의 내력(來歷)은 이 고요하고도 단정한 고장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느낄 수 있다.

옛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안의버스터미널, 이곳에 도착한 여행자의 눈 앞에 펼쳐지는 것은 장대하게 흘러넘치는 푸른 남강이다. 수령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오리나무 숲이 강의 결을 지키고, 또 수백 년 동안 흐르는 강물도, 인간사의 쉼 없는 흥망 성사도 묵묵히 바라보았을 저 기세등등한 누각 '광풍루'가 반겨주는 이 풍요로운 땅. 한때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길목이자, 역참과 역말이 있던 교통요충지였던 이 땅의 과거는 오늘날의 고즈넉한 풍경과는 또 다른 빛이 머문다.

특히 이곳은 우리 농업사에 혁신을 일으킨 일대 사건의 진원지이기도 한데, 바로 연암 박지원이 우리나라 최초로 물레방아를 만든 곳이기 때문. 안의현감으로 발령을 받았던 연암은 자신이 중국에서 목격한 과학기술을 통해 조선의 농업기술을 개량하고, 고통받는 백성의 삶을 구제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는 곧 조선 전역으로 퍼져 노동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시대 18품계 가운데 고작 종육품의 말단기관장이었지만, 평생 민중의 삶에서 눈 돌리지 않았던 연암의 애민정신이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 땅 깊은 산자락에는 아직도 오래전 그 날의 물줄기와 같은 푸른 강물이 흐른다. 그리고 연암의 모습과 닮은 한 수행자가 이곳에서 또 한 번 여여(與與)한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연암의 애민(愛民)이 그러했듯, 온 삶을 통해 자신의 쓰임을 실천하는 수행자. 바로 명천 스님이다.

구름 향기 머무는 곳에

"어서 오세요, 오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울도 담도 없는 산중 도량, 점심 공양 시간이 다 되어서야 겨우 오른 이곳에서 명천 스님을 만났다. 첫눈에 들어온 것은 뜨거운 햇살을 등에 지고, 한 소쿠리의 감자를 손질하고 계신 스님의 모습. 돌아보니 이런저런 초록이 가득



심어진 채마밭이 저 멀리 한참이다.

물 깊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용추계곡, 그리고 그 곁에 자리한 고적한 암자 향운암(香雲庵).

이곳의 암주(庵主)이자, 다양한 불교예술 분야의 장인으로 명성이 높은 명천 스님. 하지만 그 유명세에 비해 잔잔한 스님의 목소리와 슬며시 배어 나오는 웃음은 너무나 맑고 다정하다. 푸른 물, 푸른 숲과 오랜 시간 어우러지면 사람마저 푸르러지는가 싶을 만큼.

스님의 국수를 만나러 먼 곳을 찾아왔지만, 그 전에 명천 스님만의 특별한 이력을 빼놓을 수는 없다. 스님은 '그림을 배운 적이 없었으나 그림을 그리고, 바느질을 배운 적이 없었으나 가사(袈裟)를 짓는 수행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미 지난 2009년 전통 가사 '복전의'로 불교미술대전 최고상을 수상한 장인으로, 또 가사원의 편수(片手, 불사의 책임자)이자 국내에서 불교의 전통가마 '연'을 제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로 손꼽힌다.

그 무엇도 정식으로 교육을 받아본 적 없다. 하지만 사찰음식과 꽃꽂이, 서예, 회화, 목조각, 염색과 옻칠까지 스님의 손닿는 곳마다 피어나는 아름다운 세상. 아무리 깊은 산중에 있어도 그 빛이 가려질 수는 없는 법. 알음알음 소문난 스님의 솜씨는 다양한 방송 매체를 통해 여러 번 소개되었는데, 그중 단연 화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스님의 음식 솜씨다.

스님들의 국수 이야기를 찾는다며 염치없이 한 그릇을 청한 이에게 그저 이곳으로 오라, 반겨주신 명천 스님. 오늘 스님이 준비한 국수는 산도, 물도 푸른 이 계절과 잘 어울리는 맛. 바로 향운암의 여름을 책임지는 '상추찔레 국수'다.

초여름을 닮은 맛

"상추찔레 국수는 이제 제철이 시작됩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먹기에 좋거든요. 텃밭에 있는 상추를 한 번에 다 먹기는 어렵지만, 상추 물김치를 담으면 버리는 것 없이 잘 먹을 수 있어요. 또 찔레는 봄에 부드러운 줄기가 올라오는데, 시기가 조금 늦어도 먹을 수 있으니 잘 골라와서 같이 김치를 담습니다."

유독 국수를 좋아하셨던 은사스님(성수 스님/조계종 전계대화상, 1923~2012)을 모시며, 명천 스님의 국수 레시피도 타래처럼 술술 쌓인 터다. 그중에서도 은사스님께서 유독 좋아하신 국수가 바로 이 물김치 국수였다.

날씨가 더워지고, 상추 자라는 속도가 먹는 것보다 빨라지면 상추 물김치를 담아야 할 때. 풀 국에 생강과 고춧가루만 조금 넣고 훌훌 저어 갓 딴 상추 한 동이에 부어주면 끝. 산에서 채취한 찔레순을 함께 넣고, 하루만 지나면 밤새 시원하게 익어 신통한 맛을 내는 것이다.

"예전에는 찔레 순이 올라오면 그걸 꺾어서 간식으로 먹었어요. 껍질을 까서 먹어보면 약간 떫기도 하고,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찔레로 김치를 담으면 약간 배릿한 특유의 향이 나지요."

스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상추 물김치 통을 여는 순간. 상쾌한 향기가 사방에 터진다. 김치라기보다 상큼한 주스에 가까운 향기, 염치도 없이 침을 꼴깍 삼키게 하는 그 초록의 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다시 눈을 사로잡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국수 담음새!

오목한 그릇에 상추의 잎만 4등 분하여 '田' 모양으로 정갈히 담아주고, 그 위에 먹기 좋은 양으로 동그랗게 말아둔 국수를 차례대로 올린다. 물김치 국물을 넉넉히 따른 뒤, 아삭한 찔레순을 정갈하게 올려주면 완성. 함께 곁들인 찬은 아까 스님께서 열심히 손질하신 돼지감자로 만든 고소한 전이 올랐다. 오래전 은사스님께 공양을 올리던 그 모양새, 그대로다.

"은사스님께서 국수가 양이 많다 하실 때가 있어요. 크게 한 번에 담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 담으면 원하는 만큼 적당히 덜어 드시기에 편합니다."

낯선 이를 향한 미소도, 자비로운 한 그릇 공양도, 먹는 이를 생각하여 담는 정성까지. 모든 것이 여여하게 느껴지는 순간. 문득 이 소박하고 향기로운 국수 한 그릇이 만든 이를 닮았구나, 싶어 고개를 숙인다.

나의 쓰임을 발원하다

"뭐라도 해놓으면 후대의 사람들에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스님께 '가사 불사'의 시작을 묻자, 단번에 담박한 답이 전해진다. '우리 것 중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전국을 다니며 자료를 수집하고, 고불서와 탱화를 보며 과거에 존재한 실체를 찾기 위해 애썼다. 장인을 찾아 배움을 청하고, 국내는 물론 외국의 가사를 비교해 가며 한국불교만의 가사 제작 기술을 찾아온 시간이다.

"군대를 다녀와서 깨달았어요. 나는 참선도 많이 못 하고, 학식이 풍부해 설법을 잘해서 중생을 교화하는 일도 어렵겠구나, 하고요(웃음). 그러니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노력을 해보자 싶었지요. 뭐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스님 손은 거칠다. 홀로 암자를 돌보고, 땅과 씨름하며 삶을 일군 흔적이 고스란히 손에 남았다. 혹여 거친 손으로 귀한 천에 생채기를 낼까, 손가시들이 겨우 가라앉는 겨울이 되면 그제야 손끝을 단정히 하고 바늘을 잡는다는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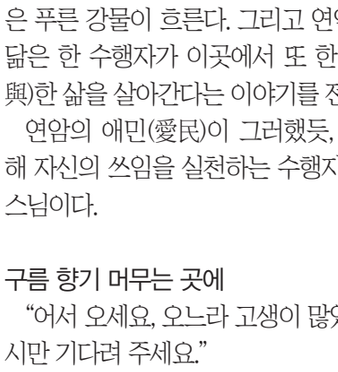
"우리 도반스님 중에 아주 유명한 강사스님이 계세요. 그런 스님들은 참 또렷이 포교를 잘 하고, 또 후학들을 잘 지도하는구나, 싶지요. 그런데 나는 너무 촌스러운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웃음). 하지만 내가 이런 모습을 너무 부끄러워 말자, 속으로 생각해 봐요. 큰 계획은 못 세워도, 제 솜씨가 1인자는 못되어도 그냥 열심히 해서 누구한테라도 도움 되기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푸른 강물은 끝내 한 길을 향해 흐르는 것. 오래전 연암의 바람이 그러한 것처럼, 자신의 쓰임을 기원하는 스님의 마음이 길이 되어 흐른다. 끝내 저 큰 자비의 바다가 되어 흐른다.

〈작가〉

사찰에 난무하는 눈탱이!

삭발에 가사장삼을 입은 스님을 보는 일반업자들의 시선들! .... 세상 물정에는 좀 어두운분들이겠거니 하며 눈탱이 염불시설들로 가득채움 눈탱이 : 속은 비어있는 그럴듯한 동남아 부품으로 가득채워 바가지를 씌우는 시설업자들의 비속어로 스님들은 여기에 거의 속음


눈탱이 시설의 표본

눈탱이 시설의 결점

1. 다루기 복잡하여 고장이 잘남 (A/S 불가)
2. 복잡한 기능으로 소리 기능이 분산되어 저질소리
3. 또한 염불이 힘들면 성대 질병과 스트레스 누적
4. 법당서 본사 견본과 법당 제품과 양손의 마이크로 스님 자신이 성능비교시 장난감 소리차이 확인

■ 본사 제품 : 마이크는 이태리 숍스제품, 디지털앰프 스피커는 MADE IN KOREA 확인

※ 특징 : 앰프 다루기 1초, 남해의 토굴부터 설악 신흥사 설법전까지 2천여 시설동안 단 한곳도 고장이 없었음. 명산대찰의 수천만의 시설과 소리비교시 장난감 성능차이(반드시 확인) 가격 기존시설과 1/3 차이 확인, 앰프 스피커 최신디지털

▣ USB겸용 디지털앰프 법당스피커 2개, 법당 밖 스피커 2개,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시설가격 190만원부터~ 무한대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시중에 없음

가격 ₩89만원


최신 디지털 앰프 USB겸용 유·무선겸용 마이크 4개 동시사용
출력 3kw 대형스피커 12개까지 연결가능

염불전용스피커
장엄하고 은은한 소리재생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가격 ₩89만원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윤인수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대행 스님

항상 겸손하고 남을 깔보지 말며 벌레 하나도 자기로 알라

우리가 역대에 내려오면서 사람 되기까지 얼마만큼 억겁을 거쳐 오면서 이렇게 사람이 됐겠습니까? 지금도 내가 저기 오다가 극장이나 이렇게 간판 붙인 걸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지금 애들이나 어른이나 극치적인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건 왜? 사람을 그냥 막 피를 빨아 먹고, 또 그 뭐야, 신나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저 억겁으로부터 거쳐 오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 온 습이 아직까지도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걸 좋아하거든.

그런 극치적인 영화를 좋아하고 극치적인 그 산란을 좋아하는 거는 반드시 그러한 잠재해 있던 것이 그걸 보는 순간 그런 게 좋단 말야, 극치적인 거. 평면으로 이렇게 무미하게 돌아가는 것은 뜻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습이 아직까지도 꼭지가 덜 떨어져서, 꽁댕이는 없어졌는데 꼭지가 덜 떨어졌죠.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둘로 보지 말라. 안으로 굴리지 않는다면 보살이 아니니라. 깨쳤다 하더라도 안으로 굴리지 않고 바깥으로 도는 자, 이 법문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느니라. 이 법문을 제대로 전달을 못 함으로써 공덕은 하나도 없고 보살이 아니니라. 이 몸으로, 모습으로, 이름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고, 이 모습으로, 이름으로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자식의 마음을 알 수 없고, 부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일체 만물의 유생 무생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굴릴 수가 없느니라. 제도할 수도 없느니라.

제도했다고 하느냐? 제도를 했다고 하지 말라. 본래 둘이 아니기에 제도한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느니라. 그대로 마음으로 굴리면서 항상 따뜻한 마음을 내 주면 되느니라. 따뜻하게 둘로 보지 않는 마음, 남이 아프면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내 준다면 그것이 바로 네 아픔과 둘이 아니니라.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요, 진짜 들어가서는 인간의 마음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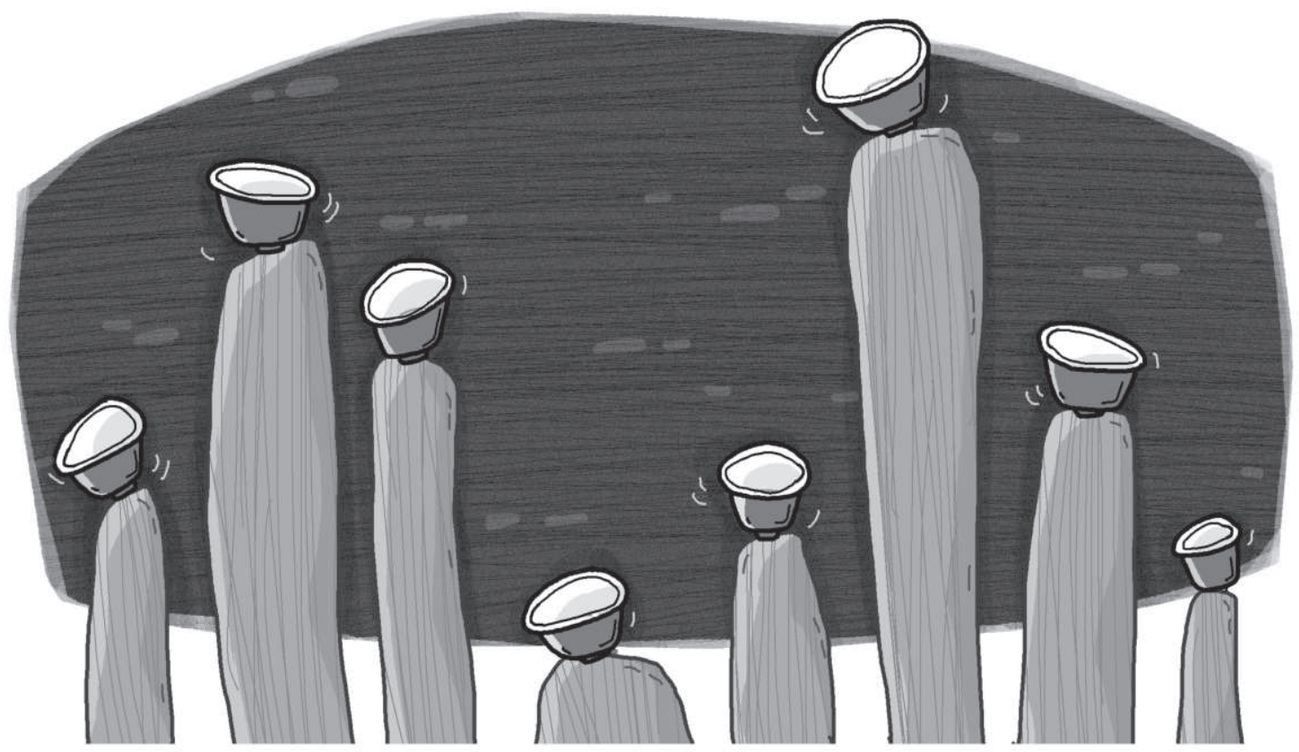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인간이라는 것도 이름이요, 부처라는 것도 이름이니라. 여래라는 것도 이름이요, 다 이름이니 그 이름을 가지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 이름 속에 소중한 것이 있느니라. 그 모습 속의 소중한 것을 발견하라. 발견하기 위해서는 안으로 보림을 하면서, 항상 그 안으로 굴리면서 거죽으로 나타내지 말고 경솔하지 말고 또한 항상 겸손하게, 남을 깔보지 말 것이며 벌레 하나를 본다 할지라도 너로 알아라. 저 꽃이파리 저 나무 이파리, 무정물이나 하다못해 돌 하나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이 아니니라.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도 지, 수, 화, 풍으로 뭉쳐서 바람과 흙과 물 이 모든 것이 한데 합쳐져서 큰 성을 이루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구라는 집이 됐고 대천세계라는 집이 됐고 중천세계도 있고 하천세계도 있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는 것이 전체가 아닙니까? 당장 우리 살아나가는 데에 물이 없어도 아니 되고 불이 없어도 아니 되고 흙이 없어도 아니 되고 바람이 없어도 아니 됩니다. 그럼으로써 사대가 공해서 태양이라는 그 자체의 따뜻한 그런, 보람 있는 밝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역시 그러한 밝음이, 우리를 전부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밝음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한마음 그 한 점의 근본이 태양의 근본도 될 것이요, 천지의 근본도 될 것이요, 우주의 근본도 되니 그 어디에도, 이 오온에 스스로 밝아서 돌고 스스로 밝아서 걸릴 게 없는데 어찌 이 오온에 칠보가 가득 차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아니 닿는 데가 없거늘 사람들은 모습과 이름을 칭하고 자기의 삶을 거기에서 취하려고 하니 그것이 가는 곳마다 걸려. 그 걸리는 것을 언제 어느 때에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부처님이라는 이름도 이름인 것입니다. 그것은 똑바른 참사람, 참사람이라는 것이 부처님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사람 되려고 욕심을 부리지도 말고 또는 참사람 아니 된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오직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한 점의 공한 자리에, 공한 데서 나오는 거 공한 데다 다시 놓는다면, 다시 맡겨 놓고 믿음을 진실하게 갖는다면,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바로 거기에서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알게 되고, 그때는 부처님의 마음도 모든 중생들의 마음도 모든 걸 다 알게 되며 남한테 해하지 않는 마음, 둘로 보지 않는 마음이 됩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 헐고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것이 몰락 없는, 높고 낮음도 없고 부처 중생도 없는 그러한 한 점의 내놓을 게 없는 이런 빈 그릇 자체가, 바로 우리가 찰나찰나 나투면서 밝게 비추어 주는 손 없는 손이요, 발 없는 발이요, 길 없는 길이라. 평이마요, 평손이요, 평발이요, 이것이 바로 한 손 들어서 천지를 삿갓으로 쓰고 한 손 들어 해와 달을 꿰어 굴리면서, 한 발 들어 이 산 저 산 푸른 산 한 발 디디니, 목 마르면 물 마시고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다는 말이 얼마나 참사람의 마음이겠습니까?

참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물 한 모금 떠 마실 때, 여러분이 목마를 때 '물 먹겠다' 하고 계산하고 먹습니까? 무심으로 그냥 떠 먹습니다. 그게 바로 참사람의 활용이야. 여러분이 금을 가졌다면 그걸 얼른 내놓지 않겠지만 걸레를 빨아 쥐었다면 빨리 내던질 겁니다. 빨리 빨아서 얼른 짜서 놓습니다. 금을 가졌더라도 빨리 짜서 걸레 놓듯 하십시오, 신발 벗어 놓고 올라가듯. 아시겠습니까? 금을 가졌다고 해서 이걸 소중히 생각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관리인만 되라는 얘깁니다. 착을 두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분수를 알고 살고, 건너뛰지 못할 걸 건너뛰다가 개천에 빠지지 말고, 구덩이에 빠지지 말고 서서히 침착하게, 산이 태산같이 이렇게 있으면 서서히 돌아가고, 구덩이가 있으면 구덩이를 채우고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침착하게, 어떠한 악조건이 닥친다 하더라도 안으로 굴리면서 그 자기 주인공 한 점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서….

거기서 나온 거니까. 자기로 인해서 나온 거니까, 악조건도. 자기로 인해서 악조건이 나온 것이지 딴 사람으로 인해서 나온 건 아니거든. 잘못했든 잘했든 자기가 있으니까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고서 한번 안으로 굴려서 바로 다시 놓는 그런 그 침착한 마음, 그리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둘로 보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스스로서 수레바퀴 돌듯 해, 시간과 공간도 없이.

이것이 참사람의 법입니다. 부처님의 법이라기보다도 참사람의 법을 알아야 부처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누구의 원망도 탓도 하지 마시고 안으로 굴려 놓으세요

☞ 19면에서 계속

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도 알 것이요, 한마디 한마디 해 놓으신 그 뜻을 우린 지금 현실에 맞추어서 현실의 용어로, 그때에 방편으로 쓰던 것을 현실의 방편으로써, 언어로써 이렇게 대치해서 그것을 서로에게 이득이 되고 공덕이 되게끔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악조건의 그 구정물, 핏물, 고름물 전부 한데 합쳐서, 한데 새겨서 말갛게 만들어서 생수 물을 해서 떠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한 방울의 생수가 아니라면 이건 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처님의 그 뜻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한마디 같이 안 해도 같이 오고 감이 없이 전달이 되고, 미국이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한번 말만 들었다 하면, 그 마음만 내면 서로 전달이 되고, 돌하고도 전달이 되고 돌하고도 말을 하게 되고 일체 만물과 더불어 같이 서로 말을 하고 서로 듣고 서로 공생하고 공체로서 돌아가는 조화를 이루니 그것이 바로 보살이며 부처이며, 그것이 인간이며 그것이 법신이며, 보신이며 화신이며 용왕신이며…. 용왕신이란다고 용왕신 따로 있고 모두가 따로…. (녹음 안됨)

왜, 여러분 배 속에는 청룡 황룡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배 속에도 바로 청룡 황룡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어요. 정맥 동맥이 꿈틀거리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하나 움죽거리는 게 용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삼각원형을 이루고 돌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부처를 자기한테다 두고 자기 몸뚱이는 탑돌이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변소에 들어가면 부처가 없습니까? 법당에 들어가야만 있고, 법당의 형상만 부처고 자기 형상은 보지 못하고…. 그 형상이 자기 형상이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요, 모두가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아마도 그 부처님 마음이 바로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을 부처가 알고 부처가 아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으니 자기는 껄껄 웃을 겁니다. 한번 하늘을 쳐다보고 웃고 한번 땅을 내려다보고 눈물을 흘려서 자비로 이 만물을 다 양식으로 적셔 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반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날까지 살면서 '부처가 된다. 내가 위대하게 돼야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사람은 어디까지나 지옥을 거치지 않는다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듯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경험 안 해 본 것은 아픈 줄도 몰라. '아! 남이 그렇게 아팠다더라.' 이런 정도지, 그렇게 실감나게 아파 보지 못해. 어디고 한 번씩은 다 들어가서, 물 속에 빠져 보기도 하고, 불 속에 뛰어들어 보기도 하고, 떡 그릇에 엎드려져 보기도 하고, 번연히 알면서도 엎드려져 보는 그러한 패기가 있어야 하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이 공부는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비구 비구니가 따로 없고 여자 남자가 따로 없고 애 어른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적부터 어른입니까? 어른 된 지 며칠이나 되십니까? 또 애 된 지가 며칠이나 됐습니까? 허허허…. 우리가 옮겨 갈 뿐이지, 모습을 바꿔서 옮겨 갈 뿐이지 죽는 게 아니다. 그래서 생사윤회에 걸리지 말라. 본래 온 게 없기 때문에 본래 갈 것도 없어.

> **산이 태산같이 이렇게 있으면 서서히 돌아가고**
> **구덩이가 있으면 구덩이를 채우고 물이 흐르듯이**
> **이렇게 침착하게, 어떠한 악조건이 닥친다 하더라도**
> **안으로 굴리면서 자기 주인공 그 한 점에 모든 걸 맡겨 놓으세요.**

이 모두를, 이렇게 된 상황을 잘 아신다면…, 사량으로만 알고 이론으로만 알아서도 그 속의 근본을 몰라서 자비가 나오질 않아. 스스로 자비가 나와야 할 텐데 스스로 자비가 나오질 않으니까 가상적으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니 그게 되나? 가다가다가 그냥 그것은 어디로 가 버린 채 금방 자비를 냈건만도 그건 말뿐이었지, 이론뿐이었지, 돌아서면 그냥 도둑놈이야. 여자 남자를 막론하고.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면서 먹을 줄 알아야 하고, 먹으면서 쌀 줄 알아야 되고, 싸면서 잘 줄을 알아야 한다. 이건 끊임없는 길을 말하는 거죠. 자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그 공한 한 점에서 나오는 거 한 점에다 다시 맡겨 놓는 작업을 하는데, 습이 다 떨어져서 녹아 버리니까 그만 푹 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푹 쉰 사람이, 빈 그릇이 된 그 사람이 만약에 이 모든 법을 굴린다면 하나 깔축없이, 걸림 없이 굴릴 거라 이겁니다. 담았다 꺼냈다 담았다 꺼냈다 해도 항상 그릇은 비어 있을 테니까.

그러니 그렇게 담았다 꺼냈다 담았다 꺼냈다 하는 게 아니라 담으면 싸 버려. 담으면 싸고 담으면 싸고. 싸면서 또 자. 이 세 가지의 뜻에 우리가 평생을 배워도 못 다 배우는 진리가, 근본이 거기 들었어요. 자고 먹고 싼다 하는 그 세 마디에 다 들어 있다 이거야, 부처님 법이.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진짜로 나는 여기를 믿고 다닙니다. 나는 공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를 자기가 못 믿어. 자기를 자기가 못 믿고 자기가 자기 부처를 못 믿고, 자기 형상만 보고서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못 믿어. 자기 그 공한 빈 그릇을 모르니까. 고정된 게 어딨다고 그게 비지 않았다는 겁니까, 모두가. 자기가 어디 있어? 어떤 사람 만날 때 자기라고 할까? 남편을 만날 때 자기라고 할까, 부모를 만날 때 자기라고 할까, 자식을 만날 때 자기라고 할까. 순간순간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는데. 그러니 공했다는 건데, 그 공한 데서 그렇게 무수히 나오는 그 자체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니 거기다가 맡겨 놓고, 자기는 거기서 형성된 거니까 그대로 공부하다 보면 자기 마음과 실상이 그대로 사람이라는 게 나와요, 그대로.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랬지마는 "이 32상이 아무리 구족하다 할지라도 32상, 모습으로다가 부처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수보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디다. 요새 노란 뭐, 이런 책을 모두 가져왔습디다. 난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항상 말하는 뜻도 거기에 다 있어. 나는 그거 보지도 않았지만. 마음이 다 각각 있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의 마음이나 우리들의 마음이나 똑같은데 그만 그 안팎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으로는 부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부처님이 여러분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수보리라는 이름을 지어 놓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49년 동안이지만 그분은 한 번도 한 새가 없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49년을 설했느냐, 안 했느냐?" "한 새가 없으십니다." 그랬을 거야,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응?

우리가 진실로써 남을 사랑한다면 물질을 주는 것보다도 내가 한생각을 내서 무주상 보시 해 주는 것이 길을 밝혀 주는 일이요, 암흑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그래서 그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탁발을 하러 나가는데 바리때를 들고 집집마다 돌게끔 돼 있었죠. 가난한 집을 들르다 보니까 보리쌀 끓인 물 한 바리때를 얻었거든. 그걸 마시고 불쌍해서 나무 한 짐을 해다가 줄 양으로 나무를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산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놈아!" 작대기를 가지고 그냥 아랫도리를 내리갈기면서 하는 소리예요. "한생각에 무주상 보시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무주상 보시를 할 줄은 모르고 이 나무 한 짐, 후르르 태워 버리면 없을 것을 이것도 보시라고 이놈아, 지고 내려왔느냐!" 하는 거거든. 이것도 보시라고, 응?

여러분이 돈 한 푼 두 푼 가져오는 거, 이걸 능사 삼지 마세요. 마음이라면, 마음이라면 아마 몇 억을 갖다가 놓는다 할지라도 마음 한생각보다는 못해. 그래서 물질을 갖다 놓더라도 함이 없이 하는 것은 수미산만큼 공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마음이지 종잇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다못해, 세상의 어느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가져갈 게 없다." 하니까, "여보 당신, 그 말 마오. 가져갈 게 얼마나 많은데 가져갈 게 없소? 당신은 그런 것만 알지 마시오. 나는 지금 내 저녁밥 쌀을 가져가오." 하니까 아, 저녁 먹을 쌀을 가지고 간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당신 미쳤소?" 하니까 "글쎄!" 하더랍니다. 그것이 자기 저녁 먹을 쌀을 가지고 간다는 게 기특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자신이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만만하기 때문에.

그러니 거긴 뭐가 들었을까요? 저녁 굶을 그러한 졸장부는 아니거든. 당당하니까. 저녁 먹을 쌀을 가져가도 당당하니까 가져가는 거야. 이런 당당하고 도도한 마음이, 스스로서 물 흐르듯 흘러 도는 그런 마음이, 그런 자비와 사랑, 무주상이 아니라면 내가 무주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할 건가? 일일이 따진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오늘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생활을 하시면서도 누구의 원망도 탓도 하지 마시고 항상 안으로 굴려서, 자식이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렇고, 또 잘못 나간다 할지라도 그렇고,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고 항상 내 마음 안에,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다가, 바로 그 공한 거기에다가 모든 걸 맡겨 놓는다면 그 길이 수월하게 밝혀지면서 가환, 우환, 병고, 액난이 다 스스로 녹아져 버려. 한 번 두 번 스님한테다 얘기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대로 그거 녹아져 버려.

어딜 가나, 자나 깨나, 낮과 밤도 없어. 이 도리에는 꿈도 생시도 없는 것이라. 낮과 밤도 없어. 동 서도 둘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잘 적에도 나를, 길을 인도하는 당신께서, 당신! 바로 이 몸도 당신, 이 실상 자체 마음과 더불어 육신 자체, 모두 내고 들이는 게 당신이야. 그러니 당신이 나를 잘 이끌어서 나의 이 사량적인 분별을, 모든 거를, 길을 밝혀 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관하고, '참 당신은 도대체 내가 알 길이 없으니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관하세요. 화두를 잡고 화두를 쥐고 그러지 말고.

이게 화두라, 이게. 내 공한 몸뚱이가 화두니 그 몸뚱이에서 나오는 거 몸뚱이에다 다시 놓고 믿고 거기에다가 모든 걸 놔요. 그런다면 자기가 억겁을 거쳐서 나온 그 습, 종 문서는 몽탕 타 버릴 테니까. 내 놓을 수 없는 원자력이거든. 자력이 돼서 그냥 닿기만 하면, 갖다 놓기만 하면 타 버리는 거라. 그래서 자기 눈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눈물이 스스로 흐르게 되고, 그 흐르게 되는 눈물은 바로 그 습의 업이 그대로 녹아 버리는 거라. 다 녹는 거라.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6년 5월 20일 일반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부처님 가르침인 '佛法'을 보시하는
법보시 공덕은 보시 공덕 중 으뜸입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김영애 법사의 안심뜰

⑪ 나 먼저 돌아보기

상대를 바꾸려고 에너지 허비 말자

"오늘 우리는 새로이 태어났고, 지금 이 순간도 새로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고정돼 있어서 밥을 먹고 책을 읽고, 108배를 하고 금강경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 조건들이 화합되어서 매순간 변화하며, '지금 이 순간 이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결과를 '나'라고 이름할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변화는 세상이 우리를 살려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늘 그렇듯이 그날도 이 같은 멘트와 함께 공부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찬탄하며 합장례로 아침 공부를 시작했다.

수현님(가명)은 '마음에 너무나 못마땅한 상대방을 바꾸려는 마음이 아상이다. 남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바뀌어야 한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내가 바뀔 때 이웃이 바뀌고, 내가 바뀔 때 가족이 바뀐다'는 구절을 읽으며 이런 질문을 던졌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상대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싫어요. 싫어한다는 걸 드러내놓고 말로 티는 안 내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으로 표현되고 거리를 두게 되니,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걸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격이 덜 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놔두면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치며 살 텐데,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래요. 사람을 대할 때에 좋으면 확실히 좋다, 나쁘면 나쁘다는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요. 특히나 자기 욕심만 챙기는 시누이들을 보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앞으로 안 보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겉으로 얼굴에 다 드러나요."

함께 공부하는 경희님(가명)이 수현님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이렇게 공감했다. 그러자 미정님(가명)도 말을 덧붙였다.

"저는 상대방을 봤을 때 내 기준으로 해서 인격이 있다 없다를 얘기해오다가 어느 날 제 자신이 그 기준에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기준 삼았던 것에 내 자신이 못 미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로는 사람을 봤을 때 그 기준이 없어진 상태로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금강경 공부에서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고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아상이 밑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대목에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아예 안 보겠다 하는 사람은 고치겠다는 생각 자체도 없이 외면하고 모르쇠 했지만, 고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에겐 늘 부딪히며 상대방을 지적하는 말을 반복했는데 저를 낮추게 된 거죠."

못마땅한 대상에 스트레스 받는 나
내가 상대방 고치겠다는 아상 때문
내 마음부터 점검해야 평화로워진다

잠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틈을 주며 숨을 고른 미정님이 말을 이어갔다.

"이제는 상대방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없어졌고 그런 말을 안 하게 됐어요. 남이 아니라 저를 자꾸 보게 되니까 남을 고치려는 말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해서 떠올리기만 해도 싫고, 직접 대면하는 건 더욱 싫은 사람이 있을 땐 모른 척하거나 말을 안 하거나 아예 안 보거나 하는 식으로 살아왔는데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는 '나의 참생명이 부처님생명'이고, '부처님만 있는 세상'이라고 법문을 들으니, 상대방도 부처님으로 보는 마음 말고는 뾰족한 해결법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맞는 말씀이다. 이 세상엔 온통 부처님밖에 안 계신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내 눈에는 고쳐야 될 사람으로 보이지만, 미정님처럼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보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모습으로서 그 사람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인연이 저렇게 드러나고 있구나' 할 뿐이다.

마음속에 고쳐야 될 네가 보인다면,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나'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아상을 보아야 한다. 내 눈에 인격이 모자라 보이고 나쁜 짓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대에게 소중한 생명의 에너지를 허비할 게 아니라, 나라는 아상을 보고 내 마음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나의 마음부터 점검해서 내 안의 아만심을 먼저 해결하는 자세'로 산다면 세상은 더 평화로울 것이다. 남 탓하지 않고 자신의 할 일을 잘하고 내가 먼저 밝아지는 공부를 해가는 이 시간이 소중하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을 쉬고 가장 빠른 길인 나를 바꾸는 공부를 해보자. 그러려면 우리는 법문을 들어야 한다. 진리에 대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나를 비추어 보고 내 마음을 바꿔가는 문사수(聞思修)의 지혜를 닦을 때 우리의 일상이 연꽃으로 피어날 수 있다. 내 눈에 거슬리는 분이 있다면, 내 안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점검하라고 오시는 분임을 놓치지 말고 나무아미타불로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길 바란다는 축원으로 공부를 마쳤다. 나무아미타불!

(금강경법문 공부문의 bowon9@hanmail.net)
〈문사수법회 법사〉

건강 365

⑱ 뇌종양

비극 주인공 안 되려면 '치료시기' 놓치지 마세요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눈물의 여왕〉 여주인공 홍해인은 뇌종양으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독일의 암센터를 찾는다. 영화 〈P.S 아이 러브 유〉의 매력 넘치는 남자 주인공 제리는 홀리에게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라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지만 뇌종양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화나 드라마 속의 '뇌종양'은 불치병의 상징이며 비극을 암시하는 주된 소재로 흔히 사용돼 왔지만 통계자료를 보았을 때 1년에 10만명 당 10명 정도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는 드문 종양이며 발생 순위도 앞쪽보다는 맨 뒤에서 찾는 것이 빠르다. 예후 역시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실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접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뇌종양의 분류

뇌종양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치료 후 "저는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라고 문의를 한다. 이유는 모든 뇌종양이 뇌암은 아니기 때문이다. 뇌종양은 보통 암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국제질병분류 기호 D로 시작되는 양성 뇌종양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호 C로 분류되는 악성 뇌종양으로 구분된다. 악성 뇌종양 중 가장 흔한 경우는 신체의 다른 암이 뇌로 전이되어 발생하는 전이성 뇌종양이며 신경 교종이 그 뒤를 따른다. 양성 뇌종양으로는 뇌수막종, 청신경초종, 뇌하수체샘종 등이 있다.

뇌종양은 몸에 생긴 다른 종양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뇌종양은 폐나 뼈 같은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거의 없으며 전이가 있다고 해도 환자의 예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폐암이나 유방암 같은 신체 장기의 다른 암에서 치료 방침이나 예후 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1기부터 4기까지의 병기(stage)란 분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세계보건기구에서 분류한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등급(grade) 체계를 사용하며 등급이 높을수록 악성도도 높아진다. 1등급은 양성, 2등급은 경계성이나 악성, 3과 4등급은 악성에 해당된다. 신경 교종이나 뇌수막종 등 일부 뇌종양의 경우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재발되었을 때 1내지 2등급에서 더 악성도가 높은 3내지 4등급으로 재발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1년에 10만명 중 10명 발병하는 희귀 종양
새벽 · 아침 두통 지속되면 병원서 검사를
인터넷 정보 맹신 말고 전문의 치료받아야

뇌종양의 진단

뇌종양의 가장 흔한 증상은 두통과 뇌기능 저하이며 이러한 증상은 1~2시간 혹은 하루 이틀 지속되다가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수일 내지 수개월 이상 지속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뇌종양 환자의 약 70%에서 호소하는 두통은 피곤할 때나 오후에 심해지는 다른 두통과 달리 장시간 누워있는 새벽이나 아침에 심하며 자고 일어나도 두통이 호전되지 않으며 오심과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두통이 수일 이상 지속된다면 뇌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뇌종양에 의한 뇌기능 저하 증상은 종양의 종류보다는 종양이 뇌의 어느 곳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무증상부터 치매나 간질 발작, 마비나 언어 장애 등 매우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환자가 임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있다면 전산화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검사 결과 뇌종양이 의심되면 조직검사가 필요할 수 있지만 모든 경우 수술을 통한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추적 검사를 해보면 일부 뇌종양은 자라지 않거나 자란다고 해도 1년에 1~2㎜ 이하로 자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상 검사 후 의심되는 종양의 종류나 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일정 간격으로 영상 검사를 하며 추적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발견 당시 종양이 커서 증상을 유발하거나 신경 교종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환자들은 잘못된 인터넷 정보나 비전문가의 말만 듣고 뇌종양으로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두개골을 절개하는 개두술을 받아야 한다고 오해를 하거나 수술을 받을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고생한다고 믿고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 검증도 되지 않은 대체 치료가 좋다는 등의 잘못된 인터넷 정보만 믿고 병을 방치하거나 검증되지도 않은 방법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낭비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대한뇌종양학회에서는 국내외 최신 지견과 우리나라의 의료 상황을 고려해 뇌종양 환자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환자가 뇌종양을 진단받았을 때 뇌종양을 전공한 신경외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다면 국내 어느 곳에서나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양승엽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신경외과 교수



전법 일기

열심히 정진한 부처님法 교법사로서 회향이 목표

정식 교법사로서의 일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넘었다. 일반 중·고교 도덕·윤리 교사 9년, 미국 한인 사찰 국제포교사 2년, 사찰 종무원 5개월 경험 덕분인지 예상을 뛰어넘는 일은 없었다. 다만 교법사라는 자리가 전법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며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낼 것이 요구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일반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이면서도 부처님 법을 전해야 하는 법사이고, 또 학생들 포교와 교직원 전법을 동시에 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 학원 수석법사님과 108명 불교학생회 아이들을 중심으로 불교문화체험 활동을 다방면에서 펼친다. 매일 오전 8시 35분 학생들과 아침예불을 올리고, 매주 목요일엔 불교학생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회를 한다. 매 1교시 수업 시작할 땐 '마음의 산책(선정의 시간)'을 통해 전 교생이 5분간 명상을 한다. 목요일 점심시간에는 발우공양의 의미를 되새기는 '빈그릇 운동 캠페인'을, 한 달에 한 번 사전에 신청한 학생들과는 일요일 봉선사에서 '청년연합법회'에 참석한다. 이 밖에도 1년에 두 번 '불교문화체험전'과 또 '다도체험전'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고 즐겁게 불교의 문화를 접하고 불교와 친해지고 거부감이 없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포교를 하고 있다.

올해 초 한 학생이 찾아왔다. 졸업을 앞둔 학생이었다. 지난 1년 동안 나를 롤모델로 여겼던 남학생이다. 그 학생은 불교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하였고 내 도덕 수업도 열심히 들었다. 불교를 무척 좋아하는 학생이었고 진학 목표도 동국대로 설정하고 있었다. 그 학생은 장문의 편지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다.

"법사님 덕에 1년간 행복했습니다. 불교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법사님은 아라한이 되실 겁니다. 저도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나는 편지를 열어 읽어보았고 큰 감동과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학생은 거의 A4 용지 한 장이나 되는 분량의 내용을 자필로 정성스럽게 적어서 나에게 건넨 것이다. 편지에는 내 덕분에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함과 자신의 삶에서의 좋은 의미를 알게 되었고, 매일 같이 불경을 읽고 108배와 염불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신행 생활의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편지 마지막은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랬다. 이것이 내가 갈 길이다. 지금까지 정진한 부처님의 법을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 사람들에게 잘 전해서 부처님에게 입은 은혜를 세상에 회향하는 것 말이다. 부처님께서 60명의 아라한을 만드시고 하신 전법선언이 다시금 떠오른다. 행복과 이익을 위해 자비심을 가지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라!

오늘도 나와 남 모두가 부처님 법 안에서 몸과 마음이 자유롭고 평온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나 역시 전법 포교의 최전선에 있는 교법사로서 불교 공부와 회향(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여법하게 해나가길 다시금 서원한다.



손범준 광동중 교법사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⑤ 사춘기의 이해(2)

사춘기 왔다고요? 이젠 놓아줄 때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는 아이들의 발달과 특징을 잘 이해해야 한다. 아이들의 '짜증, 적대시, 욕설, 친구 중요시, 과한 타인의식'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알면,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알면 사라지는 것이다. 영화 〈실미도〉를 보면 납치되는 버스에서 아이가 떼를 쓰며 울자 엄마가 막 다그치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한 납치범이 엄마를 쏘아붙이며 말한다. "아줌마, 애들은 원래 우는 거예요!" 그렇다. 애들은 원래 우는 건데, 안 그러길 바라는 엄마만 자꾸 부아가 치민다.

뇌과학적으로도 사춘기는 뇌의 전면 개보수가 이뤄지는 시기다. '감정, 정서, 충동, 동기'를 담당하는 변연계가 전두엽보다 먼저 완공되고, '자기인식, 정보통합, 계획판단, 감정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의 뉴런·시냅스 가지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뇌발달의 '우선순위'와 '과도기'로 위 같은 사춘기의 특징들이 나타난다.

다른 한편으로 사춘기는 가장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유 없는 반항' '질풍노도'의 원인인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 소화하지 못한 혼란스러운 무의식적 내용들이 새로운 자아 이미지와 함께 재구성되고 통합되기 때문이다. 이제 아이들은 이 과업의 본보기가 될 만한 새로운 롤모델을 찾아 나선다.

이때 부모가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사춘기 왔다면 부모는 '언행일치' 보이길

배우자 험담, 아이 통한 대리만족은 '엄금'

부모는 성장 인정하고 '따뜻한 난로' 돼야

첫째, '언행일치'다. 아이들은 뭔가 대단한 성취를 이룬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존경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부모로서의 권위가 살아난다. 본인은 틈날 때마다 휴대폰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휴대폰 그만 보고 공부하라는 것은 자신을 무시해달라고 애원하는 일이다.

둘째, '배우자 욕하지 않기'이다. 아이에게 엄마, 아빠는 두 개의 하늘이다. 부부야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아이에게는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서로 싸우고 험담하는 자체로 아이는 큰 상처를 받는다.

셋째, '아이를 자신의 대리만족으로 삼지 않기'이다.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아이를 통해 대신 하려는 부모가 많다. 부모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아이는 하나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 삶이 짐짝처럼 느껴질 뿐이다.

사춘기가 시작되면 아이를 품에서 놓아줄 때가 온 것이다. 이제 부모는 아이의 성장과 독립을 인정하고 '따뜻한 난로'가 되어야 한다. 따뜻한 난로란 아이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뜻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사랑과 집착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요, '집착'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대부분 부모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한다. 정작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한 괴로움, 부모의 소중한 것을 거절한 데서 오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한다.

따뜻한 난로는 억지로 아이를 쫓아다니며 간섭하지 않고, 불 꺼진 난로처럼 방임하지도 않는다. 언제든 아이들이 원할 때 따뜻한 온기를 쬘 수 있도록 기다려 준다. 그러면 아이들은 또 그 온기의 힘으로 든든하게 자신만의 먼 길을 떠날 수 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부모의 수행이 필요한 이유다. 곧 아이들은 더 건강한 모습으로 환하게 되돌아올 것이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불교무용대전에 관심을

불교무용예술의 활성화와 문화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된 '불교무용대전'이 올해 10회를 맞았다. '10'이라는 숫자가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재정에서나 인식에서나 열악한 불교문화예술 분야, 특히 무용으로 꾸준히 무대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 국제대회로 발돋움한 것이기에 의미가 남다르다.

승무와 바라춤, 나비춤, 법고무 등 불교무용 분야는 한국무용예술계를 이끌어온 중요한 자산이지만 음악과 미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 개인적 원력에 의해 전승·창작돼 왔다. 불교무용대전도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 이철진 대표의 문화포교 원력으로 시작됐다. 그러다 종교적 의미를 넘어 예술적 시각에서 계승·보존·발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16년부터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주최로 개최돼왔다. 그러나 몇 해 후 불교무용대전은 주최가 다시 구슬주머니로 변경됐다. 예산과 홍보 등 지원이 준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순리였다.

쉽지 않은 운영에도 이철진 대표는 그 끈을 놓지 않았다. 지난 5월 29일 성균소극장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 만난 이철진 대표는 "대표님 부자세요"라는 짓궂은 기자의 질문에 박장대소하며 "열정과 불심"이라고 말했다. 지금껏 이어온 불교무용문화를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내려 놓을 수 없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시대상이 담긴 불교예술은 그 자체로 포교의 아이콘이자 과거의 전승, 현재의 기록, 나아가 불교의 미래다.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대중들이 불교에 좀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문화예술 영역이다.

길고 길었던 코로나19 시기의 움츠렸던 마음을 펴고 6월 한 달은 불교무용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불교무용의 발전을 이루고 대중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불교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은 예술가만이 아닌 불자 모두의 임무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아내 살리려고 집까지 팔았지만 커지는 병원비에 '한숨'

네팔 이주민 무큰다씨, 뇌종양 아내 치료비 2억원
5년 이상 장기치료 필요…재발가능성 여전히 높아
빚만 4천만원, 통원치료비 300만원 감당 어려워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쉬운 불교’면 다 좋은 것일까?

현불논단



명법 스님
해인사 국일암 감원

며칠 전 조립식 가구를 구입하였다. 드라이버가 필요없을 정도로 간단했지만 처음 끼울 때 잘 맞지 않아 애를 먹었다. 함께 조립하던 보살님이 크게 실망하시기에 말씀드렸다. “조립이 쉽다면 그만큼 망가지기 쉬울 거예요. 어려운 만큼 단단한거죠.” 세상일도 마찬가지다.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쉽게 망가진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로의 전환이다. 불교계에서도 유튜브, 페이스북, 줌 등 온라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발빠르게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 이젠 절에 가지 않고도 법문도 듣고 경전강의도 들을 수 있고, 심지어 명상도 할 수 있다. 새 책 나오기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출간되기만 하면 서점에 달려가던 시절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디지털로의 전환이 가져온 긍정적 변화 중 하나는 지식의 확산이다. 전문지식이 손쉽게 공유되고 확산되고 있다. 불교 지식도 예외가 아니다. 이젠 누구나 원하면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도 좋아지고 지식의 양이 놀랄 만큼 커졌다. 그만큼 불교가 쉬워졌을까?

“선문답 같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불교는 어려운 말을 쓰고 구름 잡는 이야기나 한다는 선입견이 있었다. 한 때 ‘친절한 불교’가 화두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 함의는 ‘쉬운 불교’였다. 쉬우

세태 맞게 쉽게 佛法 전함 필요
고도의 역설, 비유가 불교 매력
깊이 있는 전법방안도 고민해야

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불교를 좋아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조금이라도 어렵고 힘들면 바로 외면하는 요즘 세태를 따르려면 쉬운 불교가 필요하겠지만 과연 쉬운 불교가 다 좋은 것일까?

이미 알려진 지식에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종교를 찾는다. 불자들에게 친절하게 불교를 알리기 위해 전국 각지에 불교대학을 세우고 불교를 가르쳤지만 ‘사성제’, ‘오온’ 같은 불교 용어를 읊조리는 것 이상으로 불교를 알렸는지 의문이다. 조금만 들어가면 도통 알 수 없는 내용들인데, 과연 옛 선사들이 “알려주지 않음의 친절함”을 말씀하신 것이 헛소리에 지나지 않았을까?

종교, 특히 스스로의 깨달음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불교 본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을 뒤흔들고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격 없이 그 어떤 깨우침이 있겠는가. 그것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 위에 새로운 지식을 더하는 ‘친절한 방식’으로 해낼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러기에 용수 보살은 ‘사구부정’으로 답하고 선사들은 ‘할’과 ‘방’으로 답했던 것이 아닌가.

불교에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그 역설과 상식을 뛰어넘는 사유를 꼽는 사람이 많다. 쉽게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외면하거나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힘, 그것이 불교의 매력이 아닌가. 그러므로 불교는 모름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 포기하지 않고 알려고 하는 용기를 가진 자에게만 열리는 세계이다.

지식의 공유와 확산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디지털 시대, 불교 지식의 독특함과 깊이를 어떻게 하면 온전히 전할 수 있을지 고민이 시작돼야 할 시간이다.

不二의 과학

세간과 출세간



지승도 교수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장난하나?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지 불교는 온통 허망한 말장난 같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말장난 같기에 초정밀 과학이자 궁극의 과학이다. 왜인가? 과학의 근간인 인과율을 매우 정밀한 수준까지 정립한 연기법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공’의 개념 때문이다.

양자는 본질적으로 둘이 아니다. 비록 실체는 없지만, 인과적 작용은 분명하다는 의미에서 ‘공성’이다. 정해진바 고유한 성질이 없다는 이유에서 ‘무자성’이라고도 부른다. 이름뿐인 자아는 실재하지만, 실체적 자아는 본래 없다는 의미에서 ‘무아’라고도 이름한다. 있다! 없다! 양변에 떨어지면 실상에 어긋난다는 뜻으로 ‘중도’라고 한다. 통칭해서 ‘불이(不二)’다. 말장난 같지만, 붓다께서 설하신 진리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기이해! 실재성은 없고 잠재성만 있다니!”

‘양자중첩현상’을 확인한 어느 과학자의 탄성이다. 1세기 전 이른바 이중슬릿 실험으로 입자와 파동이 둘이 아니라는 중첩현상이 확인됐다. 불교의 말장난 일부를 현대과학이 입증한 셈이다. 중첩현상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실재성을 갖느냐 아니면 비실재성이냐는 또 다른 논란거리였다. 벨 부등식이라는 가설의 확인만 남았지만, 실험은 녹록지 않았다. 다행히 1세기가 지난 오

양자, 인과적 작용 분명하기에 ‘공성’
이중슬릿실험으로 양자중첩현상 확인
붓다 가르침이야말로 ‘공성의 과학’

늘날에 이르러 노벨물리학상 수상을 통해 실험결과가 세상에 알려졌다. 결과는 ‘비실재성’이다. 물질세계에 실재는 없고 오로지 잠재성만 존재한다는 충격적 결과다.

“이것이 공성이다”라고 확정할 방법은 없다. 정해진 바 없는 것이 공성이기에 뭔가를 내세우는 순간 어긋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성을 드러낼 방법은 단 하나다. 가설이 틀렸음을 입증한 이번 실험과 같이, 사견자들이 주장하는 ‘영혼’ ‘실체’ ‘아트만’ ‘자성’ 등 각종 가설의 오류만 밝혀내면 된다. X는 X가 아닌 것을 배제함으로써 드러낼 수 있다는 디그나가의 아포하 개념처럼.

물론 현대과학으로 공성을 완전히 입증할 수는 없다. 의식의 문제를 밝힐 수 있는 정신과학이 미흡한 까닭이다. 이제 불교가 나설 차례다. 세상에 불가사의는 없다고! 논리와 언어로 해명하지 못할 존재와 현상과 속성은 없다고! 비록 확증은 체험적 통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언어도단이라는 미명하에 다르마 논리체계가 부정됐다면 붓다의 가르침은 전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얼마나 다행인가! 위대한 과학자 붓다가 계셨으니! 그분의 논리적 가르침이야말로 과학 너머의 과학, 공성의 과학, 궁극의 과학이다. 불교는 결코 허망한 말장난이나 비과학이 아니다. 삶의 문제를 진실하게 파고들어 사실적으로 해결하는 실용과학이자 동시에 물질과학을 꿰뚫는 정신과학이다. 삶과 과학의 불이다. 세간과 출세간의 불이다. 지혜와 자비의 불이다. 공성과 연기의 불이다.

‘깨달은 자는 더 이상 인과를 따르지 않노라’라는 사견으로 말미암아 오백생을 여우로서 윤회해야 했던 어느 도인의 해묵은 한을 풀어준 백장선사의 불이 법문으로 마무리한다.

“깨달은 자는 인과에 떨어집니까? 아닙니까?”

“다만 인과에 어둡지 않노라!”

社 說

동국대 ‘대학생 전법 역량 결집’ 환영한다

지난 5월 11일 14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을 완료한 동국대가 대학생 전법 역량 결집에 나섰다고 한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5월 29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동국대 불교동아리 연합간담회’를 개최했다.

14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대표와 지도교수, 지도법사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아리 대표들에게 장학금 수여가 이뤄졌고, 향후 동아리 지원 계획 등이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학교 측의 동아리 지원 계획을 들어보면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당장 동아리 대표들에게는 ‘동국건학장학’ 명목으로 연간 5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되며, 모든 회원들에게는 ‘동국가람장학’을 통해 연 4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된다.

학생들도 이 같은 지원에 화답하듯 단과대학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활동 계획도 내놨다. 법과대학 ‘불법(佛法)단체’의 경우 중구민과 동국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봉사와 사찰 관련 법률 쟁송에 대한 학술대회 개최를 계획으로 발표했고, AI융합대학 ‘BUDDHAI’는 정각원 메타버스 구축을 계획으로 내놨다.

전폭적인 지원과 신행할 수 있는 장을 여니 자기만의 개성을 살린 다양한 신행 및 전법 계획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같이 주도적 신행활동이야말로 대학생 불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범적 전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모범적 전법 모델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비구니스님 아카이브 구축에 부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산하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가 ‘비구니 인물사전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2020년부터 전국비구니회에서 시작한 ‘비구니인물사전 디지털 아카이브 편찬 사업’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역대 비구니스님들의 활동과 정보를 디지털로 축적·확장해 나가기 위해 시작됐다. 아카이브는 ‘한국비구니수행담록’ 상·중·하 3권에 실린 비구니스님 329명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이외에도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출가한 스님들도 포함했다.

무엇보다 비구니스님의 생애와 수행 과정, 사찰 정보와 포교 활동 사항까지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어 그 활용도가 기대가 된다. 특히 텍스트를 분석해 키워드 사이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시맨틱 데이터’를 적용, 의미 있는 키워드끼리 연결되면서 다양한 정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한국불교사에서 비구니스님들은 불교 계승·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음에도 비구스님에 비해 많은 조명을 받지 못했다. 이는 인류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성이나 노인, 아이들은 기록되지 못한 주변인이었기에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의 비구니 승가가 앞선 비구니 선지식들의 생애와 사상이 담긴 기록들을 발굴·연구해 그 결과물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한 것은 의미가 깊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비구니스님들의 면면을 대중들에게 잘 알릴 수 있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일붕존자 28주기 추모다례재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을 창종하시고 세계불교 초대법왕을 역임하시면서 세계 곳곳을 종횡무진하시며 오직 불교포교와 세계평화, 민족 평화통일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바치신 서경보 일붕존자의 제28주기 추모다례재를 불기2568(2024)년 6월 14일 금요일(음5월9일) 오전 10시 30분에 총본산 일붕선원에서 봉행하고자 하오니 종도님들께서는 참석하시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기 2568년(2024) 6월 5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6월 5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6월 5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2024 어싱Earthing 제품 특판

어싱, "지구 표면 존재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어싱이란? 어싱은 야외에서 맨발로 걷거나 앉아 있고 누워 있으며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싱의 창시자 'Clinton Ober'는 맨발로 땅을 밟고 걷는 것에 인체를 회복시키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고
10여 년 관찰과 실험 끝에 '어싱'(Earthing)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국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어싱의 가장 쉬운 방법은 '맨발걷기'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거문화가 보편화된 현대인들은 나무가 자라는 높이(4층) 이상에 살기에 대지의 자연에너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톳길, 숲길, 모래사장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 어싱입니다.
어싱은 최소 30분 이상 하여야 하며 건강한 사람은 주 4회, 건강을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꾸준히 맨발걷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싱 제품은 이러한 어싱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입니다.
땅의 음이온이 전달되는 접지기능을 넣고 맨발걷기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신발, 그리고 매트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싱을 하게 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New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베이지

어싱 매트·베개·방석 특판 할인

오직 들꽃잠이 엄선한 그래핀 신소재로
전하는 깊고 진한 우리 몸의 가장 건강한 열 에너지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S ~~판매가 1,880,000~~ ⇒ 할인가 1,780,000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Q ~~판매가 2,250,000~~ ⇒ 할인가 1,980,000



그래핀 어싱 베개 (아치형) [어싱(접지)코드 포함]
~~판매가 120,000~~ ⇒ 할인가 84,000



좌훈 음파 케겔 운동기
~~판매가 1,200,000~~ ⇒ 할인가 1,080,000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